



7

1988

문학예술출판사

#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

1988. 7 호

(루게 489)



## ◆◆◆◆◆◆◆◆◆◆ 차 례 ◆◆◆◆◆◆◆◆◆◆

소원속에, 념원속에.....	4
회답편지 .....	5
노래부르노라, 당이여 .....	5
행복 .....	6
친애하는 지도자 <b>김정일</b> 동지께 인사를.....	7
혁명적 창작기풍과 생활기풍.....	8
《지원》의 높이신 뜻이여 .....	10
길은 왜 환희로운가 (외 1 편).....	11
내리는 비 다 맞아도 .....	11
투사들의 그 이름은 .....	12
백두산의 안개내리네 .....	12
문학예술작품에서 정치조직선의 구현문제 .....	13
푸른 산발을 바라보며 .....	16
백설의 비밀 .....	17
타오르라, 화불이여 (외 4 편).....	26
만 폭 동.....	26
만 물 상.....	27
동해여, 내가 왔다.....	27
장벽아, 말하라 .....	28
노을에 새겨진 글발 .....	28
나 의 전 우.....	29

종군의 나날에 .....	30
내가 찾은 주인공 .....	32
나라의 맡아들 .....	33
《위장풀 뜯으러 내려왔수다》 ( 외 1 편) .....	34
《군 민 교》 .....	34
1211 고지 ( 외 1 편) .....	35
화 선 악 기 .....	35
건 설 자 (외 1 편) .....	35
보 배 산 .....	36
방송차 로체우에 날아오르네 .....	37
봄밤이야기 .....	38
연공들이 사는 집 .....	41
《1 번수》 .....	42
만경대행 버스안에서 .....	50
한 일군의 모습에서 .....	51
작가의 문체 .....	53
량심의 길 .....	57
취재의 문학이냐, 체험의 문학이냐 .....	68
나를 불러다오 .....	69
청춘시절은 어떻게 보내야 하는가 .....	70
《좋은 시는 생활에 대한 새로운 관찰력을 키워줍니다》 .....	75
설암리와 잉어 .....	76
옥중 스케치 (외 1 편) .....	78
출 옥 .....	78
신천이여, 네가 준것은... ( 외 1 편) .....	79
소년은 오늘도 편지를 쓴다 .....	80

# 소원속에, 념원속에

박철

소원속에  
간절한 소원속에  
네 뿌리 내리고 태어나  
함함한 떨기떨기  
그처럼 타는듯 붉은가

념원우에  
사무친 념원의 세월우에  
네 푸른 잎 펼치고 피어나  
싱싱한 송이송이  
긴긴 백날을 두고 만발하는가

꽃이라 부르기에 신비하구나  
아름답다 하기에 숭엄하구나  
어찌보면 이글대는 불덩이  
어찌보면 어찌보면  
황황 타오르는 불길

그 어디 있었던가  
이 땅 이 하늘아래  
저렇듯 빛과 모양이 조화를 이룬 꽃  
무색하구나 내 알고있던  
천만꽃의 아름다움은

땅의 자양속에  
네 뿌리를 내렸다면  
태양의 빛발에

네 꽃피어났다면  
꽃이어 네 모습 그처럼 아름다우랴

세월을 두고  
세계가 기원한 향도성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  
그이를 우러러 그 인민이 꽃피웠구나  
너를 꽃중의 꽃으로

아, 사상과 령도에  
그 인품과 사랑에  
끝없이 매혹된 인민의 마음  
뿌리로 내리고 꽃잎으로 붉어  
이 세상에 새롭게 만발한 아름다움이여!

너는 그대로 흙모의 시  
너는 그대로 축원의 찬가  
친애하는 그이 주체로 밝히시는  
찬란한 미래를 받아안고  
온 세상이 분출한 환희의 심장!

아아, 《**김정일화**》!  
보면볼수록  
아름다운 세계로 끝없이 정화시켜주는  
너는 내 마음의 꽃이어라!  
너는 온 세상의 꽃이어라!

## 회답편지

김이돌

속깊은 어머니처럼  
저에게도 가슴 터놓고  
나라사정을 이야기해주었습니다

어길수 없는 명령으로도  
내릴수 있으련만  
편지를 보냈습니다

어머니의 절절한 편지를 받고  
회답을 쓰지 않을 자식 어데 있습니까  
기다리고계실 어머니  
눈을 감아도 삼삼한  
인자한 그 모습 그리며  
서둘러 펜을 들지 않을 자식  
세상 그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 한치의 땅을 두고  
결사전을 벌리던 전사들처럼  
한톤의 강제가 귀중하던 때  
나라가 허리를 펴게 한 당원들처럼  
저도 회답을 올리렵니다

고난의 언덕을 넘고  
시련의 진펄길 헤치며  
걸음걸음 위훈을 떨쳐온  
영광의 그 대오에 선 당원  
당의 아들된 도리를 다해...

해를 달로 바꾸고  
달을 날로 바꾸며

저도 회답편지를 씁니다  
하늘땅을 철의 숲으로 가득 채우는 건설장에서  
폭넓은 한경간 웅근 트라스  
한것에 무어올리며  
조피장의 석달일 사흘에 제끼며

분과 초를 다루어  
아침이 다르고 저녁이 새로운곳  
땅밑엔 철관이 그물처럼 뻗고  
전로장의 지붕 하늘에 닿았습니다  
한시도 지체 못할 우리의 높은 자각에  
넓은 땅도 가슴펴고 일떠섰습니다

당원의 대답은  
참다운 실천으로 빛나는  
세상에서 가장 높은 대답이거니  
저도 씁니다  
불꽃 날리는 용접봉 붓으로 틀어잡고  
밀려드는 파도를 떠미는 농포별  
드넓은 대지를 종이로 펴놓고  
어머니당에 회답편지를 씁니다

9 월의 대축전장에  
어머니당의 기쁨이 될  
조국의 하늘가에 높이 쌓을  
강철의 산악들로,  
먼 후날에도 부끄럼없을  
값있게 빛날 오늘의 하루하루로  
저의 회답편지를 씁니다

가사

## 노래부르노라, 당이여

안창만

노래를 부르노라 당이여 우리 어머니여  
그대 우리를 키웠고 우리 그대를 따르네  
시련을 넘으며 영광에 넘치여 그대를 받들어왔네  
젊음의 자옥도 못잊을 추억도 그 길에 수놓았네

노래를 부르노라 당이여 우리 운명이여  
그대 안겨준 은혜밖에 우리 다른것 몰라라

유구한 이 강산 기쁨진 강토에 그대의 뜻이 꽃피고  
별빛이 내리는 행복의 창문에 그대 사랑 어려있네

노래를 부르노라 당이여 우리 기발이여  
정녕 그대가 있기에 우리 미래는 밝아라  
이 길을 가다가 넘어진다 해도 그대 손잡고 일어나  
기어이 가리라 끝까지 그대 이끄는 한길로

## 행복

류인섭

《행복》이란 말은 우리 생활속에서 자주 되풀이된다. 세상에 부러운것 없는 우리 인민의 감정을 한마디로 표현해주는것으로서 그처럼 우리와 친숙해진 말마디도 드물것이다.

우리의 가슴마다에 넘치는 행복을 두고 나는 그 참 뜻을 되새겨보며 때때로 생각에 잠기곤한다.

몇달전의 일이었다.

그날 저녁도 나는 습관처럼 우리 집 창가에 앉아 하루일을 마친 근로자들의 기쁨이 물결쳐흐르는 대동강반을 바라보고있었다.

문득 문기척도 없이 문소리가 가볍게 울리더니 뜻밖에도 인철이의 절절한 목소리가 울려왔다.

그러자 비둘기같은 우리 집 오누이가 달려가 그에게 매달렸다.

《야! 원산 삼촌이 왔다!》

《아니, 온다는 기별도 없이 웬일이냐?》

수산대학연구소 연구사인 인철이는 급한 자료작업이 제기되어 서둘러 평양으로 올라오느라고 미처 기별을 못했다고 하였다. 잠시 숨을 돌리고 난 동생은 이렇게 말하는것이였다.

《형님은 행복하겠어요.》

《아니 그건 또 무슨 소리냐. 넌 행복하지 않단말이야?》

《행복하지요. 그러나 형님만은 못해요. 우리 연구소 동무들은 또한 나만 못하구요.》

《? ...》

동생은 연구소를 떠나올 때 사람들이 그를 얼마나 부러워했는지 모른다고 했다.

한 연구사는 인철이의 어깨를 툭 치며 말했다고 한다.

《인철동무가 정말 부럽구만. 마음 같아서는 나도 모든 일을 뒤로 미루고 당장 평양으로 달려가고싶네. ...》

연구실장은 또한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수도에 간 기회에 중앙식물원에 꼭 가보고 오시오. 신문과 텔레비존에서 널리 소개되었지만 우리 연구소에서는 동무가 처음으로 <김정일화>를 직접 보는 행복을 지니게 된셈이요. 바로 동무가...》

언제나 연구사업에 대한 출장임무만을 한두마디로 강조하던 실장이라고 한다. 그날은 출장을 마치고 돌아와 중앙식물원에 들려온 이야기를 부서동무들앞에서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는것이다.

나는 그제야 형님은 나보다 행복한 사람이며 부서 사람들보다 자기가 행복하다고 하던 동생의 말에 공감이가는것이였다. 그리고 인간이 누리는 행복에 대한 의미가 범상치 않아 다시금 깊이 음미해보게 되는 것이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뜻을 꽃피우시며 주체의 혁명위업을 빛나는 승리의 한길로 령도하시는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에 대한 우리 인민과 세계인민들의 흠모의 정은 날을 따라 더욱더 높아지고있다.

《**김정일화**》가 세상에 나왔다는 소식을 접하고 누구보다도 먼저 달려갔던 나였지만 이튿날 또다시 동생과 함께 중앙식물원을 찾아갔다.

끝없는 경모와 환희에 휩싸인 사람들의 물결이 갖가지 나무들이 우거진 포석길에 흐른다. 찾아오는 사람이 하루에도 수천수만을 헤아린다는 중앙식물원이다. 식물원 특유의 상쾌한 대기를 폐부에 느끼며 설레여오는 가슴을 안고 우리 형제도 사람들의 물결을 따라 식물원에 들어섰다.

《! ...》

《**김정일화**》가 한눈에 안기여오는 이 순간의 감흥을 어떤 말로 표현할수 있겠는가. 아름다운 감정과 숭엄한 기분이 심장을 새로운 박동으로 울려주는듯하다. 마치도 태양의 붉은 빛이 《**김정일화**》에서 뿜어나오는듯하였다! ...

일본의 원예학자 가모 모도데루는 이 충성의 꽃을 꽃피우기 위해 20여년의 긴 세월 탐구의 낮과 밤을 보내였다고 한다. 가장 경모하여마지 않는 걸출한 위인께, 누리를 밝히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더욱 심화발전시켜나가는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 삼가 이 꽃을 올리려는 그의 념원은 결코 그자신의 념원만이 아니였었다. 꽃을 찾아 대륙과 대양을 넘어 편답하는 길에서 그는 수많은 주체사상 신봉자들을 만나게 되었으며 자주의 시대를 전진시키며 력사의 진로를 밝혀주는분이 어느분인가를 심장으로 깨닫게 된 것이였다.

그리하여 20세기 인류의 가슴에 차넘치는 다함없는 흠모의 감정은 《**김정일화**》로 붉게 피어난것이 다...

사람들은 이름할수 없는 감격과 깊은 생각에 잠겨여있다. 그들속에 우리 형제도 서있다.

외국의 벗들도 《**김정일화**》앞에서 발길을 차마 떼지 못한다. 세계각국을 다녀보아도 이처럼 아름다운 꽃, 사연깊은 꽃을 보지 못했다고 찬탄을 아끼지 않는다.

지중해의 기슭에서 온 어느 한 외국인은 격동된 심정을 금치 못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것이였다.

《<**김정일화**>는 이 온실에서만 피고있다고 나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나의 마음속에서도 꽃피고있습니다.》

어찌 그 혼자의 심정이랴. 《**김정일화**》를 본 외국의 벗들은 한결같이 감상록에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에 대한 칭송의 감정을 적어나가고있었다.

우리는 어느덧 중앙식물원을 나섰다. 찬란한 태양이 머리위에서 빛나고있었다.

중앙식물원을 나서는 사람들의 얼굴마다에는 희귀하고 아름다운 꽃을 보았을 때의 학구적인 흥미와 기쁨만이 아닌 그 어떤 흥분과 커다란 행복이 물결치고있었다. 저 처녀대학생의 순박한 얼굴에서도 인민군 군인의 어글어글한 눈매에서도. ...

행복! ... 진정한 행복, 가장 큰 행복은 무엇인가.

창조적인 노동속에서, 풍만한 생활속에서 희망이 꽃피는속에서 우리는 행복을 노래하고있다.

이 모든 행복은 주체시대를 빛내여나가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사랑 속에서 꽃피고있다. 그러기에 우리 인민의 가슴속에는 가장

위대한 행복이 간직되어있는것이다. 세계 혁명적 인민들이 것처럼 흡모하고 따르는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를 지도자로 높이 모신 우리 인민의 행복! ...

그보다 더 큰 행복, 더 큰 영광은 없다.

인류력사가 생겨 수천년이 흐르는 기간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을 갈망하여왔으며 행복이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자기 식으로 설명해왔다.

그러나 오늘 우리 인민들처럼 위대한 행복에 잠겨있는 인민, 행복의 진가를 알고있는 인민은 없다! ...

나는 동생과 함께 행복의 물결이 넘치는 수도의 거리를 걷고걸었다.

##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 인사를

### 이브라히마 디알로

정녕 그이는 조선의 아름다움 한몸에 체현하신 분

인사를 드리노라

위대한 사상 지니시고

불멸의 업적 쌓으신 위대한분에게

조선에서는

무지와 몽매 기아를 가셔버리고

부강한 나라를 일떠세웠어라

이르는곳마다 아름다운 공원들 펼쳐지고

화려한 대도시들 솟아올라라

천재적인 령도자의 손길 닿지 않은곳 없나니

정녕 조선인민은 만복을 받아안고

궁지높은 삶 누리고있어라

인사를 드리노라

가난한 사람들의 열렬한 옹호자이신

**김정일** 동지께

새 조선엔 실업도 거지도 없어라

그이께서 마련하신 조선의 승리

그것은 근로대중 모두의 승리

그 옛날 속히우며 살아왔던 농민들의 승리

수탈당하던 노동자들의 승리여라

**김정일** 동지께 인사를 드리노라

나의 형제들인 농민들도 인사를 드리노라

내 농민들에게 그이의 로작 알려주었나니

그들은 그이의 사상 받아안고

그이를 우러러 환성을 올렸네

정녕 그이는 그들의 참다운 벗

참다운 옹호자이시여라

**김정일** 동지께 뜨거운 인사를 드리노라

여기 머나먼 기네땅에서

삼가 인사를 드리노라

인사를 드리노라

친애하는 향도자 **김정일** 동지께

주체사상을 지침으로 하는

그이의 령도 더없이 현명하여라

나는 보았노라

푸르른 전야에서 현지도도를 하시는 그이의 모습을

나는 보았노라

건설장들을 찾으시여

높아가는 건물들을 일일이 돌아보시며

노동자들에게 가르치심을 주시는 그이를

그이께서는 성스러운 조국건설위업을 위하여

얼마나 심혈을 기울이시는가

그 얼마나 로고를 아끼지 않으시는가

(필자는 기네민족궁전 기사임)

## 혁명적 창작기풍과 생활기풍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문학예술이 끊임없이 전진하는 혁명의 요구에 맞게 자기의 사명을 다하자면 작가, 예술인들속에서 혁명적 창작기풍과 생활기풍을 철저히 세워야 합니다.》**

혁명적 창작기풍과 생활기풍이란 우리 당의 혁명정신을 가지고 주체혁명위업수행에 이바지할수 있는 작품을 창작하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며 혁명적으로 생활하는 기풍을 말한다. 다시말하여 그것은 언제 어디서 어떤 바람이 불어오건 누가 무엇이라 하건 모든것을 주체의 관점에서 보고 주체의 요구대로 창작하고 생활하는 기풍을 의미하는것이다.

오늘 우리 작가, 예술인들 앞에는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이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심화발전되고있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혁명적 문학예술작품을 더 많이, 더 훌륭히 창작하여야 할 무겁고도 영예로운 임무가 나르고있다.

작가, 예술인들이 이 숭고한 임무를 원만히 수행하여 시대와 혁명 앞에 지닌 자기의 사명을 다 하자면 혁명적 창작기풍과 생활기풍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

혁명적 창작기풍과 생활기풍은 혁명적인 작가, 예술인들이 지녀야 할 기본품성이며 사상예술성이 높은 혁명적 작품의 왕성한 창작을 위한 확고한 담보이다.

작가, 예술인들 속에서 혁명적 창작기풍과 생활기풍을 세우는것은 무엇보다도 우리 혁명발전의 요구로부터 필수적으로 제기되는 문제이다.

오늘 우리 나라는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의 기치밑에 제 3차 7개년계획을 앞당겨 수행하여 사회주의완전승리를 다그치기 위하여 비상히 빠른 속도로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혁명과 건설의 거세찬 전진속에서 우리 인민은 리상으로만 그려오던 사회주의완전승리의 그날을 가까이 바라보며 신심과 랑만에 넘쳐있다.

이 격동적인 현실은 우리의 문학예술로 하여금 혁명의 전진에 보조를 맞추며 인민들의 높은 문화정서적 요구에 훌륭한 창작성과로 대답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작가, 예술인들이 우리 혁명발전의 이 현실적 요구에 따라서자면 보통의 각오와 노력으로는 안되며 그 어느때보다도 높은 혁명적 창작기풍과 생활기풍을 가져야 한다. 그래야 보다 왕성한 의욕을 가지고 좋은 작품을 창작할수 있다.

작가, 예술인들 속에서 혁명적 창작기풍과 생활기풍을 세우는것은 또한 문학예술작품창작의 본성적 요구와도 관련된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문학예술작품은 작가, 예술인들의 높은 사상과 열정의 산물이다. 다른 모든 사업이 다 그러하지만 특히 문학예술창조사업은 불타는 열정과 피타는 노력을 가지고 하여야 한다.

문학예술작품에는 작가의 체험과 사색, 심장의 박동과 숨결이 그대로 반영되게 된다. 작가의 숨결이 느껴지지 않는 작품은 참다운 의미에서의 예술작품이 아니며 그것은 아무런 생명력도 못가진다.

문학예술작품이 진정으로 들끓는 현실생활의 산화폭으로 작가의 숨결과 맥박이 느껴지는 예술적창조물로 되자면 창작가들이 혁명적인 창작기풍과 생활기풍을 가져야 한다. 혁명적 창작기풍과 생활기풍이 선 작가, 예술인들만이 불타는 열정과 피타는 노력을 경주하여 훌륭한 작품을 창작해낼수있다.

혁명적 창작기풍과 생활기풍이 바로서지 못하면 창작에서 부진상태를 면할수 없고 우리 당이 문학예술부문에서 쌓아올린 업적을 제대로 고수하고 발전시켜나갈수도 없다. 뿐만아니라 작가, 예술인들이 일상 사업과 생활에서도 건전한 기풍을 가질수 없으며 나아가서는 당의 작가, 예술인으로서의 본분을 제대로 지켜나갈수 없다.

작가, 예술인들은 우리 혁명발전의 요구와 문학예술창작의 본성에 맞게 혁명적 창작기풍과 생활기풍을 철저히 세워나갈 때 시대와 혁명 앞에 지닌 자기의 숭고한 사명과 책임을 다할수 있다.

작가, 예술인들 속에서 혁명적 창작기풍과 생활기풍을 세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먼저 당정책을 절대적인것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관철하기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는 기풍을 세우는것이 중요하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의 로선과 정책은 모든 사업과 행동의 유일한 지도적 지침이며 그 성과적 수행을 위한 확고한 담보이다. 당의 로선과 방침에는 모든것이 다 밝혀져있으며 따라서 당정책대로 해나가면 이 세상에 못해낼 일이 없는것이다.

우리 당의 주체적 문예 사상과 방침에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 건설과 창조에서 나서는 모든 리론실천적 문제들에 대한 해답이 주어져있고 창작방향과 실천적 방도까지 다 밝혀져있다.

문제는 당의 방침을 관철하는데서 조건타발을 하면서 그것을 흥정하거나 중도반단함이 없이 무조건 끝까지 철저히 집행해나가는것이 중요하다.



작가, 예술인들은 당의 령도밑에 불후의 고전적 명작을 한달남짓한 기간에 영화로 옮기고 5 대혁명 가극을 짧은 기간에 창조하는 열렬한 투쟁정신을 보여주었다.

오늘 우리 당이 요구하고 인민이 바라는것은 작가, 예술인들이 당의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주체예술의 대전성기를 마련한 영화혁명, 가극혁명을 일으키던 때의 그런 정신, 그런 기백이다. 《영화혁명, 가극혁명을 수행하던 그날의 그 정신, 그 기백으로 살며 창작하자!》 이것이 오늘 문학예술부문앞에 제시하는 당의 구호이다.

작가, 예술인들은 당의 이 혁명적 구호를 높이 받들고 당의 문예방침을 무한한 헌신성과 희생성을 발휘하여 무조건 끝까지 관철해나가야 한다. 당의 문예방침을 심장으로 받들고 그 관철을 위한 투쟁에 높은 충성심을 안고 열정적으로 떨쳐나설 때 혁명적 창작기풍과 생활기풍이 높이 발휘되고 창작에서 양양이 일어날수 있다.

작가, 예술인들 속에서 혁명적 창작기풍과 생활기풍을 세우기 위해서는 또한 당이 문학예술부문사업을 지도하면서 이룩하여놓은 업적을 고수하고 빛내이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려야 한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문학예술부문에서 당의 업적을 고수하고 빛내인다는것은 당이 제시한 독창적인 문예사상과 문예리론, 창조체제와 창작방법을 견결히 옹호하며 당의 지도밑에 창작공연된 혁명적 문학예술작품의 높은 사상예술적 수준을 더욱 공고발전시키며 당에 의하여 교양육성된 창작력량을 보존강화한다는것을 말한다.

우리 당이 이룩한 불멸의 업적에는 새 시대 문학예술을 창조하고 발전시켜나가는데서 귀중한 모든것이 다 담겨져있으며 그것은 오늘뿐아니라 장차 공산주의문학예술을 건설하고 발전시켜나가는데서 귀중한 재보로 된다.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바뀌어도 우리의 문학예술은 언제나 변함없이 주체의 한길을 따라 찬란히 개화발전해나가야 한다. 이렇게 하자면 주체의 문학예술을 건설해놓은 우리 당의 불멸의 업적을 만대에 길이 전하며 빛내여가야 한다. 오늘의 작가, 예술인들은 물론 미래의 작가, 예술인들도 영화혁명, 가극혁명의 나날에 우리 당이 쌓아올린 불멸의 업적을 깊이 알아야 그때의 혁명적 창작기풍과 생활기풍으로 살며 일해나갈수 있다.

작가, 예술인들 속에서 혁명적 창작기풍과 생활기풍을 세우기 위해서는 또한 문학예술작품창작에서 사대주의, 교조주의를 없애고 주체를 튼튼히 세우며 독창성과 창작적 주견, 대담성을 적극 발휘하는것이 중요하다.

사대주의와 교조주의는 혁명적 창작기풍과 아무런 인연도 없는 낡은 사상이다. 사대주의와 교조주의에 물젖으면 혁명의 요구와 인민의 지향에 맞는 작품을 창작할수 없고 창작에서 열성과 창발성도 나올수 없다.

그러므로 문학예술창작에서 혁명적 창작기풍을 바로 세우자면 사대주의와 교조주의를 철저히 뿌리 빼고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에서 주체를 확고히 세워 우리 인민의 고유한 생활감정과 정신에 맞는 민족적 형식에 위대한 주체사상을 깊이있게 구현하여야 한다. 그래야 소설과 영화, 연극, 미술, 무용을 비롯한 모든 형태의 문학예술작품들을 우리 인민의 비위와 정서, 지향과 요구에 맞는 우리식의 혁명적인 작품으로 훌륭히 창조해낼수 있다.

이와 함께 혁명적 창작기풍과 생활기풍을 가지자면 창작에서 창작적 주견을 가지고 대담성과 독창성을 발휘하여야 한다.

창작적 주견, 대담성과 독창성은 혁명적 창작기풍, 생활기풍의 주되는 내용이며 창작실천에서 혁명적 창작기풍과 생활기풍은 창작적 주견, 독창성과 대담성에서 그 구체적인 표현을 보게 된다.

그런데 창작적 주견은 개인의 고집이 아니며 대담성과 독창성도 당의 사상을 떠난 그 어떤 개인적인 주장과는 인연이 없다. 참다운 의미에서의 창작적 주견, 대담성과 독창성은 당의 의도와 인민의 지향에 맞고 그것을 더 잘 살리기 위한것으로 되여야 한다. 주체의 혁명적 세계관에 기초하여 창작적 주견을 내세우고 높은 사상예술성을 구현하기 위한 견지에서 종자를 형상으로 꽃피우기 위한 대담성과 독창성은 높이 발휘할 때 그것이 곧 혁명적인 창작기풍으로 되는것이며 거기에서 훌륭한 창작적 결실이 맺어지게 된다.

아무리 재간있는 작가, 예술인이라 할지라도 창작적 주견이 없고 독창성과 대담성을 발휘하지 못할 때 그는 혁명적 창작기풍을 가지고 작품창작에 달라붙을수 없다.

작가, 예술인들 속에서 혁명적 창작기풍과 생활기풍을 세우기 위해서는 또한 현실속에 들어가 생활하고 창작하여야 한다.

현실은 창작의 무궁무진한 원천이며 풍부한 현실 체험은 작가, 예술인들로 하여금 혁명화, 로동계급화 과정을 촉진시키고 작품창작에서 혁명적인 기풍을 높이 발양시키게 한다. 현실속에 깊이 들어가야 작가, 예술인들은 로동계급의 혁명정신과 혁명적인 생활기풍을 따라배워 그것을 작품창작에서 훌륭히 구현할수 있다. 특히 깊은 현실체험은 작가, 예술인들에게 크나큰 창작적 충동과 열정을 안겨줌으로써 현실체험을 착실하게 쌓은 작가, 예술인들은 누구나 다 혁

명적인 창작기풍, 생활기풍을 확고히 세워나갈수 있게 한다.

작가들은 한편의 작품을 구상하고 한편의 작품을 써도 반드시 현실속에 들어가야 하며 현실속에서 창작하여야 한다. 그래야 왕성한 혁명적 열정과 창작적 의욕을 지니고 혁명적으로 일하며 창작해 나갈수 있

으며 작품에 생활의 진실과 시대정신을 훌륭히 구현할수 있다.

우리 작가, 예술인들은 당의 요구대로 혁명적 창작기풍과 생활기풍을 철저히 확립함으로써 혁명적 문학예술작품창작에서 새로운 양양을 일으켜나아가 할것이다.

전명옥

## 《지원》의 높으신 뜻이어

문성락

한없이 승엄한 마음안고  
만경대고향집문앞에 서니  
깊은 생각 불러내는 활달한 필적  
《지원》의 빛나는 글발이어

혁명의 러명을 부르시며  
봉화리와 의주  
은틀과 증강땅...  
가신곳 그 어디에서나  
선생님 새겨놓으신 《지원》의 글발

새겨보면  
지금도 안겨오는 그 영상  
감옥에서 쇠약해진 몸 돌보심없이  
망국의 비분을 안으시고  
원대한 그 뜻으로 온 민족을 깨우치시며  
얼어붙은 대지에 양춘을 불러  
굴함없으신 그 걸음걸음

동트는 새날의 빛발을 안고  
태동하는 눈석이의 첫 기슭에서  
필생의 의지로 새기신 글발  
영원한 세월우에 빛나는 뜻이어

저 글발에  
밝아오는 조선의 아침노을 비껴있고  
험준한 천만산악을 넘고넘어  
조선이 가야 할 머나먼 앞길이  
뻗어있었나니

빼앗긴 조국을  
제힘으로 찾자는 자주위 사상이  
화불로 타오른 《지원》의 글발  
그 뜻으로 애국의 종소리를 울려  
온 겨레를 광복전으로 불렀나니

원대한 그 뜻을  
암야의 등불로 높이 추켜드리고  
사선의 고비고비  
가시덤불길 헤치시며  
한사람 한사람 묶어세운 동지들이  
온 나라에 피줄처럼 민족의 뱃을 이어갔어라

천신만고 달게 여기시며  
찬바람 눈비속에서  
이 땅우에 새봄을 불러오실  
그 한길로 조선을 이끌며  
시련의 먼길을 앞서 헤치신  
김형직선생님

그 뜻  
그리도 원대하고 위대하여  
오늘도 온 세상이 봉화산을 우러르고  
그 뜻  
천년바위처럼 트임없으시여  
눈서리를 이겨낸 만경봉의 저 소나무는  
사시장철 푸르려 설레이나니

아, 그 높으신 뜻  
해와 별 빛나는 이 강산에 꽃피여  
영원한 세월속에 이어지나니  
세기를 넘어 끝없이 빛발치나니

세월이 갈수록  
가는 길 멀고 험할수록  
민족의 뱃과 신념을 잃지 말고  
혁명의 길 끝까지 가라고  
우릴 불러 심장 달구어주는 불멸의 글발  
아, 《지원》의 높은 뜻이어!

## 길은 왜 환희로운가 외 1 편

박웅전

기쁨과 환희만이  
이 가슴을 다 채우면  
나는 무엇을 안고 가라

답사각창가마다  
넘치는 웃음소리  
정원에는 손풍금소리  
아, 내 여기 휴양을 왔던가

나 홀로 조용히  
해저문 밀림속을 걷고만싶다  
차를 타고 지나온 길도  
노래속에 스쳐온 길도  
다시금 다시금 새겨 밝으며

묵직한 기관총 어깨에 메고  
허리치는 눈길도 헤치며 걷고  
풀잎 깔고 쪽잠도 자보고싶고  
그래도 어이 다 알수 있으랴  
끓주림  
피의 격전  
전우를 잃은 비분의 눈물...

길이어, 답사길이어  
천만시련 달게 여기며  
그네들 피로써 헤쳐온 길을

내 어이 가벼이 가라

간다  
보도석을 걸어도 진창길을  
꽃바람속을 가도 눈보라속을  
그러면 가르쳐주나니  
투쟁의 길에 행복이 있고  
혁명의 길에 영광이 있음을

그러면 길은 또 새겨주나니  
행복의 무게를 아는 사람만이  
조국위해 바치는 몸 가벼우리라  
그 무게로 하여  
위훈의 자욱은 더 깊이 새겨지리라

아, 천금과도 바꿀수 없는  
이 진리를 얻은 행복으로 하여  
길은 환희에 넘쳐있고  
정원에는 손풍금소리  
신심 넘친 생의 앞길이 나를 부르는구나

더 높이 노래부르며 가자  
더 크게 웃음 터치며 가자  
가장 빛나는 삶의 진가를 가르쳐주는  
오, 백두산 답사길이어!

## 내리는 비 다 맞아도

우뢰소리 터치며  
소나기 밀려오자  
평곳평곳 피어나는 꽃우산들  
형형색색의 고운 비옷들

죄스럽구나  
어쩐지 여기선  
선뜻 비옷을 펼쳐입기가

언제 한번  
저런 우산 펼쳐봤으랴  
적들을 치며  
비호처럼 달리던 투사들  
하루에도 그 몇번  
입은채로 젖고 말랐으랴  
물낀은 그 군복들

쏟아진다  
소나기 소나기  
마구 두드린다  
수림을  
대오를  
내 어깨를

그러면 그냥 그대로  
맞고싶구나, 저 밀림처럼  
속속들이 맞으며 젖으며  
그날의 대오속에 걷고싶구나

비물이 차갑지 않았던가  
헤쳐간 그길에  
눈보라는 또 얼마나 모질었고  
설령은 얼마나 아득했던가

아, 그길을 가다 얼어 굳어진대도  
한자육도 빗설줄 모른  
그네들의 뜨거운 심장의 피

내 가슴에 끓일수만 있다면  
내리는 비 온몸에 다 맞아도  
백두산에 온 보람 크지 않느냐!

## 투사들의 그 이름은

김윤철

백두산밀영은 사방천리 아득해라  
압록강, 두만강 시작에서 끝까지  
대각봉, 와사봉...  
백두의 봉이들도 한품에 안고있어

항일의 그날 투사들이 새겨놓은  
주옥같은 구호나무 어디가나 있고  
곳곳마다 숙영터, 우등불자리...  
소중한 투쟁의 자욱들은 얼마나 많은가

허지만 그 어느곳에도 단 한자 없구나  
항일투사들의 그 이름만은  
후날의 추억을 바라서라도  
이름 석자 남길 생각조차 없었던가

어느 구호나무 한귀퉁이에도  
어느 천막자리 돌축 한조박에라도  
이름을 새긴 이 한사람만 있었어도  
오늘의 영광속에 높이 불리우련만

아, 위대한 장군님 우리러모시고  
오로지 조국광복 한길우에서  
청춘도, 생명도 다 바쳐 싸운 이들  
제 한몸 개인으로 생각하지 않았구나

조국없인 그 누구도 죽은 목숨임을  
뼈와 살로 절감한 그들이기에  
조선의 위대한 태양을 받드는 영광  
가슴마다 넘치여 충성밖에 몰랐으니

나무들에 수많은 글을 남기면서도  
단 한분 장군님의 존함을 모시였고  
결사전의 불길속을 달려가면서도  
조국의 이름만 목메어 불렀구나

변심모른 혁명의 높은 그 뜻은  
백두산과 더불어 영원히 빛나고  
참된 삶의 숭고한 그 녀은  
인민의 행복속에 영생하나니

아, 아, 항일투사들은 새기였구나  
나무나 돌이 아닌 세기의 창공에  
제 이름 석자도 그것없인 영영 없는  
어머니 조국의 그 이름 조선!

정녕 투사들의 그 이름은  
위대한 내 조국의 이름과 더불어  
온 세상이 부르며 바라보는  
궁지도 높은 우리 인민모두의 이름으로  
영원한 세월속에 새겨졌구나

가사

## 백두산의 안개내리네

김경기

천지의 젖은 안개 이 강산에 내리네  
비단 나래 놀이며 이 강산에 내리네  
장백산 줄기줄기 그 자욱을 못잊어  
쓸어보며 품어보며 꿈결인양 내리네

한줌 흙을 품어보던 후더운 숨결인가  
내 조국에 안겨보던 행복의 이슬인가

츠렁바위 더듬으며 이빨나무 안아보며  
젖은 안개 내리네 이 강산에 내리네

모진 고난 헤쳐오신 수령님 자욱따라  
목메이며 설레이며 파도쳐 내리네  
그날을 안고사는 인민의 마음처럼  
닿도록 쓸어보며 끝없이 내리네

## 문학예술작품에서 정치조직선의 구현문제

차수철

정치조직선문제를 옳게 해결하는것은 사회주의 문학예술창조에서 제기되는 원칙적 문제의 하나이다.

정치조직선에 관한 문제는 정치적 의의가 큰 주제의 작품창작에서 중요하게 제기된다.

사람들이 혁명화, 로동계급화되는 과정을 그리는 문학예술작품들에서나 당의 령도밑에 진행되는 로동계급의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폭넓게 그려내는 작품들에서 흔히 정치조직선을 형상하는 문제가 중요한 과업으로 제기된다.

문학예술작품에서 정치조직선을 설정하고 형상한다는것은 사람들의 혁명적인 생활과 실천투쟁을 그리는데서 당조직을 비롯한 정치조직의 지도와 역할을 형상적으로 옳게 천명한다는것을 말한다. 문학예술작품에서 정치조직선을 옳게 설정하여야 정치조직의 지도와 방조 밑에 혁명투쟁과 새 생활을 창조해 나가고있는 등장인물들의 높은 사상정신적품모와 정치적 립장, 그들이 지닌 혁명적 신념과 계급의식을 옳바로 그려낼수 있다.

우리 시대 인간들의 혁명적 생활을 전형화의 원칙에서 진실하게 그리는데서 중요하게 나서는 문제의 하나는 정치조직선을 옳게 형상하는것이다. 그것은 정치조직선이 우리 시대 사람들의 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정과 관련된다.

우리 시대 사람들의 생활에서 기본을 이루는 정치조직생활이 정치조직과 떼수 없이 밀접히 련결되어있고 정치조직에 의하여 담보되는 조건에서 정치조직선을 옳게 설정하고 형상하여야 문학예술작품에서 우리 시대 인간들의 생활과 우리 시대의 혁명적 현실을 사실주의적으로 진실하게 그려낼수 있다.

정치조직선문제가 문학예술작품의 정치성, 사상성을 높이며 생활반영의 사실주의적 진실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문제로 된다고 하여 모든 문학예술작품에서 정치조직선의 설정이 필수적 요구로 된다는것을 의미하는것은 아니다.

정치조직선을 설정하는가 설정하지 않는가 하는 문제는 문학예술작품의 종자와 소재, 주제의 특성에 관계된다.

작품마다 종자와 주제가 서로 다르고 인간성격들과 생활이 같지 않으므로 모든 경우에 반드시 정치조직선이 있어야 하는것은 아니다.

작품의 주제사상적 과제와 소재의 특성에 따라 정치조직선을 설정하지 않고도 훌륭한 예술적 형상을 창조하여 높은 정치사상성을 보장할수도 있다.

불후의 고전적 명작 《한 자위단원의 운명》이 그러하다.

정치조직선문제는 특히 오늘 우리 나라의 사회주의 현실을 반영하는 문학예술작품에서 필수적 요구로 나선다.

오늘 우리 사회에서 사람들은 일정한 정치조직에 망라되어 정치조직생활을 하고있는것만큼 사회주의 현실을 반영하는 문학예술작품에서는 당조직이나 근로단체조직의 역할 그리고 사람들의 높은 혁명적 조직관념을 보여주는 문제가 중요한 형상적 요구로 제기되지 않을수 없다.

정치조직선을 설정하고 형상할데 대한 문제는 로동계급의 혁명적 문학예술, 사회주의, 공산주의문학예술에서만 고유하게 제기되는 미학적 문제이다.

정치조직선을 옳게 설정하고 형상하여야 문학예술작품에 우리 시대 인간들의 생활과 그들의 정치사상적 품모를 현실에 있는 그대로 진실하게 그려낼수 있으며 따라서 문학예술작품의 형상성, 예술성도 높일수 있다.

문학예술작품에서 정치조직선을 설정하고 형상하는 문제는 등장인물들의 성격을 묘사하는 문제와 밀접히 련관되어있다.

인간성격의 창조를 떠나서는 문학예술작품에서 정치조직선을 설정할수도 없으며 그것을 형상적으로 구현해나갈수 없다.

작품에서 정치조직선을 옳게 설정하고 형상화하려면 주인공을 비롯한 등장인물들의 성격을 진실하게 그려야 하며 등장인물들의 성격을 사실주의적으로 전형화하려면 정치조직선을 바로 설정하고 형상화하여야 한다.

정치조직선을 구현하는데서 중요하게 나서는 문제의 하나는 주인공들의 혁명적 조직성을 뚜렷이 그리는것이다. 그것은 혁명적 조직성의 묘사가 정치조직선을 보여주기 위한 뚜렷한 방도의 하나로 되기때문이다.

정치조직선이란 문학예술작품에서 당조직을 비롯한 정치조직의 역할을 보여주는 사건선, 생활선이다.

정치조직선을 옳게 형상할데 대한 문제는 우리 시대 인간들의 전형적 성격인 혁명적 조직성을 깊이 있게 그려내게 함으로써 성격묘사의 사실주의적 진실성을 믿음직하게 담보해준다. 다시말하여 문학예술작품에서 정치조직선을 옳게 설정하고 형상하는것은 주인공을 비롯한 등장인물들의 혁명적 조직성을 진실하게 그려내기 위한 필수적 요구로 제기된다.

주체형의 혁명가들이 지니고있는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과 그에 기초하고있는 높은 사상성, 혁명적

원칙성과 불굴의 투지 등 고상한 정치사상적 품모도 혁명적 조직성에 기초하고있다.

주체형의 혁명가들이란 혁명조직의 영향밑에 혁명가로, 투사로 자라났으며 혁명조직의 지도밑에 활동하며 투쟁하는 직업적인 혁명가들이다. 혁명조직의 품을 떠나서 사람들이 공산주의혁명가로 자라날 수 없으며 혁명가로서의 정치적 생명을 빛내어나갈 수도 없다. 따라서 문학예술작품에서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들의 고상한 정치사상적 품모를 생활적으로 진실하게 형상하기 위해서도 혁명적 조직성을 뚜렷이 보여주어야 한다.

이러한 사정으로 말미암아 문학예술작품에서 주인공의 혁명적 조직성을 묘사하는것은 그들이 속하여있는 정치조직의 역할을 보여주기 위한 중요한 미학적 방도로 된다.

문학예술작품에서 주인공의 혁명적 조직성을 형상하며 정치조직선을 구현하는데서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나서는 문제는 혁명적 수령관을 깊이있게 그려는것이다.

주체형의 혁명가들의 혁명적 수령관을 깊이있게 그려는것은 그들의 혁명적 조직성을 뚜렷이 형상화하기 위한 필수적 요구로, 중요한 담보로 되지 않을 수 없다. 혁명적 수령관을 보여주지 않고서는 주체형의 혁명가들의 높은 혁명적 조직성을 그려낼수 없으며 그들의 숭고한 사상정신적 품모를 제대로 형상화할수 없다.

예술영화 《초행길》의 주인공 김철준의 형상은 혁명적 수령관을 잘 그려는것이 주체형의 공산주의자들의 혁명적 조직성을 깊이있게 보여주며 정치조직선을 구현하는데서 얼마나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가 하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주체형의 공산주의자들의 높은 혁명적 조직성을 그려내며 정치조직선을 형상하는데서 또한 중요하게 나서는 문제는 실천활동에서 드러나는 주인공들의 혁명적 조직관념을 뚜렷이 그려내는것이다.

주인공들의 혁명적 조직관념을 형상하는 문제는 작품에서 정치일군이 사람들에게 위임분공을 주는 장면만을 설정하거나 토론, 회의 장면같은것을 삽입하는 방법으로 실현되는것이 아니다. 사람들의 조직관념은 사업과 생활의 여러 분야, 다양한 계기들에서 구체적으로 발현되며 혁명가들의 실천투쟁과 사업행정의 전과정이 바로 조직생활과 밀접히 련결되어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하여 작품에서는 주인공들의 생활과 투쟁에 대한 구체적인 화폭을 통하여 조직관념을 그려내지 않으면 안된다. 이렇게 하지 않고 작품에서 주인공들이 회의에서 토론을 하거나 조직에 자기의 사업정형에 대하여 보고하는것과 같은 공식적인 장면들을 설정하여서는 도식성과 류사성을 면하지 못하게 될것이다.

문학예술작품에서 정치조직선을 설정하고 형상하는데서 중요하게 나서는 문제의 하나는 정치조직의 지도와 방조 밑에 사람들이 혁명적 세계관을 세워나가는 과정을 잘 그려는것이다.

정치조직선은 주인공을 비롯한 구체적인 인물들의 성격을 통하여 형상적으로 구현된다. 그런데 인물들의 성격을 그리는데서 중요하게 나서는 문제는 혁명적 세계관을 그리는것이다. 따라서 구체적인 작품창작에서 정치조직선을 구현하는 문제는 인물들의 혁명적 세계관형성과정에 대한 문제와 밀접히 련관되어있다.

사람들이 혁명적 세계관을 세워나가는 과정은 혁명조직과 밀접히 련결되어있다. 그러므로 혁명적 세계관의 형성과정을 잘 그려내자면 혁명조직의 역할을 옳게 형상화하지 않고서는 사람들의 혁명적 세계관형성과정을 진실하게 그려낼수 없다는것을 의미한다.

문학예술작품에서 혁명적 세계관형성과정에 대한 깊이있는 묘사는 혁명조직의 역할에 대한 옳은 반영을 전제로 하고있다.

또한 작품에서 혁명조직의 역할은 주인공들의 성장과정, 혁명적 세계관형성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에 의하여 형상적으로 천명된다. 그것은 혁명적 세계관형성발전의 특성과 합법칙성에 의하여 설명된다.

혁명적 세계관이 서야 사람들은 현실에 대한 옳바른 인식을 가질수 있으며 모든것을 로동계급의 관점에서 분석평가하고 로동계급의 리익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할수 있다.

사람들의 혁명적 세계관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사람들의 혁명적 세계관은 의식발전의 일정한 단계를 거쳐 형성되고 공고발전된다. 사람들이 혁명적 세계관형성의 모든 단계를 거치고 혁명가로서의 사상정신적 품모를 갖추어나가는 과정은 혁명조직과 밀접히 련관되어있다.

문학예술작품에서 혁명적 세계관형성과정을 구체적으로 형상하려면 주인공의 혁명의식이 쉼트고 튼튼히 형성되며 그것이 점차 높은 단계로 심화발전되어가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그려내야 한다.

작품에서 이러한 형상적 요구를 완전히 실현하려면 정치조직선을 옳게 설정하고 형상하는것이 필요하다.

사람들의 혁명적 세계관은 혁명조직의 지도와 영향밑에 형성되며 공고화된다. 따라서 작품에서 혁명적 세계관형성과정을 구체적으로 진실하게 형상하는것은 정치조직선을 구현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로 된다.

볼후의 고전적 명작 《피바다》에서는 주인공 어머니의 형상을 통하여 평범한 보통사람들이 혁명조직의 지도와 영향밑에 혁명적 세계관을 세우고 공산주의혁명가의 품모를 갖추어나가는 과정을 진실하고 생동하게 보여주고있다.

사람들을 혁명적 세계관이 튼튼히 선 혁명가로 교양하는 혁명조직의 역할을 형상적으로 천명하는 문제는 혁명투쟁을 주제로 한 작품에서뿐아니라 사회주의현실을 주제로 한 작품에서도 필수적 요구로 나서고있다.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실천투쟁이야말로 사람들의 사상을 단련하며 혁명화를 다그쳐나가는 훌륭한

학교이다. 그러므로 사회주의현실을 반영한 작품창작에서 사람들이 혁명적 세계관을 세우며 혁명화, 로동계급화하여나가고도록 지도하는 정치조직의 역할을 뚜렷이 천명하는것이 중요한 형상적 과업으로 제기된다.

사람들을 혁명적 세계관으로 무장시키며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 정치조직의 지도와 역할을 형상적으로 천명하는 문제는 여러가지 방법에 의하여 실현된다.

사람들은 당조직을 비롯한 정치조직에 속하여있으며 조직의 직접적인 지도와 구체적인 방조밑에 혁명적 세계관을 세워나갈수도 있고 정치조직을 대표하는 사람들과 접촉하는 과정을 통하여서도 혁명적 세계관을 세워나갈수도 있으며 정치조직이나 정치조직을 대변하는 사람들과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지 않고 간접적으로 정치조직의 혁명적 영향을 받아 혁명적 세계관을 세워나갈수도 있다.

그러므로 문학예술작품에서 등장인물들의 혁명적 세계관형성과정에 미치는 정치조직의 역할과 혁명적 작용을 그 어떤 한가지 처방에 의하여 형상적으로 구현하여서는 안된다.

문제는 주인공이 처한 생활환경과 조건에 맞게 그리고 작품의 주제와 소재, 양상적 특성에 따라 생활의 논리, 성격의 논리에 맞게 주인공의 세계관형성과정에 미치는 정치조직의 역할을 자연스럽게 보여주는것이 중요하다.

문학예술작품에서 사람들의 혁명적 세계관형성과정에 작용하는 혁명조직의 역할을 뚜렷이 형상한다는것은 작품의 모든 고리, 모든 계기들에서 정치조직을 보여준대거나 형상적 화폭의 전과정에 정치조직의 활동을 일관하게 그려야 한다는것을 의미하는것은 결코 아니다. 작품에 비록 정치조직이 직접 나타나지 않아도 그리고 정치조직을 대변하는 인물들이 구체적으로 그려져있지 않아도 등장인물들의 행동과 사고, 그들의 내면세계를 통하여 정치조직의 지도와 역할이 독자들에게 명확히 안겨지게 하면 되는 것이다.

작품에서 주인공의 혁명적 세계관형성과정, 혁명화과정에 미치는 정치조직의 역할은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형상화되어야 한다. 여기에 그 어떤 틀이나 도식이 있을수는 없다.

도식이나 류형은 일반적으로 창작에서 금물이지만 정치조직선을 구현하는데서는 특히 허용될수 없다.

창작가들은 문학예술작품창작에서 정치조직선의 람용이나 도식적인 설정이 심중한 정치적 손상을 끼치게 된다는것을 깊이 명심하고 이 문제를 독창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온갖 정열과 지혜를 쏟아부어야 한다.

문학예술작품에서 정치조직선을 형상적으로 옹계 구현하는데서 중요하게 나서는 미학적 문제는 인간관계를 잘 맺어주고 풀어나가는것이다.

작품에서 정치조직선은 인간관계를 통하여 형상적으로 구현되며 인간관계는 정치조직선을 보여주는 중요한 형상요소로 된다. 작품에서 정치조직선은 인물들의 성격형상을 통하여 구현되며 따라서 인간관계를 통하여 인물들의 성격을 높은 예술적경지에서 전형화하지 않고서는 정치조직선을 형상적으로 옹계 구현할수 없다.

문학예술작품에서 인간관계를 옹계 설정하고 풀어나가는것이 정치조직선을 구현하기 위한 중요한 미학적 방도로 되는것은 정치조직선자체가 인간관계를 필수적 요구로 하기때문이다.

작품에서 정치조직의 역할을 보여주려면 정치조직과 사람과의 호상관계, 정치조직을 대변하는 인물들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옹계 설정하고 해결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인간관계를 통하여서만 사람들을 교양개조하여 혁명과 건설에로 불러일으키는 정치조직의역할을 구체적으로 보여줄수 있다.

인간관계를 잘 맺어주는것이 정치조직선을 구현하기 위한 미학적 방도로 되는것은 또한 인간관계를 통하여서만 정치일군의 정치사상적 풍모와 내면세계가 구체적으로 생동하게 드러나기때문이다.

정치조직의 령도적 역할은 정치조직을 대변하는 일군들의 자질과 활동에서 집중적으로 발현된다. 그런데 정치조직을 대변하는 사람들의 성격과 자질은 인간관계속에서만 구체적으로 표현된다.

문학예술작품에서 인간관계의 특징에 의하여 등장인물들의 성격적 특질이 규정되며 인간관계의 심화는 성격형상의 풍부성과 심오성을 담보해준다.

문학예술작품에서 인간관계를 통하여 정치조직선을 형상적으로 구현하는데서 중요하게 나서는 미학적 문제의 하나는 정치조직을 대표하는 인물들의 성격선을 두드러지게 살리는것이다.

정치조직을 대표하는 인물의 성격을 두드러지게 그려내는것은 작품에서 정치조직선을 구현하는데서 견지하여야 할 중요한 원칙의 하나이다.

정치조직을 대변하는 인물선을 뚜렷이 살려야 한다는것은 정치조직을 대변하는 인물들을 모든 작품에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등장시켜야 한다는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말하자면 정치일군의 성격선을 두드러지게 살린다는것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그려낸다는것을 의미하는것이 아니라 그의 성격을 생동하게 그려 작품의 주제를 정치적으로 의의깊게 밝혀내도록 한다는것을 말한다.

작품에서 정치조직을 대표하는 인물선을 뚜렷이 살리기 위하여서는 그 인물이 다른 인물들의 생활과 투쟁에서 주동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것으로 형상하는것이 중요하다. 정치조직을 대표하는 인물

은 작품에서 주인공으로 설정되었거나 설정되지 않았거나 할것없이 등장인물들의 성격발전과 운명의 전환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인물로 그려져야 한다.

문학예술작품에서 인간관계를 통하여 정치조직선을 구현하는데서 다음으로 중요하게 나서는 미학적 문제는 정치적 관계를 기본으로 하여 인간관계를 맺어주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는것이다.

사람들이 호상 맺고있는 인간관계가운데서 가장 본질적이며 규정적인 의의를 가지는것은 정치적관계이다.

우리 시대 인간들의 사회적 관계에서 본질적 의의를 가지는것은 어디까지나 사람들 호상간의 조직적인 관계, 사업상의 관계이다. 정치조직적인 관계, 사업상의 관계를 기본으로 하여 인간관계를 맺어주어야 등장인물들의 정치사상적 풍모를 진실하게 그려낼수 있으며 우리 시대의 혁명적 현실을 사실주의적으로 전형화할수 있다.

장편소설 《뜨거운 심장》에서는 제철련합기업소 당책임비서 신철민의 성격을 정치조직적 관계를

위주로 하면서 동지적 관계, 가정윤리적 관계 등 다양한 인간관계를 통하여 깊이있게 그려내었다.

장편소설에서는 주체형의 당일군으로서의 주인공 신철민의 자질과 풍모와 함께 그가 소유하고있는 고상한 정신도덕적 풍모와 내면세계를 감동적으로 보여주었으며 인민대중을 따듯이 보살피주고 그들을 보람찬 새 생활 창조에로 이끌어주는 우리 당의령도를 깊이있게 구현하였다.

이와 같이 인간관계를 생활의 론리에 맞게 다양하고 풍부하게 그려내는것은 문학예술작품에서 정치조직선을 형상적으로 깊이있게 구현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이다.

정치조직선을 옳게 설정하고 형상하는것은 문학예술의 혁명적 사명과 본성적 요구에 전적으로 부합된다.

그러므로 우리 창작가들은 정치조직선을 옳게 설정하고 예술적으로 깊이있게 형상하기 위하여 우리 시대 인간들의 생활과 그들의 정치사상적 풍모를 진실하게 그려내야 하며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승리로 조직령도하는 우리 당의 거대한 역할을 깊이있게 천명하여야 한다.

## 푸른 산발을 바라보며

천일수

아름드리 나무들이 울울창창한  
천고의 원시림속에 들어선듯  
나무모가 자라는 산중에서  
내 푸른 산발을 바라보노라

새소리 물소리  
유정한 숲속에  
한가로이 풀뜯으며  
사슴떼 오락가락

앞산을 바라보아도  
뒤산을 쳐다보아도  
가로세로 줄을 친듯  
이깔나무, 분비나무...  
새 채별을 기다리고...

내 벌목공을 만나기 앞서  
저 푸른 숲의 설레임소리  
나에게 다 이야기해주는구나  
나무를 베어서만 벌목공이 아니라  
심고 가꿀줄 알아야 진짜임을

아, 여기서 림지까지는  
먼 80리  
한대를 베면 열그루 심으며  
순환식 채벌로 새 림지로 떠나간  
그 자욱에 마련된 새 림지여

그래서 조국의 산은  
늙음을 모르누나  
세월이 흘러갈수록 더더욱  
푸르러 젊음을 자랑하는것이구나

멀지 않아 림지도 끝난다는  
작업소 소장의 이야기에  
내 아니할 걱정을 하였구나  
그때가 오면 이곳에서  
다시 채벌이 시작되려니

아, 조국의 무궁무진한 자원은  
있는것만으로 계산한것 아니구나!  
쓴것에 곱절 마련하는것으로  
조국의 자원은 무궁무진한것이구나!



## 백설의 비밀

신록이 짙어가는 계절이다. 붓대처럼 일매지게 자란 수삼나무 가로수길로 물색 승용차 한대가 경쾌하게 미끄러져가고있었다. 이따금 해빛에 차창이 번쩍번쩍 빛을 뿌렸다. 차안에는 운전사외에 두사람이 타고있었다. 한사람은 우리 나라 식물학자인 현수림이고 다른 사람은 나이 지숙한 은발의 외국인 식물학박사 존 하우이다. 그들은 지금 백설자연수가 있는 오봉산으로 가는길이다. 장대한 몸을 의자등받이에 기대인 존 하우는 은테안경속에 깊숙이 들어간 우묵한 회색눈을 쪼프리고 차창밖을 바라보고있었다. 깊숙한 눈확우에 톱 불거진 이마전, 매부리코, 불긋한 얼굴을 덮은 아마빛 구레나룻, 어딘가 고집스러우면서도 열정적이고 도고한 인상을 자아냈다.

그는 붉은 입술을 꼭 다물고 뿡뿡하리만큼 무뚝뚝한 낮빛으로 차창밖으로 천천히 흘러가는 수려한 산발과 그밑에 그림처럼 오붓이 자리잡은 문화주택들, 푸르러 설레이는 포전들에서 눈길을 떼지 못했다. 과연 이 나라가 현대문명을 자랑하는 나라의 식물학거장인 존 하우의 존재를 위협할수 있단말인가?... 그는 갑자기 심장의 아픔을 느끼자 얼굴을 찌프리며 지그시 손으로 가슴을 눌렀다. 원래 아마빛 수염이 풍성하게 드리운 그의 가슴은 담뱃처럼 든든했다. 그런데 얼마전에 뉴질랜드에서 열린 국제식물학술토론회때에 받은 충격이 있은후부터 결핏하면 심장이 울렁거리기 시작했다. 그때 《중부조선의 특수식물상에 대하여》라는 제목을 가지고 연단에 오른 조선대표의 토론을 듣고 존 하우는 인생에서 처음으로 폭탄같은 타격을 받았다. 그것은 지금까지 히말라야산줄기근방이 원종지라고 하던 아열대식물인 백설나무가 조선에 수림으로 조성되었다는 사실이었다. 이 나무로 말하면 세계 중요정원수의 하나로서 관상용으로서만이 아니라 목재의 질이 특이하게 좋고 빨리 자라는것으로 하여 경제적 가치가 매우 컸다. 그래서 이 나무의 보유국은 한알의 씨앗이라도 해외에 빼돌리는 경우 누구를 막론하고 교수형에 처한다는 엄격한 법률을 붙이고있다. 그러나 백설은 빙하기 이전의 자기 옛 세상을 꿈꾸고있는지 도대체 후대를 번성시킬 생각을 안하며 자기의 신비로운 비밀을 고스란히 지키고있었다.

세계의 이름있는 식물학자들은 이상하게도 구래의연히 침묵을 지키면서 점차 세상에서 사라져가는 나무를 구원해보려고 무진 애를 썼다. 그들은 마치 퇴화되어가는 이 나무를 번성시켜 인류에게 복무시키는것이 현대문명의 상징처럼 생각하였다. 그러나 모두 헛기를 들었다.

존 하우도 자기 명예를 걸고 백설나무 연구에 수십년을 바쳤다. 그는 원종지인 히말라야산줄기의 토양과 물을 비행기로 실어다가 그 기온과 똑같은 실험실에서 나무를 키워보기도 하고 세계각국을 돌아다니며 백설을 연구하여보았다는 학자들의 고견을 듣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 역시 끝내 성공하지 못하였다. 드디어 존 하우는 지구상에서 자기 나라와 같은 기후후토조건에서는 절대로 이 나무를 키울수 없다는 결론을 찾아냈다. 존 하우는 실망했으나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레기라도 잡는격으로 자기가 집필한 《세계식물학개요》에서 백설나무는 풍토순화시킬수 없다는것을 세상에 내놓음으로써 학자로서의 자기 명예와 인생의 마지막을 장식하려고 했다. 그런데 환상적인 존재인 그 백설나무가 고대에서부터 지금까지 조선에서 자라고있는 유류종이며 현재 이미 산림을 조성하고있다니 웬말인가? 존 하우는 머리를 설레설레 내저었다.

조선대표는 회의참가자들의 론박에 신생대 4기의 백설화석을 제시하였다. 더욱 놀라운것은 지금도 300년 묵은 자연수와 함께 백설이 수림을 이루고있다는것이였다. 북극의 식물이 적도의 태양밑에서 자랄수 없고 열대의 야자수가 한대의 얼음장우에서 살수 없는것은 어길수 없는 자연의 법칙이다. 과연 조선이 불가항력적인 이 법칙에서 예외로 될수 있단말인가?...

존 하우는 자기 일생을 총화하는 저서집필을 중지하고 부랴부랴 조선으로 떠나올 준비를 서둘렀다. 자기의 눈으로 백설나무 존재여부를 확인하고싶었다. 떠나오기전날 백설나무에 대한 문헌들과 실험자료들을 다시금 확인하던 존 하우는 서재의 깊숙한곳에서 퇴색한 옛 일본잡지 한권을 찾아냈다. 그것만으로도 자기의 신념을 세울수 있고 논리를 충분히 주장할수 있는 자료였다. 왜냐하면 그 잡지에는 조선에 백설이 없다는 충분한 논거와 함께 연구자료들이 썩여있었던것이다. 존 하우는 한때 백설나무때문에 일본에 간적이 있었다. 그때 일본식물학자 구마가이는 조선으로 가려는 존 하우를 만류하면서 자기가 이미 조선땅을 살살이 뒤졌으나 찾지 못했으며 설사 그 나무가 조선에 있었다면 이번 이 전쟁으로 인하여 재가루가 되었을것이라고 단언했던것이다.

떠나던 날 비행장에 나온 존 하우는 배웅나온 안해의 팔을 끼고 천천히 거닐었다.

《존, 전 왜 그런지 마음이 불안해요.》

안해는 걱정스러워 말했다.

《허허… 녀자들이란… 안심하오. 난 자신이 일생 동안 쌓은 과학적 신념을 의심한적이 없소. 모름지기 조선에 있다는 백설은 그 비슷한 나무일거요.》

존 하우는 껄껄 웃으며 확신에 넘쳐 말했다.

이때 그들앞으로 사진기를 어깨에 멘 한무리의 사람들이 모여왔다.

《실례합니다. 우린 기자들입니다. 박사선생께서 조선으로 용약 출전한다는 뉴스를 듣고 이렇게…》

눈빛이 파란 신사풍의 사나이가 동료들을 돌아보며 찾아온 사유를 말했다.

《그렇소. 나는 백설나무의 비밀을 확인하기 위해 동양의 나라 조선으로 가오.》

《결전장으로 떠나는 박사선생의 마음은 어떠신지? …》

《백설의 비밀은 세상에 드러나게 될것ियो. 조선에 만약 이 나무가 존재한다면 나는 격검술에 진 기사가 검을 꺾어버리듯이 박사모자를 저 텀스강에 처박겠소.》

그 순간 열광적인 박수가 터지고 자기의 박사모자를 쳐든듯 중절모자를 높이 든 그의 도고한 모습을 사진에 담으려고 셔터를 누르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불시에 들렸다.

《박사선생, 당신은 조선이 결코 옛날의 코레아가 아니라는걸 잊지 않았겠지요?》

한 기자가 심중한 표정을 지으며 물었다.

《자연의 법칙은 과거나 현재나 변함이 없소. 나는 조선에 갔다온후 당신들과 이 력사적인 자리에서 다시 만날것을 명예를 걸고 약속하오. 그때 당신들은 모두 의혹에서 해방될거요.》

존 하우는 이렇게 호언장담하며 수십년간 백설나무를 연구한 자료들을 싸가지고 대양과 대륙을 넘어 조선으로 왔던것이다. 그는 호텔에 려장을 풀자마자 방문하러 온 현수림에게 낡은 잡지를 내보이며 떠보듯 물었다.

《당신은 이 잡지를 읽은 생각이 남니까?》

《왜정 소화 15 년 x 월호 식물학잡지가 아닙니까?》

현수림은 첫눈에 훑어보고나서 태연히 뇌이였다.

《웁습니다. 선생은 이 잡지에서 백설에 대해 쓴 구마가이씨를 기억하시겠지요?》

존 하우는 득의만면하여 류창한 어조로 련속 들이댔다. 현수림의 낮빛은 금시 이그러졌다. 무엇때문인지 얼굴의 근육은 경련이 일었고 두눈에는 불이 철철 흘렀다.

《? …》

존 하우는 사납게 돌변하는 현수림의 얼굴을 어안이 빙빙해서 쳐다보았다. 잡지를 거머쥐고 창가로 천천히 다가선 현수림은 낮으나 분격이 어린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기억하고말고요. 나는 그자를 영원히 잊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사선생,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당신은 이번에 우리 나라에서 그자의 말이 궤변이란것을 알게 될것입니다.》

…

존 하우는 이런 추억에 잠겨 여전히 차창밖에 눈길을 보내다가 문득 아이들의 노래소리에 깊은 상념에서 깨어났다. 그 명랑한 노래소리는 숲속에서 울려 오고있었다.

《박사선생, 잠깐 쉬여가지 않겠습니까?》

옆에 앉은 현수림이가 은근히 의향을 물었다.

존 하우는 입을 꼭 다문채 머리만 틀지게 끄덕였다. 그들은 차에서 내렸다. 길옆 야산에는 삼엽송이 짙었다. 향긋한 솔향기가 폐부를 쿡 찔렀다. 존 하우는 현수림을 따라 숲속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사람의 정성이 깃든 생신하고 규모가 진 숲이였다. 이름모를 새소리, 나무설레임소리, 아이들의 웃음소리… 풍성한 숲은 살아 움직이는듯 했다. 가까운 앞에서 한무리의 무늬고운 사슴떼가 유유히 뛰어갔다. 존 하우는 금시 자기가 동화의 세계에 들어선것만 같았다. 그의 눈앞에는 열풍에 불붙는 아프리카의 무시무시한 장글과 사막화되여가는 황폐화된 숲이 얼핏 떠올랐다. 어디선가 벌레를 쫓는 딱따구리소리가 귀맛 좋게 들려오는바람에 존 하우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또다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까운곳에서 들려왔다. 숲속에 놀러온 아이들인가. 아니면 열매를 따러온 아이들인가?… 이윽고 넓은 공지가 눈앞에 나타났다. 그곳에서 늙수그레한 사람과 여러 아이들이 무슨 일을 하고있었다. 존 하우는 허연 눈섭을 구뒀하고 물었다.

《저건 나무모밭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백설나무모포전입니다.》

현수림은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다.

《뭘라고요?》

존 하우는 깜짝 놀라 되물으며 그자리에 우뚝 서버렸다. 믿어지지 않았다. 시험설비가 정밀한 온실과 실험실에서 키우는 나무모를 야외에서 키우다니?! … 늙수그레한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지 아이들이 까르르 웃어댄다. 아이들은 웃으면서 부지런히 나무모를 따서 저쪽 산비탈쪽으로 날라간다.

존 하우는 급히 나무모밭으로 다가갔다. 그는 발머리에 주저앉아 나무모 한그루를 손에 들고 걸탐스러운 눈길로 살폈다. 분명 영양상태가 좋은 백설나무모였다. 그는 그만 너무도 놀라와 그자리에 펄쩍 주저앉아버렸다. 이게 내가 30 년을 찾던 백설나무모란 말인가? 내가 꿈속에서 그려보던 그 나무가 정녕 웅단말인가? 존 하우는 너무도 갑작스럽게 부딪친 현실을 믿을수가 없었다.

《안녕하십니까?》

《조선에 찾아오신 박사선생님을 환영합니다.》

아이들의 쩡쩡한 목소리에 존 하우는 고개를 들었다. 붉은넥타이를 맨 학생들이 한손을 머리에 쳐들고 인사를 하고있었다. 현수림이 아이들에게 귀땀한 모양인지 그들의 곁에 서서 미소를 머금고있었다.

《고맙소.》

존 하우는 왜 그런지 가슴이 후터워 올랐다.

《식물학 박사선생이라지요? 내 이곳 산림보호원입니다.》

이마전에 흙집이 깊숙이 새겨진 늙수그레한 사람도 존 하우의 손을 반갑게 잡고 흔들었다. 존 하우는 산림보호원이라는 사람의 얼굴에 생긴 흙집을 유심히 쳐다보았다.

《미국놈들이 남긴 흔적이지요.》

산림보호원은 빙그레 웃으며 손으로 얼굴의 흙집을 슬슬 문질렀다.

《아 그렇습니까?》

존 하우는 가볍게 머리를 끄덕이고 나서 다시 나무모발을 휘둘러보았다. 모든것이 희한했다. 이런 귀한 나무를 식물학자도 아닌 아이들과 보통사람들이 다루다니?... 그는 한동안 백설나무모를 들여다보더니 감동에 찬 목소리로 나직이 입을 열었다.

《미스터 현, 당신 정말 대단하오. 어떻게 이런 큰 일을 했습니까?》

《내 혼자서라면 어렵두 없지요. 나 역시 이 나무모를 온실에서 키우는것으로 그쳤을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수령님께서 이 나무가 나라의 귀한 재부라고 하시면서 온 나라가 달라붙어 도와주라고 말씀하여 주셨지요. 그래서 우리 나라 도처에 나무모밭이 생겨나게 되었고 학생들까지 이렇게 소년단립에 식수를 하고있습니다.》

현수림의 목소리는 감회와 자부심에 잠겨있었다. 현수림의 말을 듣던 존 하우는 풍만한 수염이 드리운 턱을 쳐들고 연신 고개만 끄덕거렸다.

밭고랑같은 주름살이 깊숙이 흘러간 그의 도고한 이마에는 무엇인가 짙은 의혹과 상심감이 깃들어있는듯했다. 그는 천천히 발변두리로 걸음발을 옮겼다. 내가 수십년을 찾던 나무! 일생을 두고 연구하던 나무를 조선에서 보게 되다니! ... 땅이 좋아서인가 물이 좋아서인가, 아니면 날씨가 좋아서인가, 그는 흰머리를 설레설레 저었다. 기후풍토도 위도선도 자기 나라와 비슷한 조선이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인가... 그는 땅에 무릎을 꿇고 흙을 두손으로 들어 비벼보았다. 자기 나라 땅에도 있는 찰흙땅이다, 그는 큰 숨을 내쉬며 하늘을 우러러보았다. 자기 사는 하늘과 별로 다른것이 없는 하늘이다.

《보호원아저씨, 나무모뿌리 습도가 70 프로인데 괜찮을까요?》

처녀애의 은방울 굴리는듯한 목소리가 울려온다.

《그쯤되면 문제없다. 뿌리가 마르기전에 비닐막막으로 감싸는게 좋지.》

《아저씨, 아까 그 이야기 마저 해주세요.》

《무슨 이야기? ...》

《어떤 나라는 글썽 백설나무를 나라국기에 그려 놓았지요?》

《애, 그 나라 왕님은 하루일을 보기전에 이 나무앞에 와서 절을 한 다음에 일을 본댔어.》

아이들은 재미있다는듯 가르르 웃이댔다.

존 하우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넋없는 사람처럼 그냥 나무모주위를 거닐었다.

얼마후에 승용차는 발동을 걸었다. 존 하우는 다시금 심장이 아파나기 시작했다. 패배의 예감이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다. 그는 허탈상태에 빠진 사람처럼 초점없는 눈으로 앞을 보며 생각을 더듬었다. 무엇이 이 땅에 백설을 뿌리내리게 했을가. 빙설과 함께 사라진 백설! 나에게도 그다지도 박정하게 신비로운 비밀을 지키더니 이 땅에서는 그리도 쉽게 자비를 베풀었던말인가? 모를 일이다. 자연의 혜택으로써는 결코 뿌리내리게 할수 없는 나무가 아닌가 아, 그렇다면 이 기적을 창조한 생명력은 무엇일까?...

존 하우는 문득 일본에 찾아갔을 때 구마가이가 하던 말이 떠올랐다.

《조선땅에서는 백설나무와 같은 진귀한 나무가 자랄수 없지요. 혹시 있었다 해도 돌도 녹아버리는 전쟁의 불길속에서 한줌의 재로 남았을것입니다. 자, 내 말을 믿으시오. 찾아가도 헛걸음을 할것입니다.》

그렇다면 구마가이의 말이 거짓이었단말인가? ...

차창옆으로는 눈이 시도록 기름기가 번들거리는 바늘잎새를 하느적거리며 밋밋한 기둥들을 짹짹 뽑은 백설림이 펼쳐졌다.

존 하우는 머리를 아예 차창밖으로 내밀고 황홀한 눈길로 수림을 바라보았다. 마치 자기가 꿈속에 잠긴듯했다. 꿈이 아니고서야 이것이 어떻게 현실이라고 말할수 있으랴.

《저 산기슭의것은 해방후 첫 시험에서 성공한 나무모들로 이루어진 수림이고 이 산등성의 수림은 30년생들입니다.》

현수림이가 조용히 알려주었다. 아, 그러니까 전쟁의 재더미우에 심었다는 나무로구나. 그런데 저렇게 자라다니! ... 존 하우는 문득 얼굴에 흙집이 있는 산림보호원이 생각났다.

《아까 그 산림보호원이란 사람이 이 나무들을 키웠겠지요?》

《그렇지요. 그는 이 오봉산전투에서 살아남은 로병입니다. 백설나무를 위해 여기에 생활의 터전을 잡았지요.》

존 하우는 그 어떤 승엄한 생각에 잠겨 묵묵히 차창밖에 시선을 던졌다. 승용차는 점점 울창한 수림속으로 들어갔다. 밀림은 태고의 정적을 안고 고요히 굽실거리고있었다. 오랜 식물학자의 눈은 그 나무들이 방금 산기슭에서 본 전쟁후에 심은 나무가 아니라

는것을 알아보았다. 적어도 100 년을 헤아리는 거목들이었다. 그렇다면 이 숲에는 전쟁의 포화가 닿지 않았단말인가? …

승용차는 더 갈수 없게 되자 멈추어섰다. 뻣뻣한 밀림속에 사람들이나 다닐수 있는 길이 산골짜기쪽으로 우뚝구불 뻗어갔다.

《목적지에 왔습니다.》

현수림은 차에서 내리며 조용히 말했다.

《그런데 이 숲은 100 년이 넘어보이는데요. 여기서의 싸움이 없었는가보지요? 정말 기적과도 같은 요행이! …》

존 하우도 함께 차에서 내리며 의혹이 어린 어조로 물었다.

《아니요. 세상에 어디 그런 요행이 있었겠습니까? 여기에도 전투는 어느곳보다 준엄했고 치열했지요.》

《 ? … 》

현수림은 잠시 동안을 두었다가 천천히 발길을 옮기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존 하우도 현수림의 뒤를 따라 걸음을 옮겼다.

…가렬치절한 전쟁은 몇해째 계속되고있었다. 밤이었다. 눈을 찔려도 모를 캄캄한 밤, 눈부신 탐조등이 철새없이 어둠을 썰고있었다. 하늘에선 야간폭격기의 둔중한 동음이 간단없이 들리었다.

식물학자 현수림은 사단지휘부에서 붙여주는 대원 한명과 함께 오봉산이 바라보이는 한 인민군중대 음폐호에 도착하였다. 자정이 가까운무렵이었다.

그는 평양에서부터 여기 서해반도기슭까지 채진격하는 인민군대의 뒤를 부지런히 따라온 내각자원 조사단의 한 성원이다. 군단장도 사단장도 그의 걸음을 막지 못했다. 그에게는 여기 오봉산 골안에서 희귀한 나무씨를 받아야 할 중대한 임무가 있었던것이다. 음폐호안은 첫눈에도 격전을 앞둔 긴장감이 팽팽히 흐르고있음이 보였다. 포탄까지로 만든 등불밑에서 키가 후리후리한 군관이 허리를 구부정하고 지도를 짚어보이며 곁에 선 군관들에게 말을 하고있었다.

《제 1 소대는 여기 돌다리계선까지 은밀히 진출해 있다가 공격신호와 함께 먹장굴방향으로 돌격하십시오. 제 2 소대는…공격시간 30 분전에 지원포사격이 있을것ियो. 》

현수림은 《먹장굴》 《지원포사격》이란 말이 나오느바람에 가슴이 섬찟했다. 먹장굴에 바로 그 백설나무가 있지 않는가! 소대별로 공격할 구역을 명령하던 군관은 탁자우에 놓인 야전전화기가 아츠럽게 울리자 수화기를 잡는다. 그는 전화를 받으며 문턱에 서있는 현수림을 한번 거들떠보았을뿐이었다. 회의를 마친 군관들이 전선지대에 나타난 사민을 의

아스러운 눈길로 쳐다보며 밖으로 나간 다음에야 그는 현수림의 앞으로 다가왔다.

《내각자원조사단의 …》

현수림은 어쩐지 음폐호안의 삼엄한 환경에 비해 자기 소개를 하기가 거북스러웠는지 말끝을 흐리며 숙주머니에서 증명서를 꺼내보였다.

《중대장입니다. 오시기 수고했습니다.》

증명서를 오래동안 들여다보던 중대장이 딱딱한 어조로 말하며 현수림의 손을 잡았다. 얼굴이 갱끗하고 눈에 피발이 선 스물넷이 됐을가말가한 젊은 청년이었다. 포연에 그슬린 검실검실한 얼굴에는 범접하기 어려운 무자비한 맹혹성과 두려움을 모르는 완강한 의지가 번뜩였다.

《앉으십시오.》

중대장은 의자를 대신하는 탄알상자를 가리켰다.

현수림은 허줄한 배낭을 벗어 한쪽에 놓은 다음 《의자》에 거북스럽게 앉아 손수건을 꺼내어 이마의 땀을 문질렀다. 중대장이 말없이 주전자의 물을 고뿌에 따라 그의 앞에 놓아주었다.

《고맙습니다.》

현수림은 갈증에 타던차라 고뿌의 물을 한방울도 남기지 않고 마시었다. 그리고는 재가루가 묻은 회색 빛 봄가을의투의 단추를 벗기고 찌그러진 중절모자로 활활 부채질을 했다.

《사단장동지한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무슨 나무씨를 받아야 한다지요?》

중대장은 현수림이 고뿌를 탁자우에 놓자 감시창을 열어놓으면서 지나가는 목소리로 물었다.

《예, 백설나무라고… 전투가 끝난다음에 가라고 굳이 붙잡는걸 한시도 참을수가 없어서…》

현수림은 다소 주저주저하며 용서를 비는듯한 목소리로 소심히 대답했다. 중대장의 짝 다문 입언저리에 알릴락말락한 미소가 언뜻 비끼었다. 모름지기 사람이 죽고사는 전쟁판에 나무씨나 받으러 다니는 자기를 제 정신이 없는 사람이라고 비웃는것만 같았다.

《그 나무위치가 오봉산 어디쯤 됩니까?》

중대장이 탁자우에 놓인 지도앞으로 다가서며 물었다.

《먹장굴이란곳입니다.》

현수림은 중대장이 자기가 찾는 나무에 관심을 돌리는바람에 고마와서 얼른 대답했다. 중대장의 얼굴에는 금시 심중한 표정이 떠올랐다.

《먹장굴! … 거긴 지금 적들의 포진지가 있습니다. 》

현수림은 뭐라고 대꾸했으면 좋을지 몰라 그저 딱한 표정을 지었다. 중대장은 곧 낮빛을 고치고 아무렇지도 않은듯 선선히 말했다.

《그러나 넘려마십시오. 이제 몇시간이 있으면 고지가 점령됩니다. 우리 동무들을 시켜 그 나무씨를 받아오도록 하겠습니까.》

《나무씨만은 내가 받아야 합니다. 중한 씨앗이니까요.》

현수림은 이렇게 황급히 말하다가 아까 군관들 앞에서 지원포사격을 한다고 하던 중대장의 말이 걱정되어 물었다.

《그런데 싸움을 할 때에 혹시 나무가 상하지 않겠는지 그게...》

《글쎄말입니다.》

중대장은 어정쩡하게 대답했다.

《싸움을 하게 되면 포랑 쏘겠지요?》

현수림은 속으로 생각을 굴리던 문제를 슬며시 물었다.

《그야 물론!》

중대장은 거침없이 대답하며 지도우에 눈길을 꼭 박았다. 술진 눈썹이 무거운 생각을 실은듯 아래로 축 처졌다. 순간 현수림의 가슴은 싸늘하게 식어들며 두다리가 하사분해짐을 느꼈다. 그는 억이 막혀 중대장에게 구원을 바라듯 났나간 사람처럼 중얼거렸다.

《그렇게 되면 오봉산은 불바다가 되겠지요? 불바다가?! ...》

중대장은 더 응대하지 않았다. 너무나도 명백한 물음에 대답을 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 모양이었다. (아, 불바다! 그렇다면 백설나무는?...)

지질시대로부터 빙하기의 두터운 얼음장속에서도 죽지 않고 씨를 움터온 백설나무! 풍상고초를 겪으며 수억년을 간신히 후대를 남기면서 살아온 나무가 한순간에 없어진다고 생각하니 갑자기 땅이 쩍 갈라지면서 자기의 온몸이 심연의 나락속으로 휘휘 내돌리며 떨어지는것 같았다.

《그래선 안됩니다. 포를 쏘아선 안됩니다.》

현수림은 정신간간 사람처럼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며 부르짖었다. 중대장은 놀라운 표정을 담고 얼굴을 찌프린채 그를 묵묵히 바라보았다. 그러다가 어린애를 달래이듯 나직이 입을 열었다.

《교수선생, 지금은 전쟁입니다. 모든것은 전쟁승리를 위하여 복종해야 합니다.》

이때 그의 말을 증명이나 하듯 가까운곳에서 포탄 터지는 소리가 《파당당!》 하고 요란스럽게 울렸다. 현수림은 기겁하여 땅바닥에 엎드렸다. 음폐호벽이 지진을 만났듯 움찔하고 천정에서 흙이 폭포처럼 쏟아져 방안을 뽀얀 먼지로 가득채웠다. 포탄은 가까운 어디에서 또 터졌다.

현수림은 포사격이 몇자 고개를 들었다. 중대장은 바위처럼 끄덕 안하고 서있었다. 현수림은 그만 먼구한 생각이 들어 중절모자로 먼지를 툭툭 털며 일

어나앉았다. 중대장은 태연한 표정을 담고 지도우에 쏘아진 흙을 손바닥으로 쓸어내면서 다시 입을 열었다.

《교수선생은 나무가 귀중하지만 난 조국앞에 저 고지를 점령할 임무를 받았습니다. 지금 오봉산에는 증강된 적 한개 대대가 있습니다. 한그루 나무때문에...》

중대장은 무슨 말인가 더 할듯하다가 그만두고 지도를 접었다. 기분이 그닥 좋은것 같지 않았다.

현수림은 절망감에 눈앞이 아찔했다. 그는 머리를 감싸쥐고 그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중대장의 말은 옳았다. 백설나무가 아무리 귀중한들 젊은이들의 생명과 견줄수는 없는것이였다. 자기가 너무도 무리한 요구를 한것 같았다.

《용서하십시오. 중대장동무.》

현수림은 땅이 꺼지게 한숨을 쉬며 사죄했다.

중대장은 지도를 접어 가방에 넣다말고 현수림을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방안에는 침묵이 깃들었다. 어느 풀숲에선가 밤찌레끼가 찌룩찌룩 울었다. 이따금 적의 탐조등빛이 감시창을 통해 언뜻언뜻 비쳐든다. 쿵 쿵웅! ... 멀리서 우뢰처럼 울려오는 포격소리, 푸실푸실 떨어지는 천정의 흙, 또다시 정적, 정적... 중대장은 고개를 수긏하고 생각에 잠겨 천천히 방안을 거닐었다. 현수림은 아이처럼 락심해서 멍청히 어느 한곳을 바라보기만했다. 그 모습은 흡사 방안에 이미부터 있던 석상같이 보이기도 했다. 중대장은 이따금 거닐던 걸음을 멈추고 수심에 잠겨있는 현수림을 측은한 눈길로 바라본다. 그럴 때면 전쟁의 화신같이 엄엄하던 그의 얼굴표정은 한결 부드러워지곤 했다. 그러나 그것은 한순간이였다. 현수림에게 동정을 표시하기에는 너무도 준엄한것 같았다.

《너무 걱정마십시오. 무슨 방도가 있겠지요.》

중대장도 딱한 모양인지 막연히 위로했다.

《중대장동문 내가 제 욕심만 차리는것 같은데 이 나무는 우리 나라에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입니다. 그리고 내 일생이 깃든 나무지요.》

현수림은 말끝을 흐리우면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피우십시오.》

중대장이 탁자우에 니켈도금을 한 담배팩을 열어 놓으며 권했다. 그제야 현수림은 담배를 피우고싶은 생각이 들어 사양없이 중대장의 담배팩에 손을 가져갔다. 중대장이 제때에 성냥불을 꺼주고 자기도 불여 물었다. 둘은 한동안 담배연기를 진하게 내뿜으며 덤덤히 앉아있었다.

《중대장동문 대학을 다녔습니까?》

《예, 해방후에...》

《어느 대학입니까?》

《교원대학을 다니다 나왔습니다.》

현수림은 한순간 부러운 눈길로 중대장을 바라보다니 천천히 입을 뗐다.

《나는 왜놈의 세상에서 대학을 나왔지요. 나는 우리 조선의 식물을 연구할 청운의 뜻을 안고 고학으로 대학공부를 했는데 글썄 이것이 내 운명에 불행을 주게 될줄이야... 나는 대학기간에 우리 나라 고서를 읽다가 백설나무씨로 무슨 동약을 만들었다는 기록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무릎을 쳤지요. 그때로 말하면 세계적으로 원종지가 히말라야산줄기에 있는 백설나무를 풍토순화시키기 위해서 모든 식물학자들이 달라붙었으니깐요. 일본식물학계에서도 이 나무를 풍토순화시키기 위해 눈에 쌍심지를 달고 연구했지요. 그런데 누구도 성공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원래 희귀한것일수록 자기 후대를 남기는데 린색한 법이지요. 그 고서에서 힘을 얻은 나는 우리 나라에 이진귀한 나무가 있을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연구에 달라붙었지요. 그런데 이것때문에 고역을 치르게 될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담배를 켜 현수림의 손은 가볍게 떨렸다. 담배불은 이미 꺼져있었다. 중대장이 다시 성냥불을 켜서야 현수림은 담배불을 붙였다. 밖은 정적이 깃들었다. 만약 전쟁이 아니라면 농촌집 옷방에 앉아 길가던 나그네의 인생담을 한가히 듣는 사람들갈기도 했다.

《아니 제 나라 나무를 연구하는데 고역을 치르단단 말입니까?》

중대장이 어이가 없어하며 궁금한듯 되물었다.

《허, 글썄 그게 나라없는탓이지요. 내가 이 나무에 흥미를 가진다는것을 안 왜놈들은 대학을 졸업하자 나를 구마가이라는자가 경영하는 식물연구소에 넣었지요. 그때까지만 하여도 놈들의 목적을 몰랐던 나는 과학을 연구할수 있게 되었다고 오히려 기쁘게 생각하였습니다. 구마가이는 조사단을 조직하여 조선의 산과 들, 마을의 정자나무에 이르기까지 살살이 뒤지도록 하였습니다. 나는 그 조사단의 한 성원으로 되었지요. 그런데 나는 왜놈들의 속심을 알아 잠깐 놀라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왜놈들은 조선의 재부인이 나무를 일본땅으로 끌어가려고 했습니다. 만약 성공하지 못하면 이 나무를 아예 없애버리려는 야심이 었지요. 왜놈들은 이렇게 나라를 빼앗고 국보까지 훔쳐가고 짓밟으려 했던말입니다. 놈들의 검은 속심을 알게 된 나는 그처럼 안타깝게 찾던 백설이건만 영원히 숨어서 나타나지 말기를 얼마나 바랐는지 모릅니다. 그 귀중한 나무를 어찌 놈들이 짓밟게 할수 있단 말입니까? ...》

현수림은 흐느낌에 가까운 목소리로 말했다.

중대장도 그의 심정을 헤아린듯 심각한 표정을 담고 고개를 끄덕이었다.

이때 음폐호문이 벌컥 열리며 연락병이 들어와 정찰나갔던 동무들이 도착했다고 보고했다. 뒤이어 키가 큰 상등병이 머리에 봉대를 감은 애 어린 전사를 부축하고 음폐호안으로 들어왔다. 그들은 얼마나 지치고 피로했는지 당장 쓰러질듯 비칠거렸다. 중대장은 그들에게로 다가가 두사람의 어깨를 한꺼번에 그러안으며 《왔구만!》 하고 기쁨에 넘쳐 말했다. 그리고는 반가움과 안도감이 어린 표정으로 그들을 일별하더니 피문은 봉대를 감은 나 어린 전사의 머리를 가볍게 어루만지며 근심스럽게 물었다.

《많이 다쳤소?》

《일없습니다. 중대장동지, 걱정이 변동되었습니다. 먹장골에 박격포 한개 중대가 더 증강되고 철조망이 ...》

《됐소 됐소... 나와 함께 위생소로 가자구...》

중대장이 급히 그의 말을 막으며 의식을 잃은 전사를 업고나갔다. 중대장이 나간 방안은 썰렁했다. 현수림은 불원간 처절한 싸움이 벌어질 예감으로 가슴이 옥죄어들어왔다. 이제 전투가 벌어지면 끝날같은 전사들이 포연탄우를 뚫고 목숨을 내대며 적진으로 달려갈것이다. 그런데 자기는 포사격을 하지 말아달라고 했으니... 현수림은 어리석고 용렬한 행동으로 중대장을 괴롭힌 죄스러움이 가슴을 찌르는듯했다.

지금은 모든것을 조국을 위해 바치는 성스러운 시각이다. 그런데 나는 ? ... 백설나무가 귀중하다고 하면서도 목숨이 아까와 여기에 머물거리고있지 않는가. 현수림은 무서운 자책감에 얼굴이 뜨거워올라 더 참지 못하고 배낭을 메었다. 싸움이 불기전에 먼저 가서 백설씨를 받아와야 했다. 그는 밖으로 나왔다. 사위는 아직도 어둠속에 묻혀있었다. 이따금 오봉산마루에서 뱀의 허갈은 적의 탐조등빛이 어둠을 갈가리 찢으며 저앞 개활지대를 빗질하듯 살살이 훑었다. 격전을 앞둔 밤은 폭풍전야의 정적이 무겁게 드리워있었다. 현수림은 비장한 결심을 하고 참호를 넘으려 했다.

《누구요?》

가까운곳에서 낮으나 날카로운 목소리가 울렸다.

《...》

현수림은 그자리에 굳어져버렸다. 이쪽으로 다가오는 발자국소리가 들렸다.

《교수선생이 아닙니까? 어딜 가십니까?》

중대장의 목소리는 엄했다.

《오봉산으로 가야겠소.》

현수림도 무뚝뚝히 대답했다.

《가야 한단말이지요. 가야... 하지만 이 밤중에? ...》

《걱정 마시오. 내 머리속에는 그 나무 위치가 똑똑히 적혀있소. 나를 막지 말아주소요.》

현수림은 자기의 결심은 이미 명백하다는듯 단호히 말했다.

《련락병!》

중대장이 뒤에 선 꼬마전사를 불렀다.

《옛!》

《교수선생을 중대부로 데려오시오.》

《싫소. 난 가겠소.》

현수림의 목소리는 노여움에 떨렸다.

순간 중대장은 몸을 휙 돌려 현수림을 쏘아보았다. 눈에 불꽃이 튀기는것으로 보아 몹시 흥분하고있는듯했으나 중대장의 어조는 낮았다.

《여기는 연구실이 아닙니다.》

《그러니 나를 억류할셈이요?》

《군사규률에는 홍정이 없습니다.》

중대장은 날카롭게 쏘아붙였다.

《...?! ...》

현수림은 그만 온몸에 경련이 이는듯했다.

그는 련락병이 등을 미는바람에 할수없이 음폐호로 들어와 탄알상자우에 무너지듯 주저앉았다. 중대장은 말없이 큰술을 그으며 감시창앞에 서있었다. 방안에는 납덩이같은 공기가 무겁게 깃들었다. 그 침묵이 현수림의 가슴을 채로 만드는것같았다. 마음이 서글퍼지고 눈물이 핑 솟구쳤다.

《동문 너무도 박정하구만, 그 나무에 내 운명이 달려있는줄을 알면서도...》

중대장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애꿎은 담배만 피웠다. 이윽고 중대장의 폭 갈아앉은 목소리가 울렸다.

《제가 왜 교수선생님의 심정을 모르겠습니까...백설나무이야기나 마저 해주소시오.》

현수림은 한참후에 다시 입을 열었다.

《그때 나는 마지막으로 저 오봉산에 도착했습니다. 안개가 끼고 비가 부실부실 내리는 스산한 날이었지요. 그런데 이날에 나에게 행운이 차례질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함께 다니던 일본인은 비가 오자 나 혼자 산으로 가라고 등을 밀고는 자기는 술집으로 들어갔지요. 당국노의 신세란 그런것이였습니다. 그런데 왜서인지 무엇인가 자석처럼 끌어당기는것이 있어 나는 두려움도 모르고 인적없는 오봉산속으로 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한나절을 산속을 헤매던 나는 먹장골 샘터 근방에서 흙타구에 간신히 뿌리를 박고 가냘프게 서있는 한그루 이상한 나무를 보게 되었지요. 나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급히 사진을 꺼내여 대조하면서 나무잎이며 줄기를 관찰하기 시작했지요. 분명 백설나무같았습니다. 바람이나 날짐승에 의해 백설씨앗이 그곳에 떨어져 자라난 모양이었지요. 나는 이 근방에 원종나무가 있을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끝안을 뒤지였습니다. 그러다가 먹장골에서 진대가 된 백설나무를 몇대 발견하게 되었지요. 나는 잃어버린 자식을 찾는 부모처럼 눈에 불이 달아서 백

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먹장골에서 끝내 수백년 자란 백설나무 한그루를 찾아냈습니다. 아 그때의 그 심정을 무슨 말로 다 표현하겠습니까? 그 나무를 발견한 내 마음이 어땠는지 중대장동문 다 모를것입니다. 생사를 모르던 자식을 만난듯 나는 터실터실한 백설나무를 부여안고 울며 웃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때 조선땅에 무슨 진귀한 나무가 있겠느냐고 지껄이던 왜놈들의 말이 떠오르더군요. 하지만 우리 나라에는 세상에 둘도 없는 값진 보물이 다 있다는 자부심에 가슴은 한껏 부풀어올랐지요.》

《그런데 그 나무가 어떻게 되어 그때까지 왜놈들에게 발견되지 않았을가요?》

중대장도 흥분하여 탄알상자우에 앉으며 물었다.

《글쎄 나무를 보니 엄청나게 큰데 깊은 수림속에 몸을 감추고 숨어있는듯했지요. 백설나무는 여전히 옛꿈에 취해 졸고있는것만 같았는데 홍송이랑 여러 자연수들이 푸른 잎새들을 한껏 펼치고 웅위하듯 둘러싸고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보니 나 자신도 여러번 그 구역을 지나쳤했으나 발견하지 못했던것이지요. 백설을 찾으려던 소원은 이룩되었으나 마음놓고 연구할 운명은 차례지지 않았습디다. 왜놈들이 알면 나무를 략탈하거나 저희것으로 만들수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나는 나무잎만 채집하여 품에 깊이 간직한채 산에서 내려가 없다고 보고했지요. 그러다보니 그 조사단도 빈손털고 일본으로 돌아갈수밖에 없었지요. 그때로부터 나는 깊은 밤이면 남몰래 론문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나무잎을 바라보면서... 그런데 어느새 이것을 냄새맡은놈들은 나에게 나무의 위치를 대라고 열리기도 하고 위협도 하더니 끝내 모른다고 뽀대자 죽이겠다고 하면서 감옥으로 끌어가더군요. 그러나 나는 죽는 한이 있어도 말하지 않았습디다.》

현수림은 또다시 한숨을 내쉬었다. 함께 마음조이던 중대장도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전자의 물을 한고뿌 그득 채워서 현수림에게 주었다. 그의 얼굴에는 선망에 찬 부드러운 표정이 어려있었다.

《해방이 되어서야 나는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고 끝내 장군님께서 계시는 이북으로 들어왔지요. 그러나 미국놈이 강점하고있는 38 선남쪽에 있던 이 나무는 여전히 빛을 볼수 없었습니다. 중대장동무, 나를 막지 말아주소시오. 이제 이 나무가 없어지면 수 억년 내려오던 백설의 대가 끊어집니다.》

현수림의 목소리는 눈물에 젖어 절절히 울렸다. 중대장은 고개를 수긏하고 말없이 방안을 거닐기 시작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상념의 빛이 짙게 어려있었다. 또다시 포탄이 터지고 적진에서 쏘아대는 기관총소리가 소름끼치게 들려왔다. 천정의 흩이 푸실 푸실 떨어지고 벽에 매달린 포탄깍지의 등불이 꺼질듯 위태롭게 꺼불거린다. 폭음이 몇자 방안에는 뚜격 뚜격 중대장의 걸음소리가 들렸다. 현수림은 피롭게 울리는 심장의 박동소리를 누르며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한걸음 또 한걸음 방안을 채우는 무거운 발

자국소리... 중대장의 걸음소리에 백설의 생사운명이 달려있는듯했다. 문득 발걸음소리가 멎었다. 현수림은 고개를 쳐들고 중대장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언제나 명백하던 그의 강철빛 얼굴에는 복잡한 표정이 엉켜있었다. 눈길은 한곳을 응시하고 포연에 그슬린 철문같은 입은 여전히 딱 다물려있었다. 이윽고 중대장의 눈에서 섬광같은것이 번쩍했다. 그 눈길로 중대장은 현수림을 쳐다보았다. 무슨 말인가 할듯 입귀를 움직이다가 다시 닫혀졌다. 그리고는 다시 걸음을 옮겼다. 초조한 눈길로 그를 쳐다보던 현수림은 모든것을 단념한듯 한숨을 내쉬었다. 이윽고 중대장의 걸음소리가 멎었다. 그는 한동안 그 자리에 굳어진듯 서있더니 탁자앞으로 단호히 다가섰다. 그리고는 수화기를 천천히 들고 흥분을 누르며 약간 더듬는 소리로 대대부를 찾았다.

《대대장동지, 지금 저의 옆에는 교수선생이 배낭을 지고서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백설나무는 꺾어지고 불타버릴것입니다. 예... 우리 전사들은...예, 그래서 포사격을 하지 말아주십시오. 저희들을 믿어주십시오. 나라의 국보를 꼭 지킬것입니다. 편대에 제기해주시시오.》

(아니? 그럼 포사격이 없는 싸움올?...)

현수림은 깜짝 놀라 고개를 번쩍 들고 중대장을 바라보았다. 중대장은 수화기를 놓고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사람처럼 후련한 미소를 지으며 현수림을 마주보았다. 현수림은 고개를 설레설레 저었다. 그럴수가 없었다. 끝날같은 귀한 젊은이들을 포 한방 쏘지 못하고 전쟁으로 내몰수 없었다.

《중대장동무, 그건 안됩니다. 포사격을 안하다니요?》

현수림은 가슴을 치미는 뜨거운것을 삼키며 격해서 부르짖었다.

《교수선생님, 안심하십시오. 우리 전사들은 꼭 해낼겁니다.》

중대장은 빙그레 웃었다.

《선생님, 우리가 무엇때문에 매 순간 피를 흘리며 싸웁니까. 조국을 위해서가 아닙니까. 백설나무는 조국의 한 부분입니다. 조국땅에 설레일 백설나무를 생각하며 우리는 싸울것입니다.》

《중대장동무! 》

현수림은 중대장앞으로 다가가 그의 두손을 꼭 잡으며 목메어 불렀다.

...전사들은 묵묵히 돌격서열로 나아가고있었다. 포사격이 없는 공격전투였다. 한그루의 나무를 위해, 이름없는 한 학자를 위해! ... 현수림은 문득 나라없던 그 시절 백설나무때문에 경찰서에 끌려가 각목으로 매를 맞던 일이 떠올랐다. 꿈은 있어도 피울수 없고 희망은 있어도 나래를 펼수 없었던 그 시절, 한그루 나무조차 숨어있어야 했고 마음놓고 뿌리를 내릴수 없는 세월이었다. 그러나 오늘 조국의 수많은 홀

룡한 아들들이 저렇듯 한그루의 나무를 위해 꿈과 미래를 안고서 웃으며 결전장으로 나아가고있지 않는가! 아, 조국! 나는 언제이면 그 뜻의 깊이와 넓이를, 그 품의 무한대한 사랑을 다 알고 그 의미를 다 터득할수 있을것인가. 나는 지금까지 한 과학자로서의 의무와 나 개인의 욕망으로 백설나무를 생각하여왔다. 그러나 조국은 한그루 나무뿐만아니라 그 나무에 바쳐진 나의 인생도 아니, 먼 미래까지도 소중히 지켜주고 반들어주는 진정한 삶의 품이 아닌가. 현수림은 다시한번 조국의 참뜻을 깊이 헤아리는 순간 감격으로 솟구치는 눈물을 막을길이 없었다. 그는 젖어드는 눈굽을 문지르며 서리어린 총창을 꼬나들고 적진으로 나아가는 전사들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얼굴마다에는 자기의 숭고한 사명을 깨닫는 사람에게서만이 볼수 있는 그런 엄숙한 빛이 번뜩이고있었다. 검푸른 하늘중천에 백광색 조명탄이 떠오른다. 그 불빛속에 웅장하게 솟아있는 오봉산, 처절한 격전을 예고하듯 피빛으로 물드는 동녘하늘, 전사들은 백병전으로 나아가고있으나 포성은 울리지 않았다...

《중대장동무는 그 싸움에서 끝내 젊은 생명을 바쳤습니다.》

현수림은 갈린 목소리로 조용히 말을 멈추었다. 존 하우는 말없이 안경을 벗고 손수건으로 축축이 젖은 눈굽을 닦았다. 우짚던 새소리도, 산골짜기 물소리도 이제는 그의 귀에 들리지 않았다. 가슴속에서는 뜨거운 격류가 세차게 끓어치고 눈시울은 그냥 지는것만 같았다.

아, 저기 저 이끼덮인 바위우에도 마지막 한순간까지 싸우다 쓰러진 애 어린 전사의 붉은피가 휘뿌려져있는게 아닌가! 바로 저 얼기설기 뻗은 나무뿌리를 푸근히 싸안은 마른잔디우에 쓰러진 한 전사도 높이 솟아 일렁이는 백설을 바라보며 웃음짓고 조용히 눈을 감았으리라.

순간 존 하우는 눈앞에 보이는 하나하나의 나무들이 다 백설을 위해 싸운 병사들의 모습으로 안겨왔다.

한손에 굳건히 총을 잡고 미소지으며 손저어 반겨맞는듯, 존 하우는 왜서인지 그들모두가 가장 자랑스럽고 사랑스런 친지들같이 생각되었다.

그 한그루 나무를 위해 비발치는 탄우속을 뚫고 백병전으로 나아갔을 그들, 결사전을 앞둔 그 순간에 그들은 과연 무엇을 생각했을까. 그 무엇이 그들에게 총창으로 적의 현대화된 영구화점을 까부시고 이 산림의 영원한 청춘을 안아올 그렇듯 큰힘을 주었을까...

바로 그들이 뿌린 더운 숨결과 피줄을 타고 이렇듯 백설이 무성하게 뿌리내리고 널리 퍼진게 아니겠는가! ...

존 하우는 피로 바꾼 이 한그루한그루 나무를 무심히 볼수 없었고 이 오붓한 산길에 무심히 발걸음을



옮길수가 없었다. 그러면서 무엇인가 자기 자신을 새삼스럽게 돌켜보게 되었다.

나도 나의 한생을 이 한나무에 고스란히 바쳤다.

그러나 이 백설을 수십년간 연구하면서 그 어느 한순간도 이 연구를 내 개인의 명예와 황금을 떠나 생각해본적이 있었던가?

존 하우는 자신이 걸어온 실패의 쓰디쓴 길들을 회상하였다.

애지중지 키워가던 애기모가 누렇게 황이 들어 죽어갈 때 그가 흘린 눈물인들 얼마이며 그가 지새운 낮과 밤인들 얼마였던가? 그러나 그 어느 누가 이 존 하우를 위해 함께 근심해주었고 구원의 손길을 던져 주었으며 그 누가 그에게 위안의 말이라도 하여주었던가...

없었다. 나에게도 나라가 있고 나 역시 국민의 한 사람이지만 나의 연구를 위해 그 누구도 헤아려준 적이 없었다. ...

존 하우는 깊어지는 생각을 안고 숲속길을 걸었다. 숲은 근엄한 성격에 싸여 존 하우를 그 어떤 환희의 세계로 이끌어가는듯했다. 존 하우는 점점 가슴이 울렁거렸다. 그는 드디어 앞에 서있는 한그루 거목에 시선을 멈추었다. 검푸른 바늘잎가지를 겹겹이 펼치고 몇사람이 팔을 벌려도 다 잡을수 없는 아름다리원줄기를 창공높이 뻗친채 거연히 서있는 웅장한 나무였다. 세월의 풍상고초를 다 겪은듯 거북등처럼 짙 짙 갈라진 나무껍질에서는 하얀 송진이 눈물처럼 흘렀다.

나무옆에는 화강암으로 된 국가천연기념물 표식비가 있었다.

《백설! 백설 자연수다!》

존 하우의 가슴속에서는 이런 웨침이 터지고있었다.

그는 백설나무위에 호위병처럼 거연히 서있는 한그루 홍송을 쳐다보는 순간 그만 목이 꺾 막혀왔다. 그의 가슴은 세차게 뛴뛰었다. 어쩌면 아직 한번도 본적 없는 중대장의 그 모습이 바로 저 홍송에 어려있을가... 거뭇거뭇한 눈썹, 이글이글한 눈길, 젊음이 붉게 타는 검붉은 얼굴, 존 하우는 두손 벌려 홍송을 꺼안았다.

홍송의 터실터실한 껍질과 줄기는 중대장의 전쟁에 터갈라진 손길인듯 체온과 맥박을 그대로 조용히 존 하우의 심장속에 전해주었다. 그는 분명 나무의 설레임소리속에서 병사들을 창격전으로 부르는 중대장의 피타는 웨침소리를 들었다. 존 하우의 망막우에는 뜨거운 안개가 서서히 어리었다. 그는 정녕 죽지

않았다. 그는 오늘도 여기에 서있다. 것처럼 아름답고 숭고한 미래를 안고 변함없는 그자세로 바로 여기에 굳건히 지켜섰다.

존 하우는 깊은 사색에 잠겨 천천히 백설나무주위를 거닐었다.

내가 지금까지 믿고있던 자연의 법칙은 불변한것이 아니란말인가?... 아니다. 예나 지금이나 위도와 경도의 선은 변함이 없고 우주의 법칙은 영원하다. 하건만 어찌하여 조선에서만은 이 자연의 료조가 무시되는가, 어찌하여 자연의 법칙으로써는 계산할수 없는 신비로운 기적이 바로 여기에서 일어나고있는가.

존 하우의 뇌리에는 나라없던 그 시절, 한그루 나무를 위해 서슴없이 감옥으로 가던 이름없는 과학자, 오늘은 국제학술토론회연단에서 당당히 자기 조국을 자랑하던 조선과학자들의 모습이 어려왔고 방금 보고온 늙수그레한 산림보호원과 소년단원들 그리고 이 나무를 위해 목숨을 바친 중대장과 수많은 병사들의 모습이 우뚝이 떠올랐다. 순간 무엇인가 알듯하면서도 자기로서는 그 뜻을 헤아릴수 없이 아름찬, 하지만 자연의 법칙을 초월한 땅도, 공기도, 물도, 햇빛도 만물을 위해 새롭게 바쳐지도록 하는 미지의 힘이 멀리 바다우에 떠오른 신기루마냥 황홀히 아니 석연히 헤아려왔다.

아, 그것이다. 과연 그 힘이다. 존 하우는 아직 그 힘의 위력을 다는 몰랐다. 그러나 이 힘이야말로 백설의 비밀을 열어놓았으며 인류에게 미지의 세계를 개척할수 있는 학자인 자기자신이 일생동안 탐구해야 할 힘임을 깨달았다. 그 힘은 결코 저절로 생겨나는것은 아니다. 백설이 살자면 땅과 물, 햇빛이 있어야 하는것처럼 인간이 지닌 위력한 힘이 발현되자면 햇빛보다 더 뜨겁고 땅보다 더 자애롭고 공기보다 더 귀중한 생명력이 있어야 할것이다. 바로 그것, 그 영원불멸할 생명력이 이 땅에 있다, 이 나라 인민들이 자기의 의지와 신념으로, 가장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우러러바드느 무궁한 힘을 낳는 위대한 태양이 바로 이 조선에 있다! 존 하우는 백설의 비밀을 찾으려 왔다가 인간이 지닌 힘의 위력을, 인류의 봄을 기약하는 진리를 깨닫고 돌아가는 흥분으로 하여 솟구치는 격정을 금할수 없었다. 그렇다. 이것이 그가 찾은 백설의 비밀의 해답이었다. 그가 고국으로 돌아가 기자들에게 해야 할 대답도 바로 이것이다. 어느덧 존 하우의 심장속에도 봄은 바야흐로 움터오고있었다.

# 타오르라, 화불이여 외 4 편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 결성 80돛기년 화불행진을 보고-

(중국) 최문섭

훽훽

화불이 타오른다  
온 거리를 누비며  
온 광장을 메우며

사람들이여, 보느냐  
밤장막을 가르며  
꿈틀거리는 저 불룡을  
쉽없이 뒤설레는  
저 화불바다를

언제부터였느냐  
《ㄷ. ㄷ》결성의 그날에  
거치른 광야에서  
암흑을 불태우며  
한점의 불꽃으로 타오르던 화불

백두의 밀림에 타올라  
조선의 심장을 불태우며  
천만사람들을 혈전으로 불려  
시련의 고개를 넘어오지 않았더냐

가는 길 천리에  
비바람 사납고  
헤쳐갈 만리에  
눈보라 휘몰아쳐도  
그 언제 하루인들

꺼진적 있었더냐

이 화불  
추켜든곳마다엔  
광명의 새날이 찾아왔고  
이 화불  
비껴가는곳마다엔  
새 삶의 숨결이 약동하였더라

오늘은 저 화불  
이 강산 이르는곳마다에서  
주체의 불길로 타올라  
속도전의 불바람 몰아오며  
신화같은 기적을 낳은것이 아니냐

나는 본다  
화불을 높이 추켜들고 나아가는  
청년들의 불타는 얼굴들에서  
희망찬 조선의 미래를  
이 나라 인민들의 불패의 신념을

오, 화불이여 타오르라  
훽훽 세차게 타오르라  
오늘은 이 거리, 이 광장에서 타오르지만  
래일은 통일의 광장에서  
붉은 노을 펼치며 타오르리라

## 만 폭 동

얼마를 올랐느냐  
한층계 오르면 또 한층계  
기다린듯 다가만 서고  
벼랑끝에 허궁 들린 구름다리  
어서 오라 부르며 손짓하는데

너럭바위에 앉아 바라보니  
층층 얹힌 기암괴석  
천야만야 깊은 계곡  
그사이로 흐르는 맑은 벽계수  
옥구슬 구울리며 절벽을 내리누나

홀린듯 취한듯 넋잃고 서있다가

쇠란간 잡고 바위를 오르니  
선녀들이 내렸다는 유선폭포  
층층 아홉층 구층폭포  
그 기상 더더욱 장관이여라

아, 일만폭포 쏟아져 만폭동인가  
세상의 아름다움 한몸에 지니고  
우리를 부르는 너의 한몸에  
나도 자랑스레 안기련다  
이 마음 그대로 폭포가 되어

-묘향산에서-

## 만 물 상

한걸음 옮기다 멈추고  
바라보다 또다시 오르며  
한나절 걸었던만  
산중턱도 못올랐네

치솟으니 천봉만악  
절묘할사 천태만상  
우러르니 기암이요  
둘러보니 만물이라

기는눔우에 걷는눔  
뛰는눔우에 나는눔  
봉이마다 명승이요  
바위마다 절승인데

갑옷 입은 《무사바위》  
솟을대문 지켜섰고  
협상국은 《귀면암》

유람객을 부르는가

도끼자옥 《절부암》은  
옛 전설을 전해주고  
구멍바위 《하늘문》은  
반갑다고 문을 여네

천선대에 높이 올라  
동서남북 굽어보니  
빨강게 타는 단풍  
들쭉날쭉 하얀 바위

오, 금강산의 한 모퉁이  
천하절경 만물상이  
이내 마음 통채로  
몽땅 앗아갔구나

-금강산에서-

## 동해여, 내가 왔다

동해여, 내가 왔다  
푸른 물결 출렁이는 너의 기슭  
새하얀 백사장에 태를 묻고  
너의 세찬 파도소리를  
자장가로 들으며 자라던 내가

내가 왔다  
너의 기슭에 뿌리내린 저 산발  
어느 골짜기 이름없는 막장에서  
팽이로 석탄을 캐여 연명해가던  
어제날 막별이군 탄부의 아들이 왔다

내가 왔다 동해여  
강보에 싸인채 어머니의 등에 업혀  
아버지의 축 처진 지게에 앉아  
살길 찾아 정처없이 떠났던 몸이  
귀밑머리에 흰서리가 내리여  
그처럼 오고싶던 너의 기슭으로 왔다

삭풍이 몰아치던 이역땅에서  
산전을 허비다 지쳐서 쓰러진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을 안고  
날품팔이에 활동같이 등이 흰  
어머니의 절절한 소망을 안고

네 품이 그리워  
진정 네 품이 그리워  
꿈결에도 그 몇번 달려왔던가

끝없이 펼쳐진 백사장  
구슬처럼 부서지는 물보라  
황홀한 너의 해돋이가 보고파

내 지금 아이적 마음으로 어리광치며  
백사장에 맘껏 덩굴어도보고  
파도에 몸을 맡겨 자맥질도 해본다  
쩍쩍한 바다물도 샘물인양 마셔보고  
싱그런 해초냄새도 마음껏 맡아본다

동해여  
쉽없이 뒤설레는 푸른 물결 바라보니  
내 가슴에도 격정의 파도가 일고  
내 마음도 파랑게 물이 든다  
헐헐 갈매기 자유로이 날아예는  
너의 티없이 맑은 하늘을 바라보면  
내 가슴도 하늘처럼 창창히 열린다

오, 동해여  
너의 기슭은 내 삶의 첫 요람  
내 생의 첫 발자국 여기서 떼였나니  
이 세상 한끝 그 어디에 가든  
내 향시 너를 잊지 않고  
내 한생을 너처럼 살리라  
깨끗하게 푸르게  
쉽없이 즐기차게

-조선동해바다가에서-

## 장벽아, 말하라

여기선 모든것이 막히었다  
큰길에서 달리던 자동차도  
남으로 뻗어가던 레루도  
값을 따라 흐르던 강물도

막히었다, 모든것이  
산에서 자유로이 오고가던  
짐승도 앞길이 막혀 멈춰서고  
하늘에서 시름없이 날아예던  
새들도 포성에 놀라 되날아온다

동해안부터 서해안까지  
만악의 군사분계선을 따라  
피물같이 들어앉은 콩크리트장벽이  
모든것을 막아세웠다  
모든것을 갈라놓았다

장벽아, 말하라  
너는 누구의 총칼에 끌려  
거기에 뿌리박았느냐  
너는 누구의 지령에 좇아  
하나의 강토를 동강내느냐

너는 보았으리  
《남침위협》의 방패를 내들고  
군사연습을 일삼는 미제와 그 주구들을  
너는 들었으리  
친미독재를 반대하여 싸우는

남조선인민들의 분노의 합성을

장벽아, 머리 쳐들고  
저 푸른 하늘, 높은 산을 바라보아라  
흰구름은 바람따라 자유로이 떠다니고  
안개는 피어올라 서리서리 엉키고  
나무는 가지 뻗어 손잡지 않았느냐

네가 앞을 막아서있지만  
한피줄의 정이야 어찌 끊으랴  
심장으로 통하는 마음이야 어찌 막으랴  
그것은 장벽을 뚫고 통하는 진리  
세계의 민심이 함께 바라는 통일

장벽아, 너는 앞길을 막아서지 말라  
미제의 각을 날려 바다에 처넣으며  
네 그대로 폭탄이 되어 터지라  
네 그대로 장검이 되어 버이라  
분렬에 이끌난 역도들의 목을

그러면 너는 통일의 그날에  
력사의 유물로 거기에 남아  
땅을 차고 일어나 공소하게 되리라  
천인공노할 미제의 만행을  
나라를 팔아먹은 역도들의 죄행을  
파란많은 민족의 피의 역사를

-개성에서-

## 노을에 새겨진 글발

(중국) 리상각

북과 남 어디나 가림없이  
찬란한 조선의 쪽빛 하늘에  
진붉게 물든 저 노을은  
온 겨레가 하나같이  
아침마다 우러러보는 기발이다

조회에 모이는 학생들이  
새벽 물길은 아낙네들이  
쟁기를 손질하는 농부들이  
뜨락을 쓰는 로인들이  
새벽 달리기하는 아이들이  
쳐다보는 노을  
우러러보는 기발

저 노을에 저 기발에  
무슨 글이 새겨졌기에

저리도 눈박아보는것일까?

외국인 눈에는 보이지 않는 글  
오로지 조선사람 눈에만 보이는 글  
아, 저 노을에 새겨진 글발은  
-통일! 통일! 통일!

새파란 동해바다끝을 보아도  
아름다운 금강산을 보아도  
백두산마루에도  
한나산머리에도  
불타는 노을에 새겨진 글발  
-통일! 통일! 통일!  
기발같이 펼쳐진 노을에

해불같이 떠오르는 노을에

금빛을 뿌리는 글밭-  
조선의 노을은  
통일의 기발이다!  
통일의 기발이다!

온 겨레의 가슴에  
념원을 불태우고  
희망을 키우고  
붉은 피 뚫게 하는 노을이기에  
저처럼 아침마다 뛰어나와  
읽고 또 읽는게 아닌가

글자획마다 황황 불을 뿜는다  
민족의 뉘트로

투사들의 충혼으로  
새겨진 저 글밭은  
가슴가슴에 불을 지핀다

하늘에 펼쳐진 조선의 노을  
노을에 새겨진 글밭  
조선이 추켜든 통일의 기발이여  
온 겨레는 가슴을 치며  
아침마다

읽는다  
웨친다  
-통일!  
통일!  
통일!

## 나 의 전 우

김남용

40 여년 가까이 흘러갔구나  
그리운 전우야  
내 정녕 못잊을 그대마저  
가는 세월속에 잊은적은 없던가

한일없이 묘향산 등산길도 즐겁게 걸었고  
무얼 했다고 기념훈장도 두세번 받았던가  
때론 동갑나이 친구의 환갑상에  
마주앉아 어허라 축배잔도 주고받았으니

언제나 못잊을  
그리운 전우여  
락동강 전호가에서 헤어진 그대  
그 이름 조용히 불러보는 마음속에  
더더욱 그리운 전우여

언제인가  
발관개공사장에 나불은 속보에서  
그와 같은 낯익은 이름 읽으며  
떠나간줄 알면서도 혹시 그대가 아닌지  
찾게 되던 사람아

그 언제였던가  
함흥대극장 건설 영예사진게시판에서도  
그와 똑같은 이름  
중앙인민위원회 정령에도  
그 아닌 로력영웅의 이름을 들으며  
정녕 그대가 우리곁을 떠났는가  
믿기 어렵던 마음이어

정녕 그가 살아있진 않는가

세상에 하많은 이름중에  
같은 이름도 많으련만  
혈전의 날 락동강가에서 헤어진 나의 전우  
이제는 추억속에서만이지 아니라  
너는 이 땅에 살아있는것처럼  
믿고싶은 마음이어

불길속에 땅마저 타던 그날  
포화에 끓어진 통신선 따라가며  
버릇처럼 한눈 질끈 감고 말없이 웃음 남기며  
불타던 락동강을 넘어간 그대

그 시각  
다시 두줄기 통신선따라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서가 오고갔건만  
돌아올 그대는 그 한밤이 지새도록  
돌아오지 못하였네  
해가 바뀌어 수십년이 흘렀어도...

아, 내 오늘까지 순간이나마  
그대를 잊고 살진 않았는가  
생을 바치였어도 조국앞에 떳떳한  
그대앞에 내 감히 전우였다고  
추억하며 살수 있는 위훈이 있었던가

오, 락동강  
락동강은 오늘도 피가 흐르고있어  
그날의 전우는 영원한 기억속에  
살아있는것이구나  
우리모두를  
그날의 전호가에 세워주며...

## 종군의 나날에

심봉원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전쟁승리를 위한 투쟁에서 문학예술의 임무는 매우 크고 중요합니다. 작가, 예술인들은 문학예술활동을 통하여 싸우는 우리 인민군대와 인민을 전쟁승리로 더욱 힘있게 고무하여야 합니다.》

이 땅에 전쟁의 포성이 멎은지도 35년 세월이 흘렀다.

그러나 나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받들고 총탄이 비발치는 전호가에서 불타는 도화장에서 원주격멸의 노래를 부르던 그 성전의 나날들을 잊을수가 없다.

갑격도 새로운 1950년 11월 어느날이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우리 조선인민군협주단 창작가들과 예술인들을 고산진에서 만나주시고 친히 공연도 보아주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공연을 아주 잘한다고 분에 넘치는 치하를 하시며 앞으로 계속 전투적이며 혁명적인 노래들을 많이 창작하여 싸우는 인민군전사들과 인민들을 전쟁승리로 힘있게 고무추동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끝결에도 그리던 어버이수령님을 만나뵈옵고 귀중한 가르치심을 받아안은 우리는 크나큰 감격을 안고 종군의 길에 다시 올랐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우리 작가, 예술인들에게 안겨주신 크나큰 신임과 사랑은 간고한 전투의 나날에 우리들의 창작에서 열정이 되고 힘이 되어 력사에 류례없는 생활력을 나타내게 하였다.

지금도 나의 눈앞에는 폭탄과 포탄에 발고랑처럼 뒤번져진 전선길의 타다남은 가로수 밑에서 결사전을 앞둔 고지의 전호가에서 《자동차운전사의 노래》와 《전호속의 나의 노래》를 창작하던 그때가 방불히 떠오른다.

×

1951년 여름, 나는 작곡가 정동무와 함께 최전선련합부대로 떠났다. 달도 없는 그믐날이었지만 하늘에는 미국놈들의 조명탄이 대낮처럼 밝히고있어 우리는 신작로가 아니라 산기슭으로 붙어서 가고있었다. 그러니 걸음은 더디고 약속한 시간내에 고지에 가닿을수 없었다.

우리는 의논한 끝에 위험하지만 화물차를 타고가기로 작정했다. 그래야 빨리 싸우는 고지로 갈수 있기에문이었다.

우리가 신작로옆의 개울가를 건느려는데 마침 달아오른 땀각기에 물을 퍼붓는 운전사를 만나게 되었

다. 알고보니 1차남진때에도 함께 락동장에 갔던 구면친구였다.

《강동무, 여전히 건강한 모습을 보니 기쁘오.》

《작가동무도 건강하구만요.》

《요즘은 저 <까마귀>들이 더 기승부리는것 같소.》

《형세가 기울었으니 죽어가는 놈이 최후발악하듯하지요. 하지만 이제 혼맹이들이 빠진 놈의 지랄이여서 우리 자동차운전사들은 윈노으로도 안봅니다.》 하고 그는 배포유하게 말하는것이였다.

이윽고 우리는 함께 전선으로 달렸다.

하늘을 대낮처럼 밝히는 조명탄, 밤하늘을 썰면서 맴돌아치는 적비행기들, 우박처럼 쏟아지는 기총탄들, 그속을 여유있게 빠져나가는 운전사의 자신있는 얼굴모습! ...

나의 심장에서는 창작적 흥분이 일기 시작했다.

(쓰리라. 전선운전사의 노래를, 전쟁승리를 위하여 사선을 헤치고 달리는 우리의 불사신같은 수송전사의 신념에 찬 노래를...)

얼마나 달렸는지...

갑자기 차가 뒤편무릎을 들썩하며 급정거를 하였다.

《여기가 어디요?》 하고 나는 적재함우에서 운전칸에 대고 소리쳤다.

《예, 여기는 전선원호를 잘하기로 소문난 신고산 땅이야요.》

대답이 운전칸이 아니라 길옆에서 나서 우리는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눈이 둥그래졌다. 그제서야 폭격에 다리가 끊어진것이며 그것을 한시바삐 복구하느라고 뛰어다니는 사람들을 보았다. 우리가 목소리의 임자를 찾아 적재함에서 뛰어내리니 열너덧살쯤 나보이는 사내애가 온통 물참봉이 된 옷을 쥐어짜며 구김살없는 웃음을 머금고있었다.

《아저씨들! 조금만 기다려요. 이제 제격 통과시켜 줄테니...》

우리는 젖어드는 눈시울을 스며이며 그 애를 꼭 그러안았다.

달도 없는 야밤에 자동차는 또다시 달리기 시작했다.

나는 자동차적재함에서 원고지우에 글을 쓰고 다듬는것이 아니라 심장속에 새겨넣었다.

달리자 달리자 나의 자동차

길 아닌 길을 찾아 포탄을 실은 차를 전선으로

이리하여 가요 《자동차운전사의 노래》가 세상에 나오게 되었으며 큰 감화력을 가지고 우리 인민군 전사들과 인민들 속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이것은 어느 한 작가나 작곡가가 지은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의 생활체험의 한부분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우리는 다만 그 생활을 글로 옮겼을뿐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친히 여러차례 이 노래를 들어주시고 우리 운전사들이 전시수송을 보장하는데 크게 이바지한, 앞으로 계속 불려야 할 노래라고 분에 넘치는 평가를 주시었다.



우리가 련합부대지휘부나 후방에서 다시 싸우는 고지에 갈 때면 습관처럼 잊지 않고 들리는곳이 있었다.

그곳은 야전우편소이다. 가렬한 전투환경에서 고향소식을 전해받을 때면 전사들의 얼굴에는 기쁨과 희열이 넘치고 무비의 용감성을 낭게 하는 레를 여러 번 체험했던 것이다.

어느날 나와 작곡가 김옥성동무는 배낭에다 후방소식을 한기득 채워넣고 전선동부의 어느 한 고지로 향하였다.

우리가 불비속을 뚫고 고지에 이르렀을 때는 뉘엿뉘엿 지는 해가 타오르는 연기속에 꺼져들어가고 전호속 여기저기에서 부르는 전사들의 노래가 은은하게 들려왔다.

어깨아래 봉대를 감은 나이지긋한 분대장이 분여 받은 땅에 행복의 첫 씨앗을 묻던 그날을 돌이켜보는 듯한 모습이며 격정에 넘친 음성으로 자작시를 읊던 어린 전사의 모습은 수십년이 지난 오늘에도 잊을수 없다.

...

어머니 사랑하는 나의 어머니  
살구꽃 만발한 동구길에서  
손저어바래주던  
아, 그리운 나의 어머니

장군님 찾아주신 내 고향산천을  
목숨바쳐 지켜내라 하신  
그 말씀 명심하고  
오늘 이 아들은 다섯차례 싸웠나이다

...

이미 낮을 익혔던 중대장은 우리를 알아보자 반색하며 마주 향해왔다.

《동무들, 우리를 찾아 작가동무와 작곡가동무가 왔소.》

우리는 전사들과 서로 부둥켜안고 그사이 인사를 나누었다.

우리가 지고온 신문과 편지를 받아안은 전사들의 기쁨은 한량없었다. 편지를 들고 뜯을념을 못하고 서있는 전사들, 이미 몇차례나 읽은 편지를 다시 읽으며 고향의 정든이들을 그려보는 전사들, 갓 태어난 아들의 이름을 지어보내라는 어느 친구 안해의 부탁

을 전중대적인 심의에 붙이는 익살군들의 모습은 참말로 뜨거운 것이었다.

이윽고 전사들은 고지의 전호속에서 화선오락회를 펼쳐놓았다.

손에 손을 잡고 춤도 추고 노래를 부르는 전사들 속에 나와 옥성동무도 섞여 돌아갔다.

우렁찬 노래소리와 함성은 그대로 메아리가 되어 그네들의 고향땅으로 울려가는데

전호가의 메아리-그것은 위대하신 **김일성**장군님께서 찾아주신 조국땅에서 마음껏 행복을 꽃피우던 그날의 잊을수 없는 추억과 함께 그 소중한 모든것을 목숨바쳐 지키리라는 전사의 맹세였다.

그날밤 나는 흥분을 누를수 없어 적의 공격을 물리친 전호가를 거닐었다. 왜서인지 공을 세우고야 고향어머니에게 몇몇이 돌아가겠다던 중기사수의 말이 귀가를 쟁쟁 울리며 떠날줄 몰랐다.

나는 설레는 가슴을 녹갯히며 우리 전사들이 고향 조국앞에 다지는 맹세를 한구절 한구절 새겨나갔다.

전호속의 나의 노래 고향으로 울려가라  
조국땅을 보위하러 총을 멘지 삼년식달  
적탄알이 비발치는 격렬한 싸움에도  
공세우라 하신 말씀 명심하여 싸웠네  
공세우라 하신 말씀 명심하여 싸웠노라

나의 가사를 보자 김옥성동무는 그자리에서 곡을 붙이였다.

이 노래가 세상에 나오자 인민군협주단 전선공연조는 싸우는 고지들마다에서 전사들의 격동넘친 환성속에 목이 쉬도록 재청을 받았다.

전선과 후방의 어디서나 《전호속의 나의 노래》가 울리지 않은곳이 없었다.

실로 명작과 명곡은 격동적인 시기 그것을 구현한 인간들의 아름다운 정신세계의 산물이다. 나는 가렬한 전투의 나날에 이 진리를 심장으로 체득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를 받들고 싸우는 전선에서 창작된 전사가요는 이렇게 우리 인민들의 사랑을 받는 노래로 되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여러차례에 걸쳐 《전호속의 나의 노래》와 《자동차운전사의 노래》를 명가사, 명곡이라고 높이 평가해주시었다. 그뿐만아니라 합창을 비롯하여 기악작품으로 우리 군인들과 인민들 속에 널리 파급되도록 은정깊은 사랑과 배려를 돌려주시었다.

나는 화선천리를 넘나들며 창작을 하던 종군의 나날처럼 오늘도 대진선행군길의 고수와 나팔수로서의 자기의 사명과 역할을 다할 결의에 충만되어있다.

하여 우리 작가, 예술인들에게 돌려주시는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한없는 사랑과 믿음에 충성으로 보답할것을 굳게 속다짐한다.

## 내가 찾은 주인공

리철호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철저히 수행할데 대한 우리 당 방침의 정당성은 우리 나라의 혁명실전을 통하여 뚜렷이 증명되었습니다.》**

3 대혁명이 힘있게 추진되고있는 우리의 현실은 날에날마다 새로운 창조물과 자랑스러운 혁신자들을 낳고있다.

나는 며칠전에, 아직 신문에 보도되지 않은 희한한 소문을 들었다. 새형의 고성능채탄기를 거의 만들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흥분을 안고 그 공장을 찾아갔다. 때는 고요한 저녁무렵이었다.

공장정문을 지나 얼마 안가서 조립직장이라고 짐작되는 건물의 마당에 감색으로 산뜻하게 새로 도색한 기계설비가 눈에 띄었다. 예리한 이빨을련상케하는 기계의 앞머리와 그밑에 보이는 회전식 삽날, 좁은 무한궤도는 마치도 과학영화에서 보던 우주개발용 자행기구를련상케 하였다. 첫눈에도 이것이 새형의 채탄기이며 이전 채탄기들보다 경량화되고 기동이 빠르며 성능이 좋을것 같이 생각되었다.

나는 마침 그결에서 분무기를 들고 기계부분품에 마지막 도색을 하는 한 처녀를 만나 그것이 새로 만든 채탄기임을 확인하고 탄성을 올렸다. 그런데 이 채탄기의 설계와 제작을 맡은 기술집단의 주인공이 공장대학을 졸업한지 3 년밖에 안되는 청년이라는 그 처녀의 말을 들었을 때 나의 놀라움은 절정에 달했다.

《기자자격을 받은지 3 년밖에 안되는데 이런 채탄기를...?》

《물론 놀라실거예요. 그러나 이번 기술혁신의 비결은 간단하합니다.》 하고 작업복을 입은 처녀는 방긋 웃었다.

《처녀동무, 나는 기계속은 잘 모르지만 그 비결을 알고싶소. 하긴 한두마디로 납득할수는 없을테지만...》

《...》

처녀는 잠시 생각을 더듬는듯하더니 간단히 대답했다.

《자기 힘을 믿은 그것이 이번 성공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힘을 믿는다! ...》

나는 그 어떤 커다란 충격을 느꼈다.

《그래 처녀동무도 이 고성능채탄기를 만든 기술집단의 한 성원이요?》

《예,》 처녀는 긍지있게 대답하였다.

《대단하구만! 그래 설계와 제작중에서 동무는 어떤 일들을 맡았댔소?》

《설계와 제작에 약간 참여했지요. 그리고 속보원고도 쓰고 지금 이렇게 뒤겨두매도 하고...》

나는 그 처녀의 소박한 말을 들으며 기술집단앞에서 하듯 그 처녀에게 축하를 하였다.

나의 찬사에 얼굴이 붉게 달아오른 처녀는 주인공이 일하고있다는 설계실로 나를 안내하였다.

그 처녀는 감탄사를 련발하는 나에게 청년설계가-기계제작공에 대하여 이야기하는것이였다.

현실적 요구와 실태, 동기와 착상, 그 착상을 검토하던 기술협의회, 주저와 분발, 실패와 탐구,...

처녀의 이야기를 듣는 나의 눈앞에는 고심어린 탐구의 낮과 밤이 엇갈려 떠오르며 열정과 투지에 불타는 한 청년기술자의 모습이 방불히 떠오르는듯하였다.

취재수첩을 덮으면서 나는 이 처녀가 그 주인공 청년에 대하여 그 청년자신보다 더 잘 알고있는듯이 생각되었다.

처녀가 어떻게 그토록 깊이 침투할수 있었을가 하고 자못 기이하게까지 생각될정도였다.

하긴 처녀자신이 기술혁신조원의 한 성원이라고 방금전에 설명하지 않았는가. 아무리 그렇더라도...

《바로 저 동무입니다.》

처녀는 나에게 설계실밖으로 나서는 청년을 가리켜보였다. 청년은 목직한 가방을 옆에 끼고 퇴근차림으로 우리앞으로 마주오고있었다. 나는 그 청년과 통성을 하고나서 취재에 응해줄것을 부탁하였다. 나는 우리를 소개해주고 그자리를 뜨는 처녀에게 재삼 감사를 표시하였다.

취재는 퇴근길에서 계속되었다.

청년은 성공의 비결에 대한 나의 추측을 긍정하였다.

《그렇습니다. 자기 힘을 믿는것, 이것이 탐구의 출발점이였지요.》

탄광설비들을 갱신할데 대한 현실적 요구를 반영한 나의 첫 착상이 그대로 성공된것은 아니였습니다.

그 착상은 나혼자의 흥분과 나혼자의 반신반의속에 점차 희미해졌습니다. 나의 미숙한 능력을 잘 알고있는것은 역시 나자신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깃들기 시작지 않아서 벌써 날아보려고 했다고 스스로 허거프게 웃고말았습니다. 나로서도 자신이 없는 큰 기술문제에 뛰어들었다가 도리어 랑패를 볼것 같기도 하였습니니다. 결국 나는 자기의 <명예>를 시위할수 있다고 생각되어 흥분했던 그 착상을 포기해버리고말았습니다.



그러나 그후에 나에게는 힘이 있다는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물론 공장대학졸업생으로서의 나의 기술적인 능력만을 말하는것은 아닙니다. 나혼자의 리해관계를 벗어나서 당의 요구에 심장으로 대답하는 인간이 될 때 나의 힘은 우리 공장의 기술집단의 힘과 합쳐지며 백배로 된다는것을 체험하였습니다.

결국 나자신의 힘을 감득하는 과정은 대중의 무궁무진한 힘을 확신하며 거기에 자기만을 위해 뛰던 심장을 합치는 과정이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십시오. 》

《구체적인 이야기는 우리 소조원동무한테서 들을 수 있을것입니다. 홀로 뛰던 한 기술자의 심장을 어떻게 집단적 혁신의 불길속에 이끌어 들였는가를... 》

《소조원이라니요? 》

《아니 방금전에 함께 오시지 않았습니까?》

청년은 오히려 나에게 반문하는것이였다.

나는 놀랐다.

《그럼 나를 이리로 안내하던 처녀가?...》

《그 소조원동무가 바로 이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

나는 붉은 노을이 비낀 공장구내에 오래도록 서 있었다.

저 새형의 채탄기뿐아니라 3대혁명의 불길이 세차게 타번지는 이 땅우에 이룩된 수많은 창조물들, 우리 시대의 자랑스러운 인간들의 뒤에는 3대혁명 소조원들이 서있었다.

사람들의 가슴속에 3대혁명의 불씨를 심어주고 열정의 나래를 달아주며 새로운 과학기술의 세계로 손잡아 이끌어주는 혁명전위들이! ...

나는 방금전에 만났던 소조원처녀를 찾아서 다시 발길을 돌렸다. 위훈자들의 뒤에 말없이 서있는 이야기의 주인공인 소조원을 찾아서, 아니 3대혁명의 전위답게 위훈의 앞장에 서있는 처녀를 찾아서...

## 나라의 만아들

### 허창일

손주를 둘씩 둔 아바이도  
여기서는 만아들로 살며 쇠물을 짓고  
엿그제 들어온 애젊은 책상물림도  
여기서는 만아들로 불리우며 쇠물을 뽑는다

하는 생각도  
주고받는 이야기도  
누구나 나라일이다  
누구나 나라살림이다

위대한 수령님  
어느 차량공장을 현지지도하시며  
새로운 중량화차를 만들 과업을 주시면  
우리는 자신의 과업으로 받아안고  
계산해본다  
더 뽑아야 할 쇠물량을

신문에 어느 건설장 착공식소식이 나도  
열풍을 더 세차게 뿜어넣고  
이른새벽 용해장에 당비서가 와도  
철강재때문에 흑시  
수령님께서 먼거리전화 걸어오시지 않았는가  
그의 얼굴부터 쳐다본다

헐치 않다  
나라의 만아들로 살기란  
가정에서 만이 온 집안일 돌보듯

나라라는 큰집살림 강철로 뒤받침해주며  
말이구실 다해야 하기에  
근심걱정 가실날 없거니

그래서 기쁘다  
나라의 만아들로 살기가  
우리 생각 많은만큼  
우리 걷는길 많은만큼  
수령님의 근심걱정 덜어드리기에

쌓아가는 강철더미 날마다 더 높아지고  
그 강철에 받들려  
시대의 기념비들 조국의 빈땅을 채워가도  
우리는 즐겨 근심하며 산다  
우리는 즐겨 걱정하며 산다

오, 만아들  
어려운 일 생겨도 먼저 찾아 의논해주시고  
기쁜 일 있어도 먼저 불러 나누시며  
아버이수령님 믿음 담아 불러주신  
용해공 나라의 만아들

살리라, 내  
머리에 흰서리 내리여도  
수령님의 그 믿음에 쇠물로 보답하며  
나라의 만아들로!  
나라의 만아들로!

## 《위장풀 뜯으러 내려왔수다》

외 1 편

최준경

불타던 싸움의 고지에  
새벽안개 고요히 감돌 때면  
농민태생 아바이전사  
푸름푸름 동트는 고향벌로  
발길 매려 나서던 일 생각나

내려왔네 성큼성큼  
그날처럼 마라초 뻑뻑 빨며  
호미 대신 공병삽 척 차고  
산기슭 발머리로 내려왔네

원췌칠 땀 비호같이 사납던 그 성미  
발머리에 서니 살뜰한 정으로 변하는가  
구수한 흙냄새 맡으며  
탐스런 곡식포기 쓸어주며  
얼른잠간 발 한뼘 매 주고싶어  
어느덧 이랑타고 스적스적 일솜씨 보이는데

아빨사!  
오늘따라 이른새벽 서둘러 나온  
전선마을 너인들 부지런도 해라  
호미질소리 가락맞춰 울리며  
흰수건 언뜻언뜻 안개발속에 드러내며  
이랑타고 마주왔네  
안개타고 마주왔네

고향집 마누라일 돕는 마음으로  
소문없이 슬쩍 해놓자던 일

온 마을에 알려지면 어찌하랴?  
농민전사 저도 몰래 당황해하는데  
언뜻 맞은편에서 울려오는 목소리  
젊은 너인의 놀란듯한 목소리

- 어마나?!  
저기 웬 군대가 발길매려 내려왔어요

이런 때면 무슨 말을 건니라  
문득 생각을 더듬던 전사  
수호자의 마음 발이랑에 수놓고  
인민을 위한 정 포기마다 묻어놓고  
태연하게 말했네  
안개속에 풀 한단 척 메고 일어서며  
얼렁뚱땅 한마디 업어넘겼네

- 위장풀 뜯으러 내려왔수다

아, 그 마음 어이 모르랴  
헉헉히 걷히는 안개발타고  
또다시 마라초 뻑뻑 빨며  
결전의 고지로 성큼성큼 오를 때  
너인들 가슴은 후더움에 젖고있었네

- 우리 군대 저 마음속에  
가꾸고픈 내 땅 내 조국이 자리잡고있기에  
원췌치는 싸움에선 언제나 호랑이지...

## 《군 민 교》

초소와 마을을 사이에 두고  
한줄기 강물이 굽이도는곳에  
정답게 솟아있는 《군민교》  
뜻깊은 사연도 많고 많아라  
아름다운 노래도 많고 많아라

어제는 불타는 강물속에서  
무너지는 다리를 함께 받들어  
포차와 탄약을 넘겨보낸곳  
그우에 마주잡은 혈육의 손길처럼  
영원히 마주대인 군민의 어깨처럼  
마음 맞춰 다시 놓은 다리  
이름도 함께 지은 《군민교》

바라보면  
황홀한 무지개다리처럼  
그 모습 으리으리하지 못해도

얼마나 정깊은 마음과 마음들이  
세월을 이어  
세대를 이어 오고갔던가  
별처럼 빛나는 자옥들을 덧새기며  
한가정의 문턱처럼 넘나들었던가

강변에 버들개지 필 때면  
마을의 농사일 도와주려  
병사들 노래높이 넘어가던곳  
산에 들에 열매향기 풍기면  
첫 과일 바구니에 따안고  
마을의 정든이들 넘어오던곳

마음도 뜻도 하나로 통해  
오고가는 그길우에  
힘든 일은 서로 나누어 덜고  
기쁨은 서로 합쳐 키워왔거니

강물도 사시절 기쁨에 넘쳐  
아름다운 그 정을 읊조리지 않았던가

오, 《군민교》!  
두 가슴에 억세게 뿌리내리고

오가는 정 피줄인양 모이고 엉키여  
하나의 운명처럼 이어진 다리여!  
너는 조국을 받드는 한길우에  
가를수 없는 군민의 마음을 하나로 이어주며  
드림없이 서있어라

## 1211 고지 외 1 편

송명근

누가 그 높이를 낮추려  
포탄에 부서져  
봉우리는 낮아졌어도  
너는 오늘도  
변함없이 1211 고지

깔고 넘어서려  
한메터, 한메터  
미제가 봉우리를 날려버릴수록  
너는 더 억척스레 솟구쳐오르지 않았더냐  
수류탄을 물고 일떠선 강호영의 키가 되어  
불줄기를 막아선 리수복의 가슴이 되어

오, 삼가

오늘도 뜨거운 흙을 움켜쥐나니  
이 전호를 고향집의 문턱 삼고  
한눈의 원썩도 넘겨보내지 아니한  
불굴의 정신의 높이로  
내 눈앞에 일떠서는 가슴들이여, 어깨들이여

세월의 비바람도 낮출수 없어라  
아슬한 내리막의 낭끝에 차굴린  
미제의 야망을 딛고선 봉우리여  
때없는 총포성의 화약내질은 저 남녘  
태백의 산발을 둘러보는 너는  
그 어떤 침략의 무쇠발굽도  
넘어설수 없는 존엄의 높이다

## 화 선 악 기

고지우에 숨쉬는  
모든 유기체를 사멸하려  
울부짖는 철과 불의 죄우를 거부하며  
갱도속에서 너는 울렸다  
피리여, 미제의 포화에 불탄  
박달나무로 다듬어낸 화선악기여

여섯구멍 능란히 여닫으며  
멋들어지게 불고불던 입자는 누구?  
두툼한 입술 빙글썩  
구름노전우에  
무릎 장단 잘 맞추던 전사는 누구?

묻지 말라  
종다리 우짖던 토지개혁의 발머리  
노을엿힌 교정의 백양나무 설레임...  
뒤에 두고 온  
못잊을 향취를 너는 담았거니

고향의 노래 신비한 그 가락이  
전사들을 한치도 물러서지 않게 하였음을  
알수 있었으랴  
살륙에 백발이 된 미제살인장군들이야  
피리여,  
너는 가르쳤다, 청아한 음향으로...

## 건 설 자 외 1 편

주광남

제 한몸엔  
벌겋게 쇠물녹든 작업복  
콩크리트 혼합물에 얼룩지면서도  
이 땅우엔

새 공장을 눈부시게 다듬어세우는  
그들을 존경담아 부르는 이름이더라  
언제나 한지에서

눈보라 비바람 다 맞으면서  
자동차의 불빛 정다운 일터를  
제 살림집보다 더 알뜰히 꾸려주는  
그들을 사랑 담아 부르는 이름이더라  
건설자!

부모들이 지어준 제 하나의 이름보다  
조국이 불러주는 그 이름  
하나같이 소중한 간직한때문인가  
나이와 성격은 서로 달라도  
일하는 그 성미는 하나같거니

가장 용맹한  
그 사람들을 우리 건설자라 부른다  
살얼음낀 기초구멍이에 지하수 터질 때도  
기중기의 쇠바줄이 허공에서 꼬일 때도  
서슴없이 날아들어 가슴 내대는 사람들

가장 겸허한  
그 사람들을 우리 건설자라 부른다  
강철보를 통채로 성큼 들어올리는  
그 손에 축하의 꽃다발 쥐어주면  
수집은 처녀인듯  
그 작은 꽃다발을 무거이 받아드는

수백수천의 철판들을 곳곳이 받들어  
언제한번 굽힐줄 모르던 어깨들  
조국이 그 가슴에 훈장을 달아줄 땐  
그 어깨 낮춘채 조용히 들먹이는 모습

철산으로 오르는 광부들 출근길에  
어린 일인가  
꽃치마 나풀대는 유치원 저 아이들  
설계도면 두루마리 들고가는 저 사람은  
이교장 대학의 교수라누나

정성담은 보자기 서로 맞들고  
제 집 마을인듯 웃으며 떠드는  
인민반너인들 상점판매원들...  
오르누나, 철산으로 온 광산마을이  
오르누나, 철산으로 온 무산사람들이

산이라도 철산은 올라서 보면

아, 눈물없이 우리 어찌 바라볼수 있었으랴

다 알수 없어라  
호각소리와 통장갑신호로  
의사를 주고받기 습관된탓인지  
말보다 가슴을 먼저 내대일뿐  
언제나 말수 적은 그 성미  
자신을 위한 말은 더더구나 모르는  
속깊은 그 마음

오직 하나  
조국이 부강하면 그만이기예  
당의 존엄 펼치면 그만이기예  
은혜앞엔 송구스러이 어깨를 낮추고  
받들기 위해선 그 어깨 더 높이 추스르는  
그것이더라, 건설자의 마음  
그것이더라, 건설자의 자세

그 마음 믿어  
우리 당은 장엄한 대건설을 펼치고  
그 어깨에 받들러  
로동당시대의 새 건축물들  
수풀처럼 솟구쳐오르거니

오, 건설자!  
그 이름을 자랑높이 부른다  
조국의 부강을 억척같이 떠받들어올리는  
그들이 바로 나라의 기둥이라고!  
억년 드림없을 강철대들보라고!

## 보 배 산

철산으로 오르는 광부들 출근길에  
어린 일인가  
꽃치마 나풀대는 유치원 저 아이들  
설계도면 두루마리 들고가는 저 사람은  
이교장 대학의 교수라누나

정성담은 보자기 서로 맞들고  
제 집 마을인듯 웃으며 떠드는  
인민반너인들 상점판매원들...  
오르누나, 철산으로 온 광산마을이  
오르누나, 철산으로 온 무산사람들이

산이라도 철산은 올라서 보면

고원처럼 아득한 백리 쇠돌밭  
여기 오른 사람들은 보이지 않고  
보이느니 굽이굽이 대형차행렬  
채굴계단마다엔 우뚝 솟은 회착기뿐

이 가슴엔 메아리만 울리어왔네  
철산의 숨결인듯 노래이런듯  
락광정에 쇠돌이 쏟아지는 소리  
마광기들 정답게 돌아가는 소리

들려왔네  
그 메아리속에  
광부들의 일손 돕는 녀인들의 웃음소리

운전사들 흥돋구는 아이들의 노래소리

어려왔네  
번쩍이는 쇠돌빛속에  
막장에도 맨 한끝 광부들 함께  
새 창안 익혀갈 반백의 대학교수  
열정에 타는 밝은 눈동자...

아, 당중앙의 편지 한뜻으로 받들어  
온 무산이 떨쳐오른 철산봉  
쇠돌은 더 세차게 쏟아져내리고  
웃음소리 노래소리 그 메아린듯  
정광의 폭포소리 장엄히 울리거니

철산봉!  
그 모습 새롭게 다시 보였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이 산정에 오르시여 자랑높이 불러주신  
보배산  
뜻깊은 그 이름도 다시 새겨졌네

철산을 낮춰  
조국을 더 높이 일떠세우며  
쇠돌로 땅을 받드는 한마음한뜻  
보배중에도 제일 귀한 그 보배  
언제나 굳게 뭉쳐있는 산  
아, 철산봉은 나라의 보배산이라네

## 방송차 로체우에 날아오르네

박명도

노래도 한차  
기쁨도 한차 그득히 싣고  
방송차 로체우에 날아오르네  
기중기 쇠바줄로 그네를 타며

땅에서부터  
저 높은 석회배소로까지  
제대군인 용접공총각들 옮겨갔거늘  
그들의 일모습 보이지 않아  
흥이 나지 않았다네 방송원처녀들은

그들의 이름 속보에 실릴 때마다  
그들의 사진 게시판에 나붙을 때마다  
그들의 용접숨씨 다시 보고싶어  
그들과 흥금이라도 나누고싶어

그때마다 불타오르는 가슴을 안고  
지휘부의 문 두드리기 그 몇몇번  
드디어 오늘 그 소원 풀리었다네  
혁신자들이 전투장을 옮겨갔다면  
방송차도 그들을 따라 옮겨야 한다고

그 지령 너무도 기뻐

기중기에 실려 오르던 방송원처녀들  
로체우에 오르기도전에  
허공에서 터쳐놓네 축하방송을  
용접공 그 총각들 이름을 부르며  
은방울같은 목소리로 노래를 보내네  
그들이 언제나 즐겁다던 《능수버들》을

그러자 어느새 눈치챈는가  
로상에서 꽃보라 퍼부어내리네  
그들을 환영하는 축하의 꽃보라  
기중기 타고 오르는 방송차우에  
노래 부르며 뒤따르는 그들의 머리우에

아, 200 일전투의 나날에 오가는 그 정  
온 건설장이 바라보며 환성을 보내네  
방송차가 뒤따른다!  
꽃마차가 뒤따른다!

한고지 오르면 또 한고지  
제대군인 혁신자들 가는곳이라하면  
불타는 강이라 진펄길이라  
언제나 노래를 싣고 기쁨을 싣고  
조국이 부르는 행군길 함께 가리라네

## 봄밤이야기

장기성

석양녘에 남동광산터판을 떠난 《갱생》차는 첩첩히 어겨선 산기슭을 이리저리 헤치며 평양을 향해 달리였다.

승용차 뒤좌석에는 차의 주인인 ××기관의 일군 황진철과 광산에 현지체험을 내려왔던 작가 박문혁이 타고있었다.

각기 출장용무를 마친 그들은 래일아침에 평양으로 올라갈 예정이였었다. 그랬던것을 황진철에게 긴급한 사정이 제기되어 출발을 앞당기게 되였다. 황진철의 막내아들이 간석지건설장으로 파견되어 래일아침 평양을 떠난다는 소식이 온것이였다.

《제 어머니와 누이가 어련히 바래워주겠지만 그래도 이 아버지의 훈시가 그 애에게 필요할것 같구만요.》

황진철은 이미 약속했던 출발시간을 앞당기는데 대해 미안해하며 박문혁에게 량해를 구했다.

《아니 오히려 잘됐습니다. 나 역시 차편이 있으면 오늘저녁에라도 떠날 생각을 했던걸요.》

박문혁은 밤길을 떠나는데 기꺼이 호응했다.

두사람은 남동광산에 자주 내려와 접촉하는 과정을 통하여 퍼그나 가까워진 사이였다.

차안에서의 화제는 주로 간석지건설장으로 나가는 황진철네 막내아들과 관련해서 번져졌다.

《래일은 막내아들의 인생행로에 중요한 리정점이 새겨지는 날인데 아버지로서 무슨 기념될거라도 하나 주는게 좋지 않을까요.》

박문혁은 어스름이 깃드는 차창너머로 초점없는 눈길을 보내면서 필경 아들의 모습을 그려보는듯싶은 황진철에게 말을 건넸었다.

《예, 수첩을 하나 준비해놓은게 있습니다. 아무때고 그 애가 사회에 진출할 때 주려고 당원의 의무를 내손으로 써넣을 수첩을말입니다. 사실 그거면 내가 할 소린 다지요. 한데 그런 수첩이 있다는걸 우리 집사람이 모르니 더구나 이 밤길을 가는겁니다. 우리 정수동무(운전사)를 수고시키면서. ...》

황진철은 너부죽한 얼굴에 미소를 지으며 막내아들에게 쏟아부어온 아버지로서의 원심과 기대를 은연중에 드러내놓았다.

《한데 그 애를 정작 슬하에서 떠나보낸다고 생각하니 마음 안놓이는게 한두가지가 아닌데요. 특히 그 늦잠자는 버릇을 못때준게 후회됩니다. 청년돌격대

일파에서 아침 기상동작이 매우 중요한건데...선협자인 나의 큰 실책이지요. 허허.》

사업에서는 누구보다 일욕심 많고 내밀힘이 드세여 《땅크》라는 별호가 붙은 그도 생활에 들어가는 인정이 무르고 로파심 많은 보통 아버지에게 지나지 않는것이였다.

《일없습니다. 생활환경이 변하면 자연히 각성되게 되는 법이지요, 아마 자주 집을 떠나 있는 황동무보다는 그곳 일군들과 선배들이 아들을 더 잘 돌봐줄 겁니다.》

《아, 그야 물론... 나도 다 체험해본건데.》

어느덧 승용차는 산골짜기를 벗어나 개활지대로 나서더니 오래지 않아 벌판 한가운데로 뻗은 큰길로 접어들었다.

길가의 논과 벌들은 어제오늘사이 봄갈이를 한듯 알릴듯말듯한 이랑을 이루어 검푸릿하게 번져져있는데 그 흙바디들에서 피어오르는 땅김이 감빋 저녁노을의 조명을 받아 신기루인양 사물거리며 눈길을 잡아끌었다. 길과 같은 방향으로 뻗은 관개수로와 거기서 가지쳐간 보도랑물에서도 희뿌연 안개발이 솟아올랐다. 봄을 맞는 농장벌우에 차흐르는 싱그러운 흙냄새와 비릿한 물냄새가 유리를 내려놓은 차창으로 흘러들어 폐장을 은근하게 자극했다.

검푸른 하늘에는 못별들이 깜빡깜빡 눈을 뜨기 시작하고 트락트르들의 발동소리가 여기저기에서 장단맞게 울려온다.

아, 좋은 봄밤이다! 박문혁은 저도 모르는새 봄밤의 정서에 취해들어 그 누구와 한껏 푸근히 부풀어오른 저 거만한 벌과 미구에 벌어질 모내기전투에 대하여, 시적인 이 봄밤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고싶은 충동을 느꼈다.

그는 황진철이쪽으로 시선을 돌렸으나 입을 열지는 않았다. 아들에 대한 생각에 묻혀 달리는 차보다 앞질러 집으로 마음달릴 황진철에게 봄에 대해 이야기한다는것이 얼마나 가당찮은것인가 하는 생각이 피뚝 뇌리를 스친것이였다.

그래 다시 차창밖으로 눈길을 옮기는데 의외로 황진철이쪽에서 말을 걸어왔다.

《작가동무, 내 한가지 긴요한 부탁이 있습니다. 남동광산에 새로운 수직갱공사를 시작하자니까 청장년로력문제가 긴장된단말입니다. 이 로력문제는 물

론 행정적 조치로 풀어야 할 문제이지만 요는 청장년들이 스스로 그 어느 부문보다 광산이 제일 중요하니 거기로 가야 한다는 자각을 가지게 하고 광산에 일단 배치되면 거기에 튼튼히 뿌리를 내리도록 하는 겁니다. 행정적 조치만으로는 원만히 풀수 없는 이 문제를 작가들이 풀어주시오. 형상으로 인식시키고 공감시켜달란말입니다. 노래도 광부들의 입에서 제절로 흘러나오는 그런걸 써주고요.》

역시 광업부문 지도일군다운 부탁이다. 오직 자기 맡은 사업, 쇠돌생산에만 전념하는 사람, 지금 그의 머리속은 래일아침 간석지로 떠날 막내아들생각과 남동광산 새 수직갱 건설에 대한 생각으로 꽉 차 있을것이다. 그외의 일은 그의 안중에 없을것이다.

박문혁은 이렇게 생각하며 머리를 끄덕였다.

《예. 저도 그래서 광산에 자주 내려가는데 의도대로 글이 잘 되겠는지 모르겠습니다.》

《되도록 빨리 써주시오.》

황진철은 광업부문에 대한 사회적 관심, 사회적 지원이 매우 필요하다는 소리를 다시금 강조했다.

어느새 날은 더 어두워져 승용차는 전조등을 켜고 내달렸다.

싱그러운 흙냄새, 두엄냄새, 비릿한 물냄새가 여전히 흘러들었다. 그런데 트랙토르의 발동소리만은 점점 뜨음해졌다. 일격에 모든 발에 트랙토르를 붙일수는 없을것이다. 박문혁이 눈여겨보니 승용차는 지금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군과 군사이 지경길을 달리고있었다.

얼마간 더 달리는데 문득 트랙토르의 발동소리가 다시 울려왔다.

승용차가 달리는 저 앞쪽에서 트랙토르 한대가 논밭을 갈고있는것이 그 전조등빛으로 하여 인차 눈에 띄었다.

탕탕거리는 트랙토르의 엔진소리가 전에없이 귀맛 좋게 들려오는듯했다.

승용차와 트랙토르사이가 점점 가까와져갔다.

트랙토르가 행길가녀까지 나왔다가 보습을 들고 돌아서는 모습이 승용차의 전조등빛에 환히 드러났다.

다음순간, 트랙토르는 웬일인지 흙뿔 동체를 떨며 멈춰섰다.

( ? )

박문혁의 눈길은 어겨지나치는 그 트랙토르에 못박혔다.

《가만, 차를 세우오.》 하는 황진철의 목소리가 울린것은 바로 그때였다.

그도 트랙토르가 불시에 멈춰서는것을 띄어보고 무엇인가 비정상적인 일이 생겼다는것을 직감한 모양이었다.

《정수동무, 내려서 알아보자구. 뭐 도와줄 일이 없겠는지.》

《예, 제가 제격 알아보겠습니다. 그냥 앉아계십시오.》

젊은 운전사는 민첩한 동작으로 차에서 내려 방금 지나친 뒤쪽의 트랙토르에로 뛰어갔다.

그는 오래 지체하지 않고 돌아왔다.

《앞바퀴 한짝이 터졌습니다. 수명이 거의 다 된것을 끼웠던모양인데 다이야와 주브가 동시에 터져나가 때고 어찌고 할 형편이 못됩니다.》

운전사는 제자리에 올라앉았다.

《예비바퀴는 없고?》

《예,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지요?》

《…》

운전사는 대답을 못했다. 도와줄 형편이 못된다는것만 확인하고 돌아선것이였다.

《알아보고 가자구, 관리위원회 창고에 가서 새 바퀴를 가져올수 있다면 우리 차로 한탕 해주고…》

황진철은 운전사에게 의논조로 말하며 차에서 내렸다.

《그냥 차에 있으십시오. 내가 다시 가보겠습니다.》

《함께 가보기오.》

황진철이 트랙토르쪽으로 향하자 박문혁도 덩달아 따라나섰다.

트랙토르는 전조등을 켜채로 굳어져있었다. 트랙토르운전수는 훌쩍 내려앉은 오른쪽앞바퀴옆에 쭈그리고 앉아 어기찬듯 멍하니 들여다만 보고있었다.

《어디 가서 바퀴를 가져올데가 없습니까?》 황진철이 물었다,

《예, 농장창고엔 예비가 없습니다. 군농기계작업소에서 가져와야겠는데 거긴 60리 길인데다 지금은 밤이어서 가망이 없습니다.》

나이가 어지간히 들어보이는 트랙토르운전수는 길손들의 뜻밖의 관심에 호의를 느끼며 안타까운 심정을 드러내놓았다.

《이거 참 야단났습니다. 오늘 밤같이를 못하면 뒤공정들이 다 드릴텐데… 후-》

트랙토르운전수의 긴 한숨소리는 듣는 사람들의 가슴도 안타까움에 젖게 했다.

《…》

《…》

《그래 두 무슨 방도가 없을까요?》

황진철이 다시금 프락포르운전수에게 말을 건넸다.

《...》

프락포르운전수가 입을 열지 못하자 또다시 침묵이 흘렀다.

《그만 갑시다.》

침묵을 깨친것은 승용차운전사였다.

그 말을 좇는수밖에 없었다. 더 머물러있을 필요가 없는것이였다.

《그럼 프락포르 운전수동무는 어떻게 하겠소?》

황진철은 못내 마음이 놓이지 않는듯 걱정어린 어조로 물었다.

그러는 황진철을 박문혁은 새삼스러운 눈길로 바라보았다. 참 인정있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다.

황진철은 승용차에 올라서도 뒤창너머로 멀어져가는 고장난 프락포르쪽을 바라보았다.

황진철이 그러는 모양을 후사경을 통해 띄어보며 운전사가 지나치는 소리로 한마디 했다.

《내가 예비다이야를 차고왔다면 하나 빌려주는건데. ...》

《아니 뭐라고? 그럼 우리 차바퀴와 프락포르앞바퀴 규격이 같소?》

황진철이 즉시 묻는 소리였다.

《예, 똑같지는 않지만 프락포르에 쓸수는 있습니다.》

《그래?!》 황진철의 목소리는 일순간 환성조로 커졌다.

《정수동무, 그럼 차를 돌리오.》

《예?》

젊은 운전사는 의아해하며 차의 속력을 늦추었다. 어리둥절해지기는 박문혁도 운전사나 마찬가지였다.

《정수동무, 저 프락포르에 우리 차바퀴를 떼주어 논발같이를 계속하게 하자구. 논을 갈지 못해 안타까와하는 그 프락포르운전수를 그냥 두고 갈수 없지 않나. 그 논밭을 오늘밤에 갈아엎어야 뒤이어 물을 대고 씨레를 쳐서 그다음 얼마 있다가 모내는 기계를 순차대로 붙이게 될거요

그래서 그렇게 안타까와하겠지.》

《...》

운전사는 대답없이 길가녁에다 차를 멈춰세웠다.

《다른 일은 어찌다가 오늘 채 못하면 래일 보충할 수 있지만 농사일이란 절기를 놓치면 다라고 하지 않소, 작가동무,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야 그렇지요.》

박문혁의 입에서는 저절로 수궁하는 목소리가 울려나갔다.

《아, 그런데 차를 여기 남기면 작가동무가 못가게.》

황진철은 말끝을 채 맺지 못하였다. 그러면서 잠시나마 박문혁의 존재를 잊고 한가지 생각에만 몰두했던 자신을 민망해했다.

《아니 난 일없습니다. 황동무!》

급히 황진철의 말을 받는 박문혁의 가슴은 뜨거워올랐다. 길을 가다가 우연히 눈에 띄인 고장난 프락포르를 두고 저렇게 마음쓰는 사람이 어디 쉬운가.

《리해해줘서 고맙습니다, 작가동무.》

황진철의 음성은 마치 큰 도움을 준 사람에게 그러듯이 감사의 정에 젖어있었다.

이때 불만조를 띤 운전사의 말소리가 울렸다.

《그러면 부부장동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명진이 간석지에 가는건 안바래주요?》

《...》

황진철은 잠시 말이 없다.

《그냥 갑시다. 그 프락포르가 하루밤쯤 못움직인다고 여기 농사가 크게 잘못되겠습니까, 명진이가 아버지일을 못보고 떠나게 되면 얼마나 서운해하겠습니까, 그러구 수첩두 쥐야 하지 않습니까.》

《...》

황진철은 운전사를 마주 바라볼뿐 인차 응대하지를 못했다.

잠시후에야 그는 다시 입을 열었다.

《정수동무, 나는 삼정역에 가서 기차로 올라가겠소. 그러니 내 걱정은 말구 수고스러운대루 프락포르 운전수를 도와주오. 바퀴를 떼붙여준 다음에는 차안에서 자구.》

《나야 크게 수고할게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삼정역까지가 얼마나 멀다구요. 20 리는 더 될겁니다. 그리고 차시간도 잘 모르는데 래일아침까지 평양에 가닿기나 하겠습니까.》

《그건 일없소. 만약 기차시간이 안맞으면 그곳 체신본소에서 전화를 하지, 우리 집엔 전화기가 있지 않나.》

《...》

운전사는 그만 입을 다물고말았다. 한번 하자고 결심하면 좀처럼 물러설줄 모르는 부부장의 성미를 잘 알기때문이었다.

《그럼 차로 삼정역까지 갑시다.》

운전사는 제잡담 차에 발동을 걸었다.



《아니, 도와줄바엔 지금부터 도와주자구. 제일처럼! 수령님께서 언제나 마음 쓰시는 농사일인데. …》

《!! …》

《!! …》

황진철은 말을 이었다.

《이쪽에서 평양으로 들어가는 기차는 새벽녘에 있는 모양이니 빨리 가나 천천히 가나 같고같지. 오랜만에 벌판길을 걷는 재미도 있을거요. 내가 삼정체 신분소에서 농장관리위원회에 여기 실태를 알려주겠소. 그럼 내 먼저 가겠소, 수고하라구.》

황진철은 제먼저 차에서 내리며 박문혁에게 뽕조로 말을 이었다.

《작가동문 길동무를 잘못 만나 밤길을 걷게 됐구만요.》

박문혁은 뒤따라 내리며 진정어린 어조로 응수했다.

《천만에요. 길동무를 잘 만나 의의있는 봄밤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박문혁은 황진철을 자기 말은 사업, 쇠돌생산밖에 모르는 일꾼으로 속단했던 자신을 탓하며 선망의 눈길로 그를 바라보았다.

일욕심 많은 사람, 나라일에 내 할 일, 남이 할 일 가리지 않는 일꾼!

이어 승용차는 오던길을 되돌아 꼬리등을 깜빡이며 프락프르를 향해 달려갔다.

좋은 봄밤이었다.

## 연공들이 사는 집

안병모

크지 않은 집이다  
작업반동무들 모두 모이면  
겨우 비집고 앉아야 하는  
열다섯 연공들이 나드는 집  
야금기지건설장구내에선  
어디서나 흔히 보는  
수수한 건설자들의 집

주소도 문패도 없다  
수시로 바뀌어 나붙는 속보가  
위훈속에 바빠 사는  
집주인들이 누구인가를 짐작케 할뿐

내리는 눈비를 다 맞으며  
벌겋게 녹이 내뺀 지붕우로  
흘러간 나날은 그 얼마던가  
자주 새 일감을 맡아안고  
일터를 옮기는 주인들을 따라  
한해에도 그 몇번  
기중기에 통채로 들리워갔던가

세찬 바람에 모래만 날리던  
여기 십리 사봉벌 가득  
대형용광로를 일떠세우고  
전로장과 압연장들을 넓혀가며  
쉽없이 달음쳐온 대건설의 나날이어

헐치않았던 그 나날들에  
이 작은 철집에서  
책상물림의 애송이견습공들  
기술혁신의 명수로 자라

사람들을 놀래우는 창안을 내놓고  
발명가가 되고 영웅이 되고…

이 작은 철집에서  
제대군인총각의 혼사가  
작업반원모두의 관심속에 결정되고  
출생하는 첫 아이들의 이름이  
연공들의 호탕한 웃음속에 지어졌다

백병전을 벌리는 화선에서처럼  
전투에서 전투어로 내달리며  
젊은 연공들의 입당을 결정하는  
투박한 주먹들이  
낮은 천정을 치받고 숫구쳐올랐다

아, 집이여  
연공들이 사는 작은집이여  
마치도 끝끝한 아들딸 키워  
나라를 받드는 기둥으로 내세운  
소박한 어머니 모습과도 같이  
드넓은 대야금기지가득  
우람찬 건물들은 숲을 이루어도  
너만은 옛모습 그대로  
건설장 한구석에 서있구나

영웅도 박사도 제 집에 들어오면  
한가정의 평범한 식구가 되듯이  
사람들을 놀래우는 기적도  
온 나라가 자랑하는 영웅적 위훈도  
그토록 평범한것으로 간직한  
우리 연공들이 사는 작은집이여

## 《1 번수》

김정남

## 1

쟁구를 나선 박태준은 전차길옆으로 터벅터벅 발걸음을 옮겨놓았다. 광차를 달고 막장으로 들어가는 전차가 병곳 푸른 섬광을 날린다.

그러면 어둠에 잠긴 대지가 확 밝아지면서 전차의 거뒀한 동체와 레루가 드리났다가는 일순간에 자취를 감추어버린다. 순간이 지나자 전차소리는 멀리로 사라지고 저쪽 검탄실에서 어둡시근한 불빛이 흘러나와 대피선에 서있는 광차들과 로반을 비쳐준다.

박태준은 막장을 떠날 때 가슴을 무겁게 하던 생각이 되살아났다.

(둘째가 깨나지 못했을까?… 안해가 퇴근했으면 깨웠겠는데…)

태준이가 집에서는 둘째라고 부르는 호남은 두달 전에 고등중학교를 졸업한 청년굴진중대의 굴진공이다. 합숙관리원으로 일하고있는 안해 옥너는 퇴근시간을 어긴 일이 별로 없었다. 교대작업을 하는 아들들을 깨워 시간맞춰 일터로 보내기 위해서도 문화회관에 새 영화가 와도 오금이 떠서 집으로 드달려온다는 안해였다…

태준이 신발을 털며 마당으로 들어서는데 안해가 부엌문을 열고 내다보았다.

부엌에서 뜬김이 뽕얇게 밀려나왔다.

태준은 행주치마에 젖은 손을 닦으며 종종걸음으로 걸어나와 다가서는 안해에게 가방을 내밀어주었다. 가방을 받아든 안해는 눈가에 웃음을 짓고 반겼다.

눈귀에 잔주름이 잡힌 옥너는 50 고개를 바라보고있지만 함박꽃무늬가 새겨진 달린 옷을 입고 정찬미소를 보낼 때면 아직도 젊은 시절의 모습이 남아있었다.

《했수수를 능귀 당신이 좋아하는 당콩범벅을 했수다.》

《했수수? …》

태준은 술진 눈섭을 치뜨고 안해를 쳐다보았다.

태준은 둘째가 일을 나갔어도 안해의 다심한 정을 받아주었을지도 모른다.

지금 호남이 소대원들은 울리굴을 뿔느라고 일을 세차게 해대고있었다.

태준은 아래방문을 열고 방안으로 들어갔다. 새로 장판을 한 방바닥은 닭알노란자위처럼 알른알른

윤기가 돌았다. 벽에 걸린 해보도 눈덩이 같다. 사이문을 열어놓은 옷방 침대우에 호남이가 자고있다.

《둘째가 밤대거리라는걸 몰랐소?》

《그 애 형이 늦게 나오라고 했다질 않소.》

옥너는 심사가 좋지 않아하는 남편에게 변명조로 대꾸하였다.

《누가? 길남이가?》

《예… 좀더 자게 내버려두라요.》

길남이는 청년굴진중대 초소장 임무를 수행하고있는 호남의 형이다. 옥너는 새침했던 기색을 농치며 아들을 두둔해나섰다.

그랬으나 태준은 엄한 기색을 풀지 않고 말했다.

《깨우오.》

《아니 곤하게 자는 애를…》

《소대가 지금 어떻게 일하는지 알기나 하구 그러우?》

옥너는 말없이 옷방으로 올라가 호남이를 깨웠다.

《애야 일어나거라.》

《야-어머니, 조금만 더 자자요.》

호남이의 늘어진 대답소리에 이어 소곤거리는 안해의 목소리만 들렸다. 잠시후 호남이가 일차비를 하고 아래방으로 내려서며 아버지쪽을 흘끔 곁눈질하고는 그걸을 슬그머니 지나가려고 했다.

《섰거라!》

아버지가 멈춰세우자 못박힌듯 서버렸다.

《안전등이 왜 그 모양이냐?》

호남은 옆구리의 안전등을 옷자락으로 감쌌다. 그는 앞으로 내민 아버지손우에 할수없이 안전등을 놓고 비켜섰다.

안전등을 들고 눈여겨보는 태준의 술진 눈섭꼬리가 움썹거렸다. 거울갈아야 할 화면은 얼룩얼룩했고 안전등고리는 어디다 부딪쳤는지 온통 찌그러졌다.

안전등은 탄부의 량심을 비쳐보는 거울이다.

《때가 켜어.》

《요즈음 그 애가 어디 안전등을 닦을 새나 있소?》

옥너는 조심스레 두둔해나섰다.

《괜히 자꾸 그래놓지 말라구. 제가 할일이야 어련히 해놓아야지. 안전등은 그 사람 마음이야.》

옷방으로 올라간 태준은 변쩍거리는 안전등을 들고 내려왔다. 태준의 손때가 묻은, 청년탄광을 개발하던 때부터 써오던 안전등이다.

그때 태준은 청년개발자로 첫 발과심지에 불을 달았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혁신자인 그를 탄광의 《1 번수》라고 불렀다. 태준을 탄광의 《1 번수》라고 부르게 된것은 청년탄광개발자로 첫 발과심지에 불을 다는 영예를 지냈기때문이기도 하지만 보다는 그가 언제나 혁신의 앞장에서 달려나가고있었기때문이었다.

첫 발과심지에 불을 달 때 막장안을 환히 비쳐준 그 안전등, 태준은 어느 하루도 그 안전등을 닦지 않고서는 잠자리에 들지 않았다.

아버지에게서 안전등을 받아온 호남은 죽지 부러진 새모양 어깨가 처져서 밖으로 나갔다.

《에그 옛그제까지 학교로 다니던 애가 청년굴진중대에 들어가지고...》 하고 옥녀가 걱정스레 웅얼거렸다.

《청년굴진중대가 어쩔다구 ? 》

《그때문에 골머리를 앓을가봐 그래요...》

《골머리야 아프겠지. 그래 그제 대순가.》

《그렇지 않고요. 광수, 그 아재는 당신한테 의견이 있어두 말은 못하고 두진이때문에 속앓이를 하는가봐요. 당신이 그 옛 청년굴진중대에 들어오게 했으면서. 게다가 요즈음엔 두진이를 둘러싸고 뽀뽀한 소리까지 들리는데 좀 봐가면서 일하라고. 더군다나 이젠 나이가 있지 않나요. 몸두 생각해야지요. 젊었을적엔 <1 번수>였지만 지금은 안돼요. 》

《그제 날 위한 소리요? 청년탄광을 개발할 때 일했던 당신의 입에서 그런 소리가 나오다니? 당신은 내가 낡시대나 흔들구 다니면서 한가하게 돼야 속편하겠소? 영 판판이 됐군.》

태준은 심사가 좋지 않았다. 두진이란 광수의 아들이다. 광수는 두진이를 다른데로 빼돌리려 하고있다는것이다.

게다가 안해마저 광수와 한동아리가 되어 맞장구를 치고있다고 생각하니 태준은 참을수 없었다.

그는 가방을 들고 일어섰다.

《아니 쉬지 않고...》

옥녀는 애원이 담긴 눈길로 남편을 멈춰세우려 했지만 헛된 일이었다.

## 2

사철 허리에 흰구름을 감고있는 백운산골짜기를 덮었던 안개가 걷히는 모양, 등성이우에 설치한 투광등이 휘윽스름하니 빛을 뿌리고있다. 태준은 갱구를 향해 터벌터벌 걷고있었다. 다심한 안해의 지청구라고만 생각할수 없는 그의 말이 귀전에서 맴돌이를 하며 사라지지 않았다. 청년탄광을 개발하여 온 나라에

이름을 떨친 청년개발자! 청년개발자의 영예는 피끓는 청춘시절만이 아니라 삶의 매 순간마다에서 빛나도록 해야 할것이 아닌가.

더우기 태준은 숨은 공로자들에 대한 기사를 신문에서 읽을 때마다 자신의 생활을 다시금 돌이켜보곤하였었다.

탄광의 《1 번수》였던 자신이 50 줄에 들어서면서 갱내일을 그만두고 안전기술과로 옮겨왔것이 못내 씁스럽게 생각되었다. 숨은 공로자들처럼 살지 못했다는 생각이 그의 마음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다. 하여 그는 당위원회를 찾아가 고등중학교를 졸업하고 이곳에 배치되어온 새 세대들로 청년굴진중대를 무어줄것을 제기한것이 두달전이었었던것이다 ...

태준은 운반갱도로 걸어들어갔다. 태준의 앞을 밝혀주는 안전등불빛이 춤추듯 흔들거리며 갱도바닥을 비쳤다가는 천정으로 옮겨가곤하였다.

여러 막장으로 전차길이 갈라져들어간 권입장구에 이른 태준은 걸음을 멈추었다. 채탄막장으로 들어가는 전차선에 광차들이 길게 늘어섰다.

광차를 일별하던 태준은 전철기쪽에서 들려오는 말소리가 귀에 익어 그쪽으로 다가갔다.

《청년굴진중대 막장으로 전차를 몰라구요. 》

《안돼요. 》

전철기를 굴진막장쪽으로 제껴놓고 전차운전공에게 위엄스레 요구하고있는 청년, 그는 아버지한테 꾸지람을 듣고 일터로 나온 호남이다. 전차운전공치너는 호남의 기세에 호락호락 급혀들것 같지 않았다.

《전철기를 도루 제껴놓고 비켜서라요! 》

《지금 우리 청년굴진중대가 광차때문에 목이 뻗단말이요. 그래 우리가 전진하지 못해도 좋겠소? 》

《여하튼 난 그런 지령은 못받았어요. 어서 비키세요! 》

치너는 오돌찬 목소리로 내쏘았다.

그래도 호남이가 비켜서지 않자 전차를 전철기쪽으로 썩 내몰았다가 뒤로 물러서며 위협했다. 그렇다고 물러설 호남이가 아니었다. 초소장에게서 광차를 끌어오라는 과업을 받고 권입장으로 나온 호남은 때마침 광차를 달고 달려오는 전차 운전공을 띄여보자 이게 웬떡이냐고 입이 함박만해졌었다. 어떤 수를 써서라도 전차를 막장으로 끌어가야만했다.

《어째 좀 녀살을 먹어봐야 알겠어? 》

호남은 전차길에 배심줄게 툭 버티고섰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태준은 아들결으로 다가갔다.

《길을 열어주어라! 》

갑자기 짹막한 아버지의 부르짖음이 등뒤에서 울려오자 호남은 흠칫했다.

뒤이어 전철기가 뼈꺼덕거리며 반대로 제격 제껴졌다.

운전공처너는 호남이가 주눅이 들어 엉거주춤 서 있는 옆으로 전차를 몰아가다가 얼굴을 빠금히 내밀고 《미안해요! 청년굴진중대 다음 차례예요!》 하고는 상긋 웃더니 전차를 썩 몰아갔다. 광차의 뒤꼬리가 시야에서 사라진 권입장은 다시 고요해졌다.

《청년굴진중대는 일 잘하자고 무슨 중대가 아니냐. 네가 일을 제끼자구 하는건 좋은데 그렇게 성급하게 굴면 되려 일을 그르치게 할수 있지 않냐.》

태준은 아들을 민망스럽게 바라보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타일렀다.

《그럼 어떻게 해요? 광차에 목이 뻐다고 형이 올려줬는데 할수 있어요.》

《그거야 광차를 빨리 오게 하라구 널 보낸거지 다른 막장으로 가게 된 광차를 무작정 끌어오라고 한건 아니겠지.》

태준은 호남이를 쳐다보며 시무룩이 웃었다. 그는 뒤늦게 일터로 나온 호남에게 광차를 끌어오라고 성급하게 굴었을 길남의 모습이 눈앞에 보이는것만 같았다.

어쩌면 생김새가 비슷한 두 아들이지만 성격은 판판 대조적일까? 길남은 일을 제끼는데서 몸을 아끼지 않았으며 요구성도 높았다. 그런데 호남은 일에 몸을 잠그지 않고 힘들어하며 마음 내키는대로 행동한다.

《교대지령장한테 전화를 걸어봤나?》

《아니요.》

호남은 말끝을 맺지 않고 얼버무렸다.

된옥을 먹을줄로만 생각하였는데 뜻밖에도 부드러운 아버지앞에서 어깨가 살아오른 호남은 안전등을 밝게 해놓고 물었다.

《아버지, 쉬지 않고 왜 또 나왔어요?》

태준은 코등이 시큰했다. 그는 아버지 걱정을 앞세우는 아들이 대견했다. 그러나 정색해서 이렇게 타일렀다.

《넌 그런 걱정보다두 네 일이나 채심하구 착실히 배우는게 시제 당장 급한거다.》

태준은 권입장에 설치된 전화기에서 수화기를 벗겨들고 교대지령장을 불러내어 청년중대에 광차를 넣어달라고 말하고 호남이쪽으로 돌아섰다.

아버지와 아들은 막장으로 뻗어있는 전차길 량옆, 청년굴진중대원들의 발자국이 찍혀져있는 길로 나란히 걸음을 옮겼다. 말없이 걷는 태준이었으나 방금전에 안해에게서 광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다음부터는 체기를 받은 사람처럼 무엇인가 가슴속에 맺혀 내려가질 않았다.

고속도굴진공으로 앞장에서 달려나가던 그때에 함께 착암기를 잡았던 광수, 갱도에 물동이 터졌을 때에는 한 어깨로 방틀을 짊어 갱도를 살려낸 광수,

축하의 꽃다발을 받은날밤에는 집으로 찾아와 고속도굴진공으로 이끌어준 고마움을 잊지 않겠노라고 외우던 광수가 아니었더라만인가...

다른 사람이 그랬다 해도 모르겠는데 광수가 그랬다는것이 더욱 가슴아프게 하였다.

막장에 당도할 때까지 아버지와 아들은 말이 없었다. 굴진공들은 버럭더미위에 퍼더버리고 앉아서 휴식을 하고있었다.

《호남이가 온다!》

누구인가 앞서오는 호남이를 보고 소리를 질렀다.

《저보라구, 빈털터리야?》

청년들은 저마끔 시가슬렸다.

《중대장동지다!》

모두 용수철에서 튕겨나듯 벌떡벌떡 일어섰다.

태준은 안전등을 밝게 해가지고 천반을 깐깐스레 살피나갔다. 막장에 들어오면 락반이 질 위험이 없는가부터 살펴보는 태준이었다. 작업장안의 안전상태를 확인한 태준은 안전모를 빼딱하게 눌러쓰고 초소원들을 한줄로 정렬시키고있는 길남이쪽으로 돌아섰다.

태준은 초소원들을 일별하고나서 초소장에게 일을 시작하라고 지시하였다.

《작업시작!》

구령을 주고난 길남이는 먼저 착암기부터 잡았다. 그는 푸들거리는 착암기를 가슴에 안고 암반으로 다가갔다. 받침대를 잡고있는 보조착암수의 손은 툄동적으로 후들후들 떨렸다. 채포래의 초소원들을 이끌고 일을 걸싸게 해제끼는 길남이의 작업모습을 지켜보는 태준의 너부죽한 입가에는 미소가 비겼다. 한해전에만 하여도 착암기하나 다루지 못해 중대장의 애를 먹였다는 만이가 언제 저렇듯 자랐을가싶었다.

《착암수 교대!》

태준이가 길남이 곁으로 다가서며 소리쳤다.

길남은 보조착암수에게 착암기를 넘겨주고 한걸음 물러섰다.

착암기를 받아안은 보조착암수는 자신이 없는지 머리만 기웃거렸다. 보조착암수가 공기변을 열었다. 순간 착암기는 팡팡팡! 기관총을 쏘는듯한 귀따가운 소리를 내지르며 착암수를 밀어뿌릴듯이 몸부림을 쳤다. 보조착암수가 두팔을 뻗디디며 안간힘을 썼지만 착암기는 고분고분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 길남이가 다시 착암기를 받아안고 암반을 뚫어나갔다. 중대장이 지켜보는 앞에서 채포래가 밀려나는것을 본 청년들은 버럭더미로 다가갔다. 이때 전차운전공이 약속을 어기지 않고 광차를 들이밀었다. 광차에 버력을 퍼시는 적재기운전도 서둘렀다, 약바르고 눈썰미가 있다는 청년이 적재기를 운전하는데도 버력이 더러 광차밖으로 쏟아졌다.

그래서 로반우에 쏟아진 버력을 삽으로 쳐내고 광차를 뽑아내군하였다.

그러자니 힘은 곱절이나 들었다. 청년들은 중대장이 지켜보고있기에 땀방울을 흘리면서 수격수격 삽질을 했다. 태준이가 버력적재기운전을 배워주면서 버력을 반반히 광차에 실어 전차를 떠나보냈을 때 길남이도 천공작업을 끝냈다.

태준은 시계를 보았다. 아무리 다그친다고 해도 동발을 세우고 다음 교대에 막장을 넘겨주자면 어렵도 없었다.

땀배인 이마를 흘리면서 시름겨운 눈길로 막장안을 바라보는 태준의 마음은 무거웠다.

(내가 공연한 일을 벌여놓은것이 아닌가? 아직 착암도 제대로 못하는 동무들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그를 괴롭혔다. 그러나 태준은 머리를 흔들었다. 그는 청년들을 일별했다. 얼굴생김이 다름뿐 키도 몸집도 어슷비슷하다. 길남이를 내놓고는 도토리 키대보기다. 청년들을 바라보는 태준은 이들을 이끌어주기만 한다면 무슨 일이든지 못해낼 일이 없는 탄부로 될 것이라는 생각이 강하게 뇌리를 때렸다.

바로 이들이 청년탄광을 떠메고 나갈 기둥으로 돼야 할 청년들이 아닌가!

태준은 빨리 이들에 대한 기술전습을 시작해야겠다고 마음다졌다.

번거롭던 그의 마음은 씻은듯이 가셔졌다. 태준은 입가에 웃음을 띄우고 청년들에게로 다가갔다.

### 3

태준은 줄곧 막장에 붙박혀있다가 교대시간이 되자 갱구를 나섰다. 집을 향해 부리나케 걸었다.

태준이 마당으로 들어서는데 옥녀가 기다렸다는 듯이 부엌문을 열어젖히고 반겼다.

《아니 오늘은 어떻게 된 일이에요? 이렇게 일찍 들어오시니...》

《오늘밤 청년중대원 부모들과 모임을 가지겠다고 하지 않았소?》

그것은 이미전에 태준이가 당위원회를 찾아가서 합의를 보았던 문제였다.

《참 그랬던가요?》

《당신도 늑장부리지 말고 어서 차비를 하오.》

《나도 그 모임에 참가해요?》

《당신은 뭐 탄광개발자들중의 한사람이 아니요?》

《예구 원, 이제사 나야 성쌍고 남은 둘인데 애들 시중이나 들면 되는거지요... 남들이 웃겠수다.》

옥녀는 정찬 눈길로 남편을 쳐다보더니 부엌으로 들어갔다.

그러는 안해를 실눈으로 바라보는 태준은 심사가 좋지 않았다.

30 여년전, 그때를 어떻게 잊을수 있으랴. 당의 부름을 받들고 민청중앙위원회 파견장을 가슴에 지니고 꽃보라에 묻혀 평양역을 떠날 때 태준은 20대의 끼곳한 청년이었고 안해 옥녀는 외태머리 처녀였다... 그런데 이제 와서는 성쌍고 남은 둘이라구? 생활이 풍족해지고 아들이 커가니 그들의 덕을 보면서 살아가겠다는거군, 한심두 하지 ...

태준의 가슴은 납덩이에 눌려온것처럼 무거웠다. 그길로 태준은 다시 갯사무실에 들렀다가 청년굴진중대휴계실로 갔다. 텔레비존을 보고있던 사람들의 눈길이 태준에게로 쏠리었다. 태준은 환하게 웃으며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모두 낮이 익고 친근한 사람들이었다. 탄광을 개발할 때부터 함께 일해온 사람들이여서 모여앉으니 뜨거운 정이 가슴에서 넘쳐나는것이였다.

어느사이에 들어왔는지 옥녀는 뒤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서 입을 다물고있었다. 태준은 자리에서 일어나 사람들을 둘러보았다. 광수가 보이지 않았다.

《이제부터 <학부형회>가 시작되나 보이.》

뒤쪽에서 누구인가 던진 말이 웃음을 터쳐놓았다.

《자, 이거 룡담은 그만하자구요. 중대장동무의 말을 들어봅시다.》

조용해졌다.

태준은 광수가 나타나면 시작하려고 했는데 더 기다릴수가 없게 되었다.

안해의 일이 범상치 않다고 여기고있던 태준은 광수가 종시 나타나지 않아 마음이 여간 좋지 않았다. 그러나 그런 내색은 나타내지 않고 말을 시작하였다.

《그전날 탄광을 개발했던 여러분들을 모여달라고 한것은 우리 청년굴진중대원들에게 기술전습을 주었으면 해서입니다.》

더 말하지 않아도 알겠지만 이 상태로는 일을 제대로 할수 없습니다. 집에서 좋고 청년굴진중대막장에 찾아와서 기술전습을 주어도 일없겠습니다.》

태준의 말은 방안을 술렁거리게 만들었다. 제일도 바쁜데 언제 시간을 내어 막장에 찾아가 기술전습을 주겠는가하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들이 이제 배워가지고 언제 따라가겠는가하고 하는 사람도 있는것이다.

《자 결정을 지읍시다. 밤새껏 말공부질이나 하다 말겠소.》 하고 누구인가가 버럭 소리를 질렀다.

《우리가 개발한 탄광을 떠메고나갈 탄부들을 키워내는 일인데 아무럼 강건너 불보듯할가원,》

《아무렴 그렇구말구!》

태준은 지금 청년굴진중대의 애로에 대하여 실례를 들어가면서 조리있게 말했다. 그리고는 자기 아들 딸들을 탄부의 자식답게 특히 전날 부모들이 탄광을 개발할 때 모든 고난을 뚫고 일해나갔던 그 정신, 그 기백으로 자기 자식들을 이끌어주어야 한다고 오금을 박았다. 기술전습을 근기있게 밀고나갈데 대해 락착을 지었다. 이로써 모임은 끝났다. 태준은 사람들을 바래주고 휴게실로 들어왔다.

안해는 그런듯이 오도카니 앉아있었다.

《거 이상하군. 광수동무가 오지 않다니 ?...》

《광수아재가 오지 않을게웨다.》

안해는 시무룩해지며 혼연히 한마디 던졌다.

《무슨 소리요? 내가 막장에 찾아가서 말을 했는데.》

《두진이때문에 속상해하는데 오겠나요.》

《그 사람 진속을 알지도 못하면서 아무말이고 탕탕...》

《당신은 두진을 괜히 붙들어두고있어요. 난 당신이 다 생각이 있어 그러는줄은 알지만 광수아재 의견도 참작해서 제 뜻대로 해주랴요. 공연히 말을 들을거나 있어요. 그리구 보랴요. 우리 호남이만 봐도 그렇지요. 탐사대에 가게 된 애를 청년굴진중대에 넣었는데 길남이가 여기서 일하면 됐지 그 애까지 탄광에 넣지 않는다고 누가 뒤통가락질을 하겠나요.》

태준은 입을 꼭 다물고 눈귀를 쪼프렸다. 그러자 옥너는 한술 더 뜨며 이제껏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말을 다 쏟아놓았다.

《여보, 제발 광수아재 의견대루 두진을 놔줘요.》

《자꾸 그 소리요! 이제보니 당신은 병이 들어두 단단히 든 사람이요. 그래 호남이가 탄부루 되게 그리두 가슴아픈가?》

그러니 광수 그 사람이 제 아들 빼돌릴 궁양을 하느라 돌아치는걸 막을 궁리하기는커녕 되려 맞장구 칠밖에 없지. 이 탄광개발의 첫 발과심지에 불을 달때 일했던 그 정신을 잃지 말아야 할 당신이 이끌어니 참 한심하오. 정 그러겠으면 모두 썩 사라지라구!》

태준은 버럭 소리를 지르고 밖으로 나왔다. 가슴을 무딘 칼로 찌르는것 같았다. 청년탄광 개발자의 영예를 그렇게도 쉽사리 잊어버리고말았던말인가?

첫 발과심지에 불을 달게 된 영예를 지니고 사람들에게서 《1 번수》라는 말을 듣게 되었을 때 그리도 기뻐하던 안해, 고속도굴진의 앞장에서 나가던 그런 안해가 아니었던가. 백운산의 눈보라를 헤치고 참나무레루감을 찍어온 안해, 막장안의 공기를 맑게 하려고 송진을 뜯어다 진흙에 섞어 《발파떡》을 만들어 요긴하게 쓰군해서 소문났던 안해가 아니었던란 말인가? 광수도 그랬었다. 그러했던 광수가 오늘에 와서 그렇게까지 마음속에 버럭이 끼였던말인가?

모두 탄광을 도우려고 제대군인들도 혈기왕성한 청년들과 성실한 사람들이 수많이 탄광으로 달려오

고있는데 어쩌면 광수 그 사람이... 태준은 저도모르게 그 무슨 힘에 끌려가듯 갱도입구쪽으로 발걸음이 옮겨졌다. 태준은 아치형갱도입구우에 부각되어있는 탄광개발자 휘장을 바라보았다. 투광등 불빛을 받고 번쩍거리는 개발자의 휘장이 태준의 가슴으로 안겨드는것만 같았다. 갱도를 건설하고 태준이들이 새겨놓은 휘장이다. 꽃테두리에 감싸인 삽과 곡괭이, 그 우에 붉은 기폭이 불길처럼 타오르고있다. 기폭의 바탕에는 청년탄광개발자라는 글자가 박혀있다. 로동과 청춘 위훈으로 부르던 휘장이다. 저것을 볼 때마다 매양 새로운 감회를 불러일으켜주었다.

태준은 웬일인지 지금 류달리 건잡지 못할 흥분에 사로잡혀 갱도앞을 떠나지 못하는데 저쪽에서 두런두런 말소리가 들려온다. 태준은 귀를 장구었다. 목소리가 귀에 익었다.

《정대를 왜 이것밖에 못가져왔어 ?》

정대를 가져온것은 호남이고 꾸짖고있는것은 길남이다.

《주는걸 가져왔는데 뭐 어드래서 그래.》

호남이는 볼부는 소리로 내뻗고 씨근거린다.

《네가 어떻게 했길래 응당 다 가져와야 할 정대하나 제대루 못타와? 그래 그 출고중에 갱장도장이 찍힌게 네눈에 보이지도 않던?!》

길남이는 안타까와 손바닥에 도장 박는 시늉까지 해가며 어성을 높였다.

《좀 기다리라구 하길래 그냥 이것만 가지구 왔으문 됐지 뭘그래.》

《어떻게 하나 제대루 다 타오는게 옳아. 넌 꼭 남의 일을 해주는 사람갈구나.》

《헛. 이젠 바쁜 모퉁이마다 정대를 타오래, 광차를 끌어오래, 내가 뭐 청년굴진중대 자체조달원인가.》

《푸념질만 하겠니 ? 이게 뭐 집에서처럼 제멋대로 하는건줄 알아! 여기서 내가 형으로서가 아니라 초소장으로서 말하는거다.》

길남은 초소장으로서 제 동생을 잘 이끌어주어야겠다는 자각이 높다. 그래서 동생이 일에 마음붙이지 못하고있는데 대해 그토록 원심을 쓰며 되게 구슬릴 때도 있는것이다.

《청년굴진중대라는건 너처럼 일하는데가 아니란 말이다.》

《흥 누가 청년굴진중대에 오고싶어 온것 같구나.》

호남은 신경질적으로 픽 돌아서며 씨근덕거렸다.

태준은 무엇인가 목구멍에서 울퉁 치미는것을 참노라니 관자노리마저 푸들푸들 뛰는것 같았다. 그는 터벅터벅 걸어서 호남의 앞에 와섰다. 호남은 산이 막힌듯 앞을 막아선 아버지를 보자 슬며시 외면했다.

(제자식 하나 바로 이끌어주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들을 교양하겠다고 했으니, 그래도 중대장이라고 얼굴을 쳐들고 다녔지...)

태준은 어떻게 해도 가슴을 저며내는것 같은 피로움을 가져낼것 같지 않았다.

《넌 초소장의 말두 그 누구의 말두 귀등으로 듣구 빼여져달아나려고만 하니 어쩔셈이나.》

준절함과 타이름이 섞인 태준의 말에 호남은 어깨숨만 모두어쉴뿐이다.

낮동안 들끓던 갯구가 조용해졌다. 눅눅하고 서늘러운 밤바람이 불어왔다.

태준은 빼딱하게 쓴 호남의 안전모를 바로잡아주고 나서 두 아들을 데리고 갯도앞으로 걸어갔다.

《너희들은 이 탄광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느냐? 저 휘장을 좀 보아라.》

태준은 얼굴을 쳐들고 갯도우로 시선을 보냈다.

《난 저 휘장을 볼 때마다 생각이 깊어진다. 그땐 정말 빈터나 다름없는 한적한 산속에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맨주먹이나 다름없는 우리들이 탄광을 개발해나갔다. 정말 그때 젊었던 나나 네 어머니나 여기 많은 사람들이 피땀은 가슴으루 기가 나서 억척스레 일했다. 어려운 속에서 일하면서두 보람은 컸다. 그 보람이란 나라를 떠받들어나가려는 탄부의 뜻이구 본심이였지. 그때나 지금이나 그것만은 변치 말구 가슴속깊이 진정으루 묻어두어야 한다. 이걸 제나름으루 해석해서는 절대루 안된다... 이젠 나나 이 탄광을 개발했던 사람들이 맘은 그렇지 않는데 오록이 제대루 놀려지지 않는다. 나이가 들었으니말이다. 그러니 우리 탄부들의 뜻을 이어나갈 사람들은 너희들이 아니냐. 너희들이 주인이란 말이다. 주인.》

호남이는 고개를 떨구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호남인 지난날 <1 번수>였던 이 애비의 아들답게 처신하는것 같지 않다.》

《아버지!》

옆에 섰던 길남이가 애원이 담긴 목소리로 부르짖었다.

자책속에 잠겨있던 호남이의 눈에는 이슬이 가랑가랑 맺혀 구울러내렸다.

한편 아까부터 먼발치에서 남편을 지켜보던 옥녀의 눈굽도 이 순간 젖어올랐다. 모임이 끝난뒤 남편에게서 못을 박는것 같은 가슴아픈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온 옥녀는 발길 가는대로 걸음을 옮긴것이 저도 모르게 갯구밖으로 다가왔던것이다. 백운산마루로 불쑥 얼굴을 내민 초생달이 갯구앞을 비쳐주었다. 그러자 어디선가 밤새의 청아한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 4

청년굴진중대의 막장으로 찾아오는 탄부들은 날이 갈수록 늘어갔다. 교대가 끝날 때까지 기능을 배워주고 아들을 앞세우고 퇴근하는 부모들도 있었다.

태준은 그런 부모들의 소행을 속보에 널리 소개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탄광 기술과 기사들을 초청하여 기술학습강사로 출연하도록 하였다. 청년굴진중대의 기능수준이 눈에 띄이게 높아가기 시작했다. 눈썰미가 있는 청년들은 동발을 말쿠어 세울수도 있게 되었다. 청년굴진중대가 탄발을 확보하려면 어지간히 애를 먹어야 할것이란 말을 돌리던 탄부들도 고개를 기웃거리게 되었다. 그런데 광수만은 청년굴진중대막장에 얼씬하지도 않았다.

태준은 광수를 만나려고 보수갱으로 걸음을 옮기었다.

마침 광수는 동발을 말쿠어놓고 쉬고있었다.

《자네 개발자들이 청년굴진중대를 도와나선걸 알고있나?》

《왜 모르겠나요...》

광수는 무뚝뚝한 목소리로 말했다.

《두진이를 어떻게 하려구 한다구?》

광수는 눈살을 찌프리며 입귀만 실룩거리다가 고개를 쳐들고 애원조로 뇌까렸다.

《제발 막내가만은 좀 놓아주게나.》

《내가 발목을 잡았겠군?! 한심하이, 자네처럼 생각한다면 누가 이 탄광을 떠메고 나가자고 할텐가? 자진해서 달려온 제대군인들이 탄광에 영원히 뿌리를 내리자구 하구있는걸 그대 모르나? 모두 탄광을 지원하겠다구 달려오고있는 이때 누구보다 앞장서야 할 자네가 아닌가, 지난날마저 잇구 이젠 일잘하는 아들까지 마음 설통하게 해놓구... 자넨 정말 나이 값을 못하구있어!》

《아무렇게나 생각하구려. 하지만 난 탄부의 본심만은 잃지 않았수다. 단지 청년굴진중대 헛내기들루 탄발을 연다는게 식은죽먹기루 되는건 아닌거구 그래서 아들 하나 있는걸 기술자루 키우자구 했을뿐이요.》

광수는 풀이 죽어 시들하게 대꾸했다.

《탄부의 본심을 잃지 않았다? 그런 사람이 아들 문제를 그렇게 처리하려고 하는가 말이야. 그러구 또 뭐 헛내기들이라구?! 그래서 아들에게 기술을 배우게 하자구 한다? 자넨 도대체 그들의 가슴속에서 탄부의 자세가 억센 기동처럼 솟아나고있다는걸 보려고 하거나 했어?!》

열기가 올라 부르짖은 태준은 머리를 푹 수그리고 멍하니 서있는 광수를 남겨둔채 어떻게 권입장으로 걸어왔는지 알지 못했다.

누구든지 다 자기자신을 두고 그 좁은 테두리에 서만 맴돌이치면서 쉽고 안전한 생활만을 추구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이러한 습성이 싹트고 자라난다면 한몫 단단히 감당해야 할 우리 탄부들이 과연 무슨 낫으로 사람들을 대하겠는가! 태준은 이런 생각에 몰리우며 가슴이 쓰러났다. 하지만 태준은 방금 마지막으로 본 광수의 눈빛에서 탄부의 양심과 본분만을 잃지 않고 있음을 간파하였다. 아직 애된타으로 탄가루에 습관되지도 않아 때로는 말뚱에 오르고있는 호남이도 그리고 어느사이엔가 가정의 사사로움에 젖어버리기 시작한 안해도 반드시 그전날 청춘시절의 그 의기와 기백을 되찾게 되리라는 확신은 은연중에 가슴을 세차게 흔들어준다는것을 의식하였다. 발걸음마저 가벼워진 태준은 다리쉽을 하려고 대피호에 퍼더버리고 앉았다.

이때 갱도를 구르며 달려온 전차가 권입장에서 멈춰섰다. 전차를 눈여겨보던 태준의 눈은 둥그레졌다. 안해 옥녀가 배낭을 지고 전차에서 내리고있는것이 아닌가.

(아니 저 사람이 배낭을?...)

태준은 아무리 생각을 굴려보아도 안해가 배낭을 지고 막장으로 들어온것이 의문스러웠다.

《운전공처녀, 고맙네!》

안해의 음성은 고마움에 젖어있었다.

《혼자서 찾아갈수 있어요?》

운전공처녀가 머리를 가웃이 내밀고 말했다. 호남이와 싱갱이질하던 그 처녀운전공이다.

《갈수 있지 않구. 나도 한때는 이 갱도에서 전차를 몰았어.》

《나두 다 알아요. 호남동문 고등중학교동창생인데 학교때 내내 아버지랑 어머니랑 우리 탄광개발자라고 늘 자랑을 했어요.》

태준은 느닷없이 가슴이 설레었다.

(개발자!)

개발자라는 말이 류별나게 가슴을 울려주는것을 느끼고있는 태준은 온몸에서 새힘이 뻗쳐오르는것 같았다.

처녀는 생긋 웃으며 잘 다녀가라고 하고는 전차를 저쪽으로 몰아갔다.

태준은 마음이 별로 흥겨워지는것을 느끼었다. 그는 담배를 피우고싶은 생각이 불쑥 떠올라서 담배곽을 꺼냈다.

옥녀는 배낭을 지고 걸음을 옮기다 말고 《학포 집아재가 아니우다?》 하고 뒤돌아보면서 묻는것이였다.

옥녀의 말에 태준은 고개를 쳐들고 권입장쪽에 눈길을 보냈다, 톱과 손도끼가 들어있는 쟁기가방을 어깨에 걸텐 광수가 안전등을 흔들면서 걸어오고있었다.

《아니 옥녀동무가 어떻게 ?... 배낭에다가는 뭘 이렇게...》

《애들이 일하는 막장에 발파가스가 잘 빠지라고 송진에다 진흙을 섞어 <발파떡>을...》

《<발파떡>을? ...》

《광수아재랑 고속도굴진을 할 때 장진물에 송진을 넣어 발파가스가 인차 빠지게 하지 않았나요?》

《아니 그럼 이 많은 송진을 옥녀동무가 혼자서 뜯었소?》

옥녀는 대답을 하지 않고 상그레 웃다가 말문을 열었다.

《광수아재, 들어보우다. 내 자기비판점 하는 소리니 나루람 마시우다. 나두 우리 호남이 아버지가 하는 일을 애당초 달가와하지 않았수다. 그랬었는데 요즈음 하는 일을 놓고 생각이 많아졌지요. 이 송진만 해도 글썄 호남이 아버지가 백운산에서 뜯어온거라오. 중화제로 쓰겠다고 말이예요. 난 그런것도 모르고있었지요. 한번은 새벽녘에 집으로 돌아온 호남이 아버지가 온통 옷이 찢기고 얼굴이랑 손에랑 상채기가 낫길래 물었더니 대꾸를 하지 않더군요. 그런데 알고보니 그 많은 송진을 뜯으려고 혼자서 산발을 무척 헤매인것 같애요.》

《증대장동무가 그러고도 나한테는...》

옥녀의 얼굴을 감심된 눈길로 바라보던 광수는 말끝을 맺지 못하고 막장쪽으로 시선을 옮기였다.

《외태머리처녀루 이 송남굴에 와서 이제는 머리에 흰서리가 내리게 살아오지만 난 아직 호남이아버지 마음속을 다는 모르는가봐요. 그 집 두진이는 눈썰미도 있고 학교때 공부도 잘한 애라고 하면서 한두해 청년굴진중대에서 단련시켜 혁신자로 키운다음 석탄대학에 보내여 공부시켜 탄광의 기둥으로 만들겠다고 했어요. 탄광의 기술일군으로 키우겠다나봐요.》

《증대장동무가 ? ...》

막장쪽으로 눈길을 떼지 못하고있는 광수는 이렇게 마음속으로 뇌이고있었다.



사실 그는 태준이가 돌아간후 일손이 잡히지 않아 애꿎은 담배만을 푹썩썩 태웠었다. 태준이 한 말이 자꾸만 귀가에서 맴돌며 가슴속으로 스며들었다.

그래서 청년굴진중대막장으로 찾아가던 길이었는데 뜻밖에도 옥녀를 만나 가슴뜨거운 충격을 받아 안게 된것이였다.

옥녀와 광수가 퍼그나 막장으로 들어갔을 때였다. 폭풍같은 바람이 막장을 휩쓸더니 쿵! 하는 발파소리가 울렸다.

《탄충이 나타난것이 아닌가?》

태준은 발파소리를 듣고서 그것이 탄충인가 아니면 암반인가를 가늠하였다.

그는 옥녀와 광수의 뒤를 따라 성큼성큼 걸음을 내짚었다. 아니 태준은 걷는것이 아니라 달리고있었다.

그의 눈앞에서는 기름진 탄발이 넘실거리고있었던것이다. 휴게실에 웅기중기 모여있었던 청년들은 발파가스가 가시지기가 바쁘게 막장으로 뛰어들어가고있었다. 태준은 숨을 쉰아쉬며 그들의 뒤를 따랐다.

《탄충이다!》

맨앞에서 달려가던 길남이가 안전등을 쳐들고 환성을 질렀다. 번들번들 빛을 뿜고있는 탄충, 청년들은 착암기를 밀어가던 탄벽에 가슴을 대고 서로 어깨를 껴안는다.

기쁨! 감격! 막장은 격동으로 파도쳐 설레인다.

《탄이 쏟아진다!》

탄충을 어루머듬고있는 청년들의 머리우 쏘장사이로 탄이 쏟아져내렸다.

붕락! 태준의 가슴은 섬찟해났다.

그는 탄발을 점령한 기쁨에 젖어 눈앞에 다가온 위험을 보지 못하고 환성을 올리고있는 청년들을 밀어던졌다.

그들은 그제야 막장에 드리운 위험을 느끼었다. 길남이가 태준에게로 다가왔다. 그뒤로 두진이가 총알처럼 달려왔다.

《물려서라!》

태준은 엄한 소리로 웨쳤다. 그러나 길남이와 두진은 태준의 곁에 다가와 쏘장을 받쳤다.

《아버지! 우린 청년탄광 개발자의 아들들이예요!...》

태준은 목이 껍 막히고 눈앞이 뽕얇게 흐려졌다.

(청년탄광 개발자의 아들들!... 50년대에 청년들이 당의 부름을 받들고 청년탄광을 개발한 그 개발자의 아들들이 80년대에 청년탄광을 떠메고나갈 기둥으로 자란것이 아닌가!)

막장에 당도한 광수는 오랜 동발공의 경험으로 무거운 짐이 왔다는것을 판단하였다.

그는 쟁기가방을 벗어던졌다.

《아버지!》

쏘장사이로 쏟아져내리는 탄을 막으려고 기둥을 세우고있는 두진이가 소리쳤다.

《오냐 간다!》

광수의 석직한 목소리는 떨리었다. 그는 쟁기가방에서 톱과 손도끼를 꺼내들고 쟁싸게 손을 놀렸다.

광수가 말곤 동발을 썩 돌려메고 동발을 드리고있는 태준이쪽으로 다가갔다.

청년들이 성목을 들고 광수뒤를 따라섰다. 동발을 드리고 성목을 끼워넣었다.

붕락의 위험은 가셔졌다.

《이사람 광수!》

태준은 광수의 손을 와락 잡아당겼다.

《태준이! 내 잘못했네.》

광수는 목이 껍 멘 소리로 부르짖고 얼굴을 돌리었다.

《광수 이사람, 아까 다 들었네!》

태준이도 목이 메여 부르짖었다. 이때 두진이가 《아버지!》 하고 웨치면서 광수한테로 달려왔다.

《너석두》

광수는 아들의 어깨를 쓸어주며 막장쪽으로 눈길을 돌려 번들거리는 탄충을 띄여보았다. 청년굴진중대원들이 이룩한 첫 성과를 바라보는 광수는 더욱 가슴이 뜨거워났다. 광수는 물기가 도는 눈을 습벅거리며 태준이를 바라보았다.

채탄중대에 탄발을 인계해주고 난장으로 나왔을 때 백운산꼭대기로 둥근달이 솟아오르고있었다. 태준이와 광수, 옥녀는 청년개발자의 휘장이 새겨있는 갱구앞에서 걸음을 멈추고 로반을 따라 걸어가고있는 청년굴진중대굴진공들을 바라보고있었다. 길남이 곁에서 호남이와 두진이가 나란히 걷고있었다.

무슨 생각이 났는지 호남이가 썩 돌아서더니 부리나케 달려왔다.

《아버지 안전등을 바꾸자요.》

호남은 거울처럼 알른거리는 안전등을 두손으로 받쳐들고 아버지앞에 내밀었다.

태준이가 호남을 깨워 일터로 내보내던 그밤에 주었던 안전등이다.

《됐다! 그 안전등을 쓸 자격이 있다!》

태준은 입가에 미소를 띠우고 호남의 얼굴을 미더운 눈길로 내려다보았다. 휘영청 밝은 달이 개발자 휘장이 새겨있는 아치형갱도안을 환하게 비추주고있었다.

## 만경대행 버스안에서

박혜란

예로부터 건설은 어렵고 품이 많이 드는 일이어서 해와 달을 헤아린다고 했다. 그러나 여기 광복거리 안골체육촌 건설장은 시간과 초를 다루며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되어간다.

날마다 만경대행 버스를 타고 출퇴근을 하곤하는 나는 이 들끓는 건설장을 지나칠 때마다 우리 시대에 창조되는 건설속도를 두고 생각이 깊어지곤한다. 그럴 때면 기초공사가 한창이던 지난해 여름 퇴근길에서 목격한 감동깊은 일이 되살아나곤한다.

그날도 나는 만경대행 버스에 몸을 실자 습관적으로 오른쪽 창가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안골체육촌 건설장의 모습을 내다보기 위해서였다.

갓 공사가 시작된 건설장은 불도가니를 방불케했다.

산을 뒤흔드는 발파소리, 사람들의 끝없는 행렬, 불도젤의 육중한 삽날에 패워 폭포처럼 밀려나가는 흙덩이들...

풀대만이 무성하던 공지가 아직은 터전에 불과했지만 그래도 사람들은 희열에 넘쳐 삽질을 하고 곡괭이를 휘둘렀다.

건설장입구에 걸린 커다란 선전화가 사람들의 주의를 끌었다. 그림 밑에 씌여진 붉은색 글자가 멀리서도 보였다.

《로동당시대의 새 건축물을 창조하자!》

그 구호는 마치도 메가폰을 든 그림속의 청년이 웨치는 심장의 호소인듯싶었다.

건설장이 가까와오자 버스안의 분위기도 삽시에 달라져갔다.

문득 내앞에서 두 처녀가 도란도란 주고받는 말소리가 들렸다.

《여기서 내리면 좋겠는데...》

《정류소가 아닌데 세워주겠니?》

《그래두...》

나는 운전사쪽을 바라보았다. 운전대우에 걸린 동그란 거울안에서 두 처녀의 간절한 눈빛이 운전사를 내려다보고있었다.

나는 버스안의 사람들을 둘러보았다. 버스안에서 얼마전부터 낯을 익힌 얼굴들, 초면의 얼굴들, 그들의 손에는 삽자루와 작업복을 뺀 보꾸레미가 들려있었다. 그러고보니 저들은 유희장을 찾아가는 걸음이 아니었다.

버스는 여전히 달렸다.

(좀 세워주었으면...)

나의 마음도 어느덧 처녀들의 심정만이 아닌 지원자들의 심정이 되어버렸다. 하나의 마음으로 지향된 모습을 대하니 내 마음도 자연 뜨거워졌다.

어느덧 건설장 입구 다리목에 도착했다.

갑자기 버스가 멈춰서더니 문이 벌컥 열렸다,

《내릴 손님이 없소?》

뒤이어 운전사의 텅텅한 목소리가 들렸다.

그 순간 처녀들의 얼굴에 기쁨이 피어올랐다.

《고마와요.》

처녀들이 승강대를 춤추듯 뛰어내리자 이쪽저쪽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처녀들의 뒤를 따라 내렸다.

잠시후 버스는 다시 발동을 걸었다.

《고맙습니다.》

방금 버스에서 내린 사람들이 운전사를 향하여 인사의 말을 남겼다. 그러거나말거나 운전사는 혼연한 표정으로 조향륜을 돌릴뿐이었다. 똑한 성미여서가 아니었다. 지원자들의 걸음을 단축해주고 시간을 앞당겨준 운전사의 가슴속에도 바로 저 사람들과 같은 뜨거운 숨결이 맥박치고있었던것이다.

이것은 일년전 일이었다.

어제는 불도젤의 동음소리가 울리던 여기에 어느새 지붕을 얹은 거대한 구조물들이 생겨나 오늘은 하나의 완전한 체육시설을 갖춘 체육촌을 이루었다.

참으로 안골체육촌은 빠른 기간에 훌륭히 건설되고있다.

날아에는 물새마냥 나지막한 산등성이에 아름답게 일떠서는 관광려관과 체육촌을 한눈에 굽어보며 높이 솟은 안골려관, 흘러가는 대동강물결과 하많은 사연을 속삭이듯 강반을 마주하여 나란히 자리잡은 축구경기장이며 송구관, 탁구관, 수영관들...

마치도 80 년대의 거창한 화폭이 바로 안골체육촌 건설장에 비친듯싶다.

허나 들끓는 건설장 그 어디를 봐도 건설자들의 모습은 찾을수 없다.

《여기영 치기영》 몰탈을 이기던 그들의 힘찬 목소리도 부채를 부리우던 그들의 땀에 뜬 얼굴도 없다.

건설장은 벌써 내부부감공사에 들어간것이다. 아니 이것은 벌써 어제소식이고 오늘은 지대정리를 다그친다는 보도가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다.

아마 여기를 지나치는 사람들은 저 웅장하고 훌륭한 건물을 창조한 건설자들의 얼굴은 볼수 없으리라.

그러나 체육촌을 일떠세운 건설자들의 위훈은 저 그림처럼 아름다운 건축물들에 비껴있다.

어찌 그들의 위훈만이라. 그가 로인이건 녀인이건 당의 원대한 구상을 실현해가는 이 보람찬 건설장에 자기의 성실한 노력과 땀을 바쳐가는 깨끗한 마음들로 하여 안골체육촌은 저렇듯 빠른 속도로 훌륭히 건설되고있는것이 아닌가.

하루일을 끝마친 사람들이 안해와 자식들이 기다리는 집으로가 아니라, 애인과 시간을 약속한 처녀가 공원으로가 아니라 용접불꽃이 훑날리는 건설장으로 달려오던 일, 여기서 때로는 온 식구가 모였고 청춘 남녀가 약속없이 만났다.

그뿐이 아니었다.

당의 호소를 받들고 수도의 근로자들이 금요일로동의 보람찬 하루를 여기서 바쳤고 온 나라의 방방곡곡에서 지원의 손길들이 기차와 자동차에 실려 혹은 편지의 꽃봉투에 담겨왔다.

## 수필

# 한 일군의 모습에서

아마도 누구에게나 생활과정을 통하여 행동의 거울처럼 문득 자기를 비쳐보게 되고 평생 잊혀지지 않을듯싶이 강한 인상을 던져주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드문히 있을것이다.

나 역시 얼마전 당중앙위원회 편지와 구조를 높이 받들고 200 일전투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 있는 안주탄광지구에 대한 취재과정에 만났던 어느 한 일군의 모습을 통하여 그런 충격을 받은적이 있었다.

참으로 어려운 일과 드바쁜 생활의 다단사에 부대껴 바재일 때마다 힘있게 떠밀어주는 마음의 길동무를 가슴속깊이 간직하고있는것은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내가 만나본 탄광지배인은 바로 그런 사람이였다!

나는 탄부들속에 사소한 애로라도 제기되지 않도록 늘 막장에 찾아내려가 모든 조건을 제때에 마련해 줌으로써 로동자들로부터 《우리 지배인》으로 존경 받고있다는 그 일군에 대한 남다른 호기심을 안고 탄광에 찾아갔었다. 지배인이 전날밤부터 혁신갱에 나가있다가는 나는 그리로 올라갔다. 혹시 지배인이 갱장실에 있지 않을까 하여 들렀더니 방은 비였는데 책상우에 영양제 공급명단같은것이 놓여있었다. 얼핏 거기에 눈을 주면 나는 한 탄부의 이름밑에 《우유》라고 썼던것을 지워버리고 《오이랭국》이라고 덧쓰는데 의혹을 가졌다. 우유가 모자라서일까? 아니면 직종에 따라 공급기준이 달라서일까? 내가 어리둥절해서있는데 위생복을 입은 처녀가 들어와 그것을 집어 보더니 혼자말처럼 중얼거렸다.

만년대계의 창조물을 빛나게 완공하기 위한 당의 호소에 이렇듯 충실한것은 우리 시대에 사는 사람들의 전사회적인 기풍으로 되고있다.

이 벽찬 건설장에서 자기의 땀과 노력을 아낌없이 바쳐가는것을 숭고한 의무로 여기고 몸과 마음을 바쳐가는 사람들의 정신세계가 저 하늘끝처럼 높을진대 안골체육촌은 이제 또 반년후에는 얼마나 몰라보게 변모될것인가.

그때면 만경대행 버스에는 작업복을 든 사람들이 아니라 체육경기를 관람하러 오는 사람들이 웃음꽃을 피우며 앉아갈것이다.

그리고 어제는 건설장을 찾아가는 지원자들을 위해서 운전사가 버스를 세웠지만 래일에는 여기에 체육촌을 찾는 사람들을 위하여 새로운 정류소가 생겨날것이다.

이것은 머지 않은 래일의 일이 아니라 현실로 된 오늘의 체육촌의 이야기다.

## 리기창

《아이참, 우리 취사원들도 아직 모르는걸 우리 지배인동지는 어떻게 엿그제 새로 온 탄부의 식성까지 알아내었을가?》 하고 처녀는 경탄을 금치 못하며 달려나가지 않는가! 그제야 나는 지배인이 그 영양제 공급명단을 보자 우유를 좋아하지 않는 신입탄부에게 오이랭국을 풀어주도록 하였다는것을 알수 있었다.

취재의 첫 걸음에서 벌써 탄부들의 식성까지 헤아려보는 지배인의 모습에 대한 제 나름의 상상화를 머리속에 그리었다. 아마도 몸집은 우람지고 호인다운 둥실한 얼굴엔 노상 웃음이 벋글거리리라...

이런 생각을 굴리며 갱구에 들어서는데 웬 체소한 아버지가 전차길에 앉아 건들거리는 레루못을 박고있었다. 밤교대를 하고 퇴근하다가 빠지려는 레루못을 발견하자 주인답게 손질하는 착실한 탄부같았다.

나는 그에게 인사를 하며 지배인이 지금 어느 막장에 있는가고 물었다.

그러자 탄가루가 묻은 갱뿔한 얼굴을 들더니 나더러 왜 그러느냐고 묻고나서 《그렇다면 지배인보라도 우리 탄부들을 취재해주시오. 탄광의 얼굴이자 주인들이야 그들이지요. 요새 사경을 뽕루느라고 수고하지요.》 하고는 다시 레루못을 박는것이였다. 탄부들에 대한 높은 긍지감을 갖고있는 탄부아버지와 헤어진 나는 사경막장으로 찾아들어갔다. 나의 예감은 거기에 지배인이 있을것 같았다. 한것은 혁신갱의

어려운 돌파구가 사갱굴진이었기때문이다. 아닌게 아니라 갱도에서 만난 탄부들에게 물어보니 지배인이 거기에 있다고 했다, 내가 막장에 찾아갔을 때 굴진공들이 착암기로 경사진 암벽을 뚫고있었다. 나는 그들속에서 지배인이 누구일가싶어 세심히 눈여겨보았으나 도무지 가려낼수가 없었다. 하는수없이 한 굴진공청년의 곁으로 가서 지배인이 누구냐고 물었더니 좁전에 자기의 소공구주머니를 빌려가지고 사라졌는데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는것이였다.

나는 지배인이 소공구들을 가져간것으로 보아 다른 마구리에 가서 혹시 일손을 돕고있으리라고 짐작하고 찾아갔으나 종시 만날수가 없었다.

그래서 얼마후 다시 사갱막장으로 왔다.

때마침 아까 갱장실에서 보았던 취사원처녀가 우유와 오이랭국이 담긴 통들을 밀차에 싣고들어와 휴식을 선포하는바람에 굴진공들이 모여오는중이였다.

《아니 내가 좋아하는 오이랭국은 어디서 났소?》 하고 귀인성스럽게 생긴 청년이 눈이 둥그래서 묻자 취사원처녀가 생긋 웃으며 대답하였다.

《이건 철도동무가 우유를 좋아 안한다는걸 아시구 지배인동지가 경리과장동무를 시켜 탄광온실에서 첫물로 판 오이로 랭국을 풀어오도록 한것이랍니다. 자 어서 드세요.》 하고 처녀가 오이랭국을 권하자 그 청년은 목메인 소리로 떠들거려였다.

《뭐라구요?! 어제밤엔 우리가 뚫고있는 사갱에 석수가 심해지자 기사장동지랑 기술과동무들을 데리고 와서 폐갱의 고인물속에 들어가 석수구멍까지 막아주더니 오늘은 또 이렇게...》

말끝을 흐리는 청년탄부를 바라보던 나에게는 지배인을 만나보고싶은 생각이 더욱 간절해졌다.

바로 이때였다. 누군가가 지배인동지가 온다고 갱도쪽을 가리키자 탄부들이 달려가더니 우유를 같이 들자면서 지배인의 손목을 이끄는것이였다.

그쪽에 눈을 주던 나는 그만 얼퍼름해졌다.

그 사람은 아까 갱도에서 레루뭇을 박던 체소한 아바이였다, 그렇다면 저 아바이가 지배인이였단말인가?!... 세찬 충동에 휩싸인채 못박힌듯 서있는데 지배인은 내가 만났던 굴진공에게 소공구주머니를 돌려주며 말했다.

《나사들개손잡이가 찢개졌더라니 새것을 맞췄네. 무딘 뻘찌 날두 손질하구. 뭉니뭉니해두 굴진공들에겐 소공구들이 그췌해야 돼...》

《지배인동지...》 하고 굴진공은 더 말을 잇지 못하였다.

나도 몽클해지는 마음의 걱정을 다잡지 못한채 그의 앞으로 다가갔다.

《지배인동지, 아까는 미쳐 몰라봤군요.》

그러자 그는 느슨히 웃었다.

《탄부들의 심부름꾼이나 다름없는 나를 취재하겠대기에 ...》

지배인의 이 허심하고 소박한 말을 듣고 나는 그가 우리 시대의 참다운 일군의 위치에 서서 언제나 탄부들로 하여금 아무런 불편도 느끼지 않고 일하도록 세심히 보살펴주는 그 뜨거운 마음이 무엇인가를 알수 있었다.

그렇다. 전투지휘관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높일데 대한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가르치심을 심장깊이 간직하고 밑에서 찾아와서 애로를 제기하기 전에 먼저 현장에 찾아내려가 대책을 취해주는 이러한 일군들로 하여 전투원들의 가슴마다에는 항상 티없이 맑고 깨끗한 충성심만이 차넘치는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수천수만의 일군들이 200 일전투의 불길이 세차게 타번지는 탄전뿐아니라 인민경제의 전투장에 믿음직하게 서있음으로 해서 우리의 대건설행군은 더욱 힘있게 다그쳐질것이며 공화국창건 40 뽕은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빛나게 장식될것이였다.

오늘도 나의 눈앞에는 수수한 작업복차림새로 탄전의 구석구석을 찾아다니며 지휘성원들로 하여금 자기의 역할을 책임적으로 수행하도록 정치사업을 앞세우고 전투조직을 짜고들며 탄부들의 진격로를 앞장서서 열어주고 그들의 생활에 당의 해빛이 더 잘 미치도록 아글타글 애쓰는 지배인의 모습이 떠오른다.

참으로 그처럼 훌륭한 일군의 모습을 추억하기란 얼마나 가슴후더운 일인가!

참다운 일군의 모습은 친근한 길동무처럼 언제 어디서나 우리들의 생활속에 함께 있는것이다.

## 작가의 문체

오영환

(제 7 회)

### 작가의 관찰력과 문체

편집자는 때로 작가를 옹호해나서기도 해야 하였다.

어느날 작가는 뺨스정류소에서 38 년만에 고향친구를 만난 이야기를 편집자에게 하였다. 어린 시절에는 앞으로 큰일을 하리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너무나 보잘것없이 살아온데 대해서, 이제는 늙었으니 희망도 가지게 되지 않는다는데 대해서 이야기한후 그 순간 자기가 생각했던바를 이렇게 뇌었다.

《너를 낳은 어머니도 너를 가르친 선생도 다 헛수고를 했다. 너는 네가 사는동안 먹고 입고 쓰고 산 그 값도 못하고말게다.》

이때 뺨스줄에 끼인 한 손님이 자기에게 하는 말인줄 알고 돌아서며 작가를 흘겨보았다. 그냥 스쳐버릴 눈길이 아니였다. 아니나다를가 그는 절고들었다.

《손님은 정류소에서 아는 사람을 만나서 같이 간때가 한번도 없습니까?》

편집자는 작가를 대신하여 손님의 오해를 풀어주어야 하였다. 사실이 밝혀지자 정류소에는 유쾌한 웃음이 터졌다.

작가의 생활이 관찰로 일관되고 관습화되면 때로 이런 오해도 사게 되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미친 사람》으로도 보이게 된다. 이런 작가는 행복한 작가이며 부러운 작가이다. 예술가적 자질은 바로 그러한 정열속에서 생겨나는것이다. 다시말하면 작가의 투시력은 그의 가슴속에 심어진 불씨에서, 거기서 타오르는 불길속에서 태어난다.

결국 작가는 지칠줄 모르는 관찰과정에 투시력을 선사받는다.

투시력은 작가로 하여금 인간과 그 생활에서 본질과 특징을 포착해내고 평범한것에서 비범한것을 드러내며 사소한것에서 흥미있는것을 찾아내게 한다.

이러한 독창적인 사유는 그 표현에서 남과 구별되지 않을수 없다. 그러므로 개성적인 문체는 투시력이 형성된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작가는 손에서 붓을 놓는 순간까지 일생동안 하루도 쉬임없이 인내성있게 기량을 련마하여야 합니다.》(《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작가들의 정치

적식견과 창작적기량을 결정적으로 높이자》 단행본, 13 페이지)

이 명제는 작가에게 있어서 생명과 같은것이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유지해나가야 하는가를 가르쳐주고있다.

작가에게 있어서 창작적 기량은 생명과 같은것이다. 작가로 일생을 사는가 못사는가 하는 운명적인 문체가 바로 창작적 기량에 달려있다.

편집자는 오랜 기간 작가, 문학통신원들과 상종하면서 우연과 요행을 바라는 사람은 లే외없이 작가적 생명이 짧다는것을 목격하였다. 중도에서 스스로 직업을 바꾸는 사람도 보았고 작가대렬의 마지막 사람으로 힘겹게 따라가는 사람도 보았다. 비록 이력저력 작품을 발표하고있는 작가라 하여도 인민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작품일 때는 이미 그의 작가적 생명은 끝난것이다.

그들은 대체로 문학청년기에 기초훈련을 실속있게 하지 못한채 서둘러 작가대렬에 들어섰던 사람이거나 문학의 로년기까지 기량훈련을 근기있게 이어대지 못한 사람들이였다.

비싼 대가를 치르지 않고는 얻을수도 없고 유지할수도 없는것이 작가의 생명이다. 왜냐하면 창작적 기량은 오직 일생동안 하루도 쉼없이 인내성있게 련마하여야 생겨나고 자라는것이기때문이다.

그러면 창작적 기량이란 어떤것인가?

창작적 기량이란 예술가적 자질이다.

예술가적 자질에는 남다른 관찰력과 자유분방한 환상력, 고상한 미학적 리상과 독특한 문체가 포괄된다.

이 네가지중에서 남다른 관찰력은 예술가적 자질의 첫 징표로 된다. 남다른 관찰력을 가졌다는것은 첫째로, 남과 구별되는 독특한 눈이 되었다는것을 말하며 둘째로, 대상, 현상의 본질과 특징을 드러내는 예리한 눈이 되었다는것을 의미한다.

그것이 예술가적 자질로 되는것은 생활의 의의를 새롭게 발견하고 주장하는 창조적 능력으로 된다는 데 있다.

이와 같이 예술가적 자질은 사고방식과 사유내용의 특성을 안고있다. 문체의 특성이 바로 이러한 특

성 즉 사고방식과 사유내용의 특성에서 우리나라에게 된다.

그것을 비유해서 나무를 심어 꽃을 피우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땅에 뿌리를 묻어주면 얼마간 지나서 진액이 올라 가지가 빨고 잎이 돌아나며 그다음에는 꽃이 피어난다. 그것처럼 문체의 특성은 밖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속에서 피어나는 것이다.

옛 문인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였다.

《문장이란 무엇인가?》 학식이 속에 쌓인 다음에 그것이 마치 고향진미가 장위에 들어간 다음에 기름이 피부에 나타나며 좋은 술이 입에 들어간 다음에 붉은빛이 얼굴에 오르는 것과 같으니 문장을 어찌 밖으로부터 구할 것인가.》

이러한 경험들에 비추어 문체의 특성이 걸치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명백하다.

걸치장이 손재간을 낳는다면 속치장은 예술가적 자질을 낳는다.

여기로부터 작가는 일생동안 하루도 쉽없이 인내성 있게 예술가적 자질을 키워나가게 된다.

그것이 곧 끊임없는 관찰과 폭넓은 습작이다.

끊임없는 관찰과 폭넓은 습작은 예술가적 자질을 키우는 종합훈련이다.

끊임없는 관찰과 폭넓은 습작이 예술가적 자질을 키우는 종합훈련으로 되는 것은 그것이 남과 구별되는 독특한 눈, 예리한 눈만을 띄워주는 것이 아니라 현상과 상상을 불러일으켜주고 고상한 미학적 리상을 세워주며 자기다운 말투를 가지게 한다는 데 있다.

다시 말하면 관찰과 습작의 축적은 예술적 환상의 마당으로 되며 미학적 리상의 경지로 되며 자기다운 말투의 기초로 된다.

작가가 일생동안 관찰과 습작을 계속하여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예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어느 나라 작가를 막론하고 아무런 준비없이 훌륭한 작품을 써낸 실례는 없다. 그런 기적은 앞으로도 영원히 없을 것이다.

오직 작가에게는 일생동안 두 전선에서 싸우는 길밖에 없다. 여기서 두 전선이란 축적과 창작을 말한다. 축적은 전략적 전선이고 창작은 전술적 전선이다. 전략적 전선의 승리없이 전술적 전선의 승리가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러므로 축적과 창작의 관계는 일대일로 유지되어서는 안 된다. 경제운영에서 확대재생산의 몫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언제나 소비보다 축적을 앞세워야 한다. 경제의 발전이 확대재생산의 몫의 증대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창작의 발전 즉 작품의 깊이와 그량적 증대도 바로 그렇게 이루어진다.

작품의 풍격에서 일어나는 변화발전은 다름아닌 풍부한 예술가적 자질의 표현이다.

풍부한 예술가적 자질은 작품의 풍격에서뿐 아니라 창작하는 기풍에서도 나타난다. 일단 작품에 착수하면 언제 어디서나 사색하고 쓰는 것을 중단하지 않게 된다.

여기에 이런 일화가 있다.

소설가 리기영의 작가로서의 참모습은 어디에서나 사색하고 쓰는 것을 멈추지 않은 데서도 찾아볼 수 있었다.

장편소설 《두만강》 제 2 부에 착수하던 시기, 작가는 쏘련 제 2 차작가대회의 초청을 받고 먼 여행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기차에 올라서도 작가는 작품세계에서 살았다. 그는 언제나 작품의 첫 시작을 어렵게 뚫는데 그때도 그런 고심을 하고 있었다.

그는 자기의 창작경험에서 이렇게 썼다.

《...나는 제목을 달기보다도 더 어려운 것은 작품의 첫머리를 시작하는 그 첫 번째의 문장이라고 생각한다.》

실지 작가는 거의 모든 작품에서 첫머리를 두고 고심하였다. 장편소설 《두만강》 제 1 부를 창작할 때도 그랬었다. 작가는 술한 애플 먹은 뒤에 《바람이 분다.》로 첫 문장을 써놓고는 문장의 맛이 나지 않아서 수십 번을 고쳐쓰다가 드디어 《바람은 편사 흘째 분다.》로 시작하였었다.

그런데 이번에도 평양에서 모스크바로 가는 열흘 이상을 기차안에서 제 2 부의 첫머리를 놓고 모대기 고있었다.

모스크바가 거의 가까와왔을 때에 그 첫머리를 풀어내고야 말았다.

《산골의 가을철은 더욱 빠르다.

울긋불긋하던 단풍이 어느덧 시들고 개울물에는 아침저녁으로 살얼음이 지기 시작하였다.

북면 7 소는 사방으로 산이 뿔 둘러쌌다.

해발 800 메터의 가라지봉이 동쪽에 솟고 장식령 높은 산줄기 서북으로 둘러선 이 골짜기는 마치 호리병속과 같이 깊이 팽겨서 돈작만한 하늘이 빠끔이 쳐다보인다.

그우로 해가 떴다가는 총총히 서산으로 넘어가군 하였다.》

이것이 기차안에서 쓴 장편소설 《두만강》 제 2 부의 첫머리이다.

이 작가는 작품의 첫머리만 떴면 그다음부터는 술술 풀려나갔는데 그때도 기차가 모스크바역두에 당도한 것도 모르고 쓰고 있었다.

그는 원고지를 싸가지고 다니면서 려관에서 뉘고 병원에서 뉘었다.

작가적 기질은 작품의 풍격과 문체에 일치한다. 그것은 예술가적 자질에서 오는 조화이다.

관찰자료와 그 축적과정에 생겨난 습관은 창작에서 작가적 기질로 나타난다. 관찰에서의 근면이 창작에서의 정열로 되고 숙련이 기질로 되는 것이다.

소설가 리기영은 관찰자료와 그 축적을 중시한 작가이다.

그의 여러 창작경험들에서 그런 내용을 뽑아본다.

《생활을 잘 알자면 직접 다방면으로 풍부한 체험을 쌓는것이 좋고 또 작가적인 눈으로 생활현실을 주의깊게 꾸준히 관찰연구해야 한다.》

《…사람의 한평생에 모든 인간생활을 다 직접 체험할수는 없는 일이니 남의 경험을 많이 이야기로 들으며 부지런히 독서를 함으로써 일상적으로 축적해두어야 한다.》

《작가는 세상의 억천만사를 다 잘 알수록 더욱 좋다. 지어는 소나 개의 심리와 빈대와 벼룩이 알을 까서 새끼치는것까지도 아는것이 좋다.》

《작가의 학교는 생활이다.》

이것이 오랜 창작생활에서 찾아낸 이 작가의 경험이며 교훈이다.

소설가 리기영은 작품을 쉽게, 빨리, 훌륭하게 창작한 작가들중의 한 사람이였다. 그가 작품을 쉽게, 빨리, 훌륭하게 창작할수 있는 비결은 어디에 있었는가?

그 대답은 명백하다. 이 작가는 자기가 관찰하고 축적한 생활로 하여 막히는데가 없었다. 사실 잘 아는 생활을 잘 쓸수 있는것이지 잘 모르는 생활을 잘 쓸수는 없는것이다.

관찰자료에는 직접적인 체험과 간접적인 체험이다 포괄된다. 거기에서 작가자신이 체험한 생활은 특별한 가치를 가진다. 작가에게는 쓰기 쉽고 독자에게는 실감을 주는 생활이 바로 그런 생활이다.

소설가 리기영의 거의 모든 작품이 작가자신이 직접 체험한 생활에 기초하여 씌여졌다.

장편소설 《땅》도 작가자신이 해방전에 농사를 짓던 내금강 병이무지리를 무대로 하여 토지개혁의 역사적 사변을 반영한 작품이다.

작가가 품을 들여 작품을 썼다고 할 때 집필에 앞서 생활체험과 그 축적에 바친 품을 먼저 생각해야 할것이다. 그래야 작품을 쉽게, 빨리, 훌륭히 쓰는 비결이 해명된다. 동시에 어디서나 사색하고 쓰는것을 멈추지 않는 습관이 또한 어떤 과정에서 몸에 밴것인가 하는것이 해명된다.

이러한 리해를 가지고 다시 총서 《별들의 력사》중 장편소설 《준엄한 전구》에서 생동한 표상을 주는 문장에 리용된 다른 수법들을 찾아보자.

### 점층법으로 표현한 실례

점층법이란 의미상으로 약하고 강한 순서로 단어나 단어결합을 점차 쌓아나가면서 내용을 강조하고 감정의 고조를 나타내는 수법이다.

이 수법을 감정적 고조, 논리적 고조, 량적 고조에 의하여 이루어지므로 앞의 단어나 단어결합보다 뒤에 오는 단어나 단어결합이 감정적인 면에서 더 강

하고 논리적 면에서 더 중하며 수량적인 면에서 더 커야 한다.

이 수법이 어떻게 리용되고있는가를 예를 들어 분석해보자.

…우메즈는 우에다의 속대사를 날날이 읽고있었다. 그 말속에는 대본영의 해임조치에 대한 **불만**, 어제 해임전보를 받았는데 오늘 벌써 인계받겠다고 북지전선에서 비행기를 타고 날아와 마주앉은 우메즈에 대한 **야스꺼움**, 지금은 꽃꽂해서 마주앉아있지만 너도 별수 없으리라는 **비웃음** 등 우에다의 교악한 심증이 독하게 풍겼다.

이 레문은 관동군사령관실에서 신임사령관 우메즈가 선임사령관 우에다의 뒤틀린 감정을 들여다보는 장면의 한 대목이다.

여기서 《불만》, 《야스꺼움》, 《비웃음》은 의미상으로 약하고 강한 순서로 단어를 쌓아나간 감정적고조의 표현으로 된다.

이러한 표현이 침략군내부의 모순과 두 거물의 성격적 개성을 얼마나 생동하게 잘 드러내었는가. 작가의 견지에서 보면 이것은 심리에 대한 분석적인 묘사이기도 하다. 이것은 분석적인 묘사가 점층법에 의해서도 이루어진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작가가 쌓아본다는것은 결국 분석해본다는것을 의미하며 그것은 곧 점층법의 리용으로 된다는것을 말하여주고있다.

만일 작가가 약하고 강한 순서로 쌓아보지 않고 의미상으로 강한 하나만을 관찰하였다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이렇게 표현했을것이다.

《지금은 꽃꽂해서 마주앉아있지만 너도 별수 없으리라고 비웃은 우에다의 교악한 심증이 독하게 풍겼다.》

이 표현이 앞의 레문보다 표현적 질이 낮은것은 우선 침략군내부의 모순이 강조되지 않고 다음은 두 인물의 성격적 개성이 강조되지 않으며 감정적고조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있다.

방금 성림에게서 들은 장군님의 한량없으신 의리와 인정에 대한 이야기와 그자신 한달동안 산속에서 듣고 보고 체험한 모든 사실들은 이밤 온세상을 비쳐주는 저 추석달마냥 한평생 **인정에 메마르고 의리에 거칠어지고 도리에 어두워졌던** 최인관의 가슴속에 가득가득 맑고 깨끗하고 부드러운 빛을 비쳐주는듯싶었다.

이 레문에서 《인정에 메마르고》, 《의리에 거칠어지고》, 《도리에 어두워졌던》은 논리적 고조의 표현으로 된다. 한것은 인정에 메마른것보다 의리에 거칠어진것이 더 중하고 의리에 거칠어진것보다 도리에 어두워진것이 더 중하기때문이다.

이렇게 쌓아본것으로 하여 장군님의 인간적 풍모의 위대성앞에서 잘못 살아온 자기의 한생을 돌이켜 보는 최인관의 위우침을 더 바랄나위없이 생동하고 웅심깊게 표현하였다. 이것 역시 최인관의 심리에 대한 분석적인 묘사로 된다.

레문을 다시 주시해보면 쌓아보는 논리적 고조의 표현이 한곳이 아니라는것을 인차 알수 있다. 즉 《듣고》, 《보고》, 《체험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 듣는것보다 보는것이 더 중하고 보는것보다 체험하는것이 더 중하다는것은 논리적인 순차이다. 이러한 논리적 순차성이 표현하려는 내용을 강조해줄뿐 아니라 감정적 고조를 동시에 나타내었다.

《무심하오. 중훈이, 너무 무심하단말이요. 우리가 함께 총을 잡고 걸어온 길은 **십만리도 넘고 이십만리도 더 될텐데** 그 험한 길을 이날이때까지 함께 걸어 오다가 어찌 이렇게 불쑥... 우리를 남겨두고 동무 혼자 가는 법이 있단말이요 ! ...》

이것은 사령관동지께서 북만의 얼음땅밑에 널한 장 깔지 못하고 묻은 오중훈련대장의 무덤을 어루만 지시며 절통해하시는 말씀이다.

여기서 《십만리도 넘고》, 《이십만리도 더 될텐데》는 수량적 고조의 표현으로 된다. 멀고 험한 길을 함께 걸어오다가 승리의 날을 보지 못하고 가는 전사에 대한 사령관동지의 원통함이 《십만리도 넘고》, 《이십만리도 더 될텐데》에서 두드러지게 강조되면서 고조를 이루고있다.

이상의 세가지 실례는 총서 《불멸의 력사》 중 장편소설 《준엄한 전구》에서 점층법은 주로 심리에 대한 분석적인 묘사에서 리용되고있다는것을 알 수 있다.

### 떨거법으로 표현한 실례

총서 《불멸의 력사》 중 장편소설 《준엄한 전구》에는 떨거법의 리용으로 생동한 표상을 주는 문장도 적지 않다.

떨거법이란 내용상으로 련관된 여러가지 사실을 다 쏘아내려가면서 섬세하게 표현하는 수법이다.

우메즈는 **어깨에 단 별로 보나 룡군대학 선배라는 의리로 보나 또 노몽한전쟁의 참패를 책임지고 나 앓은 처참한 심경을 헤아려보나** 잘 대접하여보낼 작정이었으나 우에다의 독한 그 한마디에 그만 속이 쏙 쏙이 살아올랐다.

이 레문에는 가림토 《나》를 반복리용하면서 외형에서 오는 차이, 경력에서 오는 차이, 처지에서 오는 차이 등 둘사이의 차이에서 빚어지는 미묘한 심리

의 관찰이 놓여있다. 이 세가지 사실의 떨거는 결국 그들의 차이를 다 드러낸것으로 된다. 즉 하나하나 쏘아가면서 그들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차이점 전체를 펼쳐놓았다.

작가가 뜯어본다는것은 곧 대상을 립체화하고 화폭화한다는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대상, 현상을 립체화, 화폭화하는데서 중요한것은 전체가운데서 본질적이고 특징적인것을 펼쳐보이는것이다. 본질적이고 특징적인것의 떨거일수록 립체미, 화폭미는 더욱 생동해지고 감정정서적 색깔은 더욱 진해진다.

언제나 어머님께서 **두 동생을 앞세우시고 마중하여주시던 토기점골 개울가에 서있는 초가집, 추녀밑에는 장군님께서 좋아하시는 버섯이며 산천어 말린 것이 주렁주렁 달려있던 그 집, 가을이면 널어놓은 빨간 고추가 멀리서도 눈에 띄우던 고삭아 기울어진 초가지붕, 고개 하나 넘으면 지척에 그 집은 있건만 그 고개를 넘어 장군님을 맞아주실 어머님과 동생들은 어찌하여** 이제는 없단말인가.

**개암나무, 싸리나무 우거진 등성이, 허리굽은 늙은 느티나무 한그루 서있는 그 언덕에 누워계시는 어머님, 십년세월 풍상에 씻긴 그 무덤에 잡초인들 얼마나 무성해졌을가...**

이것은 장군님께서 10 년만에 량강구땅을 지나시며 강건너편에 있는 토기점골의 집과 어머니를 감회깊이 추억하시는 대목이다.

초가집과 결부하여 떨거한 특징적인 세가지, 무덤을 중심으로 떨거한 특징적인 세가지는 토기점골을 생동한 화폭으로 보여주고있을뿐아니라 어머님에 대한 장군님의 그리운 감정을 한껏 부각시켜주고있다.

이것은 가림토없이 떨거되는 구체적인 여러가지 사실들이 같은 정서적 색깔로 물들여진것이라는것을 알수 있게 한다. 앞의 레문이 축은한 감정으로 물들여진것이라면 뒤의 레문은 그리운 감정으로 물들여진것이다.

한용수네 대원들은 **콩기름통 깨지겠다느니, 사탕가루가 터진다느니, 밀가루가 샌다느니** 떠들썩하였다.

이것은 오중훈련대장이 장군님께서 추석명절을 걱정하고계신다는것을 알아채고 두차례의 전투를 벌려 로획한 후방물자들을 사령부에 넘겨주는 대목의 한 문장이다.

짐을 넘겨받는 대원들도 기쁘지만 짐을 넘겨주는 대원들은 더욱 유쾌하다. 가림토 《느(거)니》를 반복리용하면서 콩기름과 사탕, 밀가루 그 하나하나에 깃든 깊은 뜻을 알고있는 대원들의 다심한 감정을 얼마나 생동한 화폭에 물들여놓았는가.



## 단편소설

## 량심의 길

리명호

## 1

나는 지금 X X 교도소의 좁고 누기찬 감방에서 이 글을 쓴다.

교도소의 감방! 이 말에 군은 놀랄수도 있다. 오직 학문밖에 모르던 나였으니만큼 군으로서로는 그럴 수밖에 없을것이다.

철훈이! 배움에 대한 우리의 지향이 서로 다름을 알게 된것은 대학 도서관에서 있던 그 리념씨클모임에서였지. 그날 나는 책을 뒤지고있다가 우연히 자네들의 모임에 끼여들게 되었다.

그때 군이 토하던 열변은 지금도 내 귀전에 생생히 남아있다

《...우리 젊은 학도들이 자기의 순결한 사명과 이 시대를 자각한다면 민중과 리탈된 절대의 학문탐구, 상아탑속에서만 리상을 찾는 자아리기적 배움에 종지부를 찍어야 할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순과 불의의 현실을 외면하지 말아야 하며 그것은 우리 젊은 학도들의 탐구적 자세가 아니라는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긴 여운을 남기며 열람실을 울린 군의 토론은 많은 학우들의 박수를 받았다. 하지만 나는 군의 견해에 동감할수 없었다. 군의 론조에는 나로서는 찬동할수 없는 문제-학문에 사상을 부여하려는 정치인들의 주의주장같은것이 있었기에.

그것이 나로 하여금 저도 모르게 일어나 군의 견해를 반박하게 했다.

《이랬든저랬든 학원의 기풍은 학문연구여야 한다. 하여 각자가 현대과학의 최첨단에 도달하는것, 이것이 가난한 이 나라를 부유하게 만드는 길이며 곧 민중을 위한 학문탐구자세이다.

탐구 또 탐구! 나는 이것이 학도들의 근본자세라고 생각한다.》

나의 반박에 맨먼저 공감해준것은 우리 상급생으로서 공과에 다니던 우배덕이었다.

그는 누구보다 크게 박수를 치며 벌떡 일어나 《옳다! 탐구는 모든 학문의 알파이다.》라고 웨치기까지 했다. 뒤따라 투덕투덕거린 몇명의 박수소리... 나의 반박에 대한 지지는 그것이 전부였다.

나는 군들의 토론을 듣느니 차라리 하숙에 가서 공부하는편이 낫겠다는 생각으로 책을 걷어 들고 열람실을 나오고말았다.

나의 하숙은 대구시치고도 유족인 빈민촌 복무동, 전차에서 내려 연재가 북덕북덕 밝히는 《아메리칸-커리어》 회사산하 OO 공장의 거무칙칙한 담장옆길을

따라 걸으며 나는 방금 있던 리념씨클모임에 대하여 생각했다.

혹시 내가 필요없는 반박을 한것이 아닐가? 각자에게는 제나름의 일가견이 있는 법인데... 그렇지만 나는 내 신념에 따라 행동했을뿐이다. 말자체가 리념씨클이 아니었던가

그렇다. 나에게는 나대로의 리념이 있었다. 강원도 삼척의 외진 산골에서 나서자란 나는 어려서부터 가난한 소학훈장이었던 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배움은 인간의 제일가는 미덕이니 부지런히 배우는자에게는 반드시 성공이 온다.》는 말을 좌우명처럼 외우며 교단에서 늙어온 청렴한 아버지의 훈도는 그대로 어린 나의 녀에 심어졌고 나이와 함께 자랐다.

내가 대학으로 떠나던 날도 아버지는 두그루의 백양나무가 서있는 동구밖까지 따라나와 이런 말로 나를 배려해주었다.

《창수야, 대대로 이 나라가 가난하고 불행한것은 무식과 후진에 그 원인이 있었다. 뉴톤이나 아인슈타인같은 과학의 <신>들은 말고라도 에디슨형의 실천 과학자 한사람도 변변히 없었던 나라, 많은건 권좌를 노리는 정치적 야심가들뿐이었지. 그들이 해놓은 일이란 결국 나라를 망하게 하고 백성들에게는 가난을 가져다준것뿐이었다... 너는 그만하면 수학적 두뇌가 출중한편이다. 정치파워엔 조금도 개의치 말고 오로지 수물학에만 전념하거라. 나는 너의 성공을 믿는다.》

이 나라 력사의 《총화》와도 같은 아버지의 의미심장한 당부를 들으며 나는 그때 맹세다졌다.

기어이 성공하리라. 하여 아버지의 믿음에 보답하고 이 땅의 민중에게 과학의 덕을 입히리라!

철훈이! 자네를 반박하던 당시의 나는 아버지로 부터 받은 이런 세습관념과 천진한 꿈에서 깨지 못한, 성공의 야심으로 가득한 인간이었다.

《아저씨, 대학생아저씨!》

생각에 몰하여 하숙집 대문앞까지 왔을 때 누가 찾는 소리에 돌아보니 골목길로 웬 처녀애가 쫓아오고있었다.

열서너살 되었을가, 중발을 하고 감장치마에 낡고 후렁후렁한 잠바를 걸쳤는데 동글납작한 귀여운 얼굴에 비해서 생기가 없고 눈에는 우수와도 같은것이 비껴있었다.

《나를 찾니?》

처녀애는 머리를 까딱거리고나서 물었다.

《아저씨가 <아인슈타인>이냐요?》

나는 어안이 병병했다.

《내 이름은 창수다. 아인슈타인은 독일의 유명한 학자이고…》

내 말에 처녀애는 보조개를 파며 썰물 웃더니 등 뒤에 감추었던것을 내앞에 내밀었다.

《그래도 아저씨가 뭘 이 수첩에는 아인슈타인 이라고 썼던데요?》

수첩을 보자 나는 놀랐다. 그것은 나의 수학공식 집이었다. 대학 2년간 수백권의 참고도서를 들추면서 뽑아낸 내 지식의 《고간》으로서 언젠가 우배덕이 감탄하며 장난삼아 이름란에 《아인슈타인》이라고 써넣은것이였다.

《너 이걸 어디서 얻었니?》

《저기 길에서요. 난 아저씨 뒤를 따라오고있었어요. 그런데 아저씨 그걸 떨어진줄도 모르고…》

《고맙다.》

정말 고마웠다. 그 공식집은 내 재산중에서 제일 귀중한것이였다. 무엇으로 사례해야 할지 몰라 망설이던 나는 주머니에서 만년필을 뽑아들었다.

《자, 받아라. 줄거란 이것밖에 없구나.》

그러나 처녀애는 고개를 살래살래 저으며 한걸음 물러섰다.

《저에겐 만년필이 필요없어요. 아저씨나 걸루 공부 잘하세요.》

처녀애가 종시 받지 않는바람에 다소 어색해진 나는 그럼 이름이나 알고지내자고 하였다. 그는 부끄러운듯 몸을 꼬더니 《박순녀예요.》 하며 귀밀을 받그레 물들였다.

《순녀라… 집은 어디니?》

《저기 수도칸이 있는.》

순녀는 몸을 돌려 크고작은 갖가지 물초롱들이 꼬리잡이를 하고 늘어선 공동수도를 가리켰다.

《그옆에 함석이영을 올린 집이에요.》

《그래? 한데 나는 늘 그옆으로 다니는데 어째서 너를 처음 볼가?》

《전 노상 밤작업을 하니까요.》

《밤작업이라니? 너 공장에 다니니?》

《네. 저기 00 공장예요.》

《음…》

별로 놀라운 일이 아니였다. 오늘 이 땅의 회사회고 소녀공들의 피땀을 짜내지 않는 경영주가 몇이나 되는가. 하지만 동정만은 금할수 없었다.

《집식구는 몇이나?》

《넷이에요. 동생이 둘하고 어머니… 어머니는 여려해제 앓고있어요.》

《아버진?》

《아버진 전년에 돌아갔어요. 공장에서 사고가 나서…》

나는 비로소 이해되였다. 왜 순녀의 얼굴에 생기가 없는지 그리고 천진한 그의 눈에 비친 우수가 무엇때문인지도.

《그럼 난 갈래요.》

총총히 멀어져가는 순녀를 서운한 눈길로 바라우며 나는 마음속으로 당부했다.

(순녀야, 내 오늘은 너를 빈손으로 보낸다만 기다려다오. 너도 언제인가는 이 《아인슈타인》의 덕을 입을것이다.)

소녀공 순녀의 가공한 모습은 나를 더욱 탐구로 떠밀었다.

《상아탑속의 두더지!》 이것이 그 시절 나의 다른 이름이였다. 그때 나의 사고반경은 대학강실과 도서관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했다. 덕분에 나는 2학년 때부터 사회학과 수석학생이었던 군과 어깨를 나란히 세울수 있었으며 벼들의 선망어린 눈길과 찬탄 속에서 살았다.

하지만 철훈이, 탐구의 길에는 늘 미적분방정식이나 로그함수들만 놓여있는것이 아니였다. 공납금이라는, 가난한 대학생으로서는 매우 풀기 어려운 《생활수학》도 놓여있었다.

## 2

철훈이, 군도 기억하겠지. 공납금 미납으로 우리가 대학 서무과에 불려가 추궁받던 일을… 그것은 3학년 첫 학기에 있는 일이였다. 나홀안으로 몰지 않으면 《출학처분》이 있을것이라는 경고를 받고 나왔다. 밖에서는 교학생의 서글픈 눈물인양 가을의 찬비가 추적추적 내리고있었다. 전차에 오를 부스럭 돈도 없어 그 비를 고스란히 맞으며 숙소에 들어서니 얼굴에 웃음을 뽐양게 바른 하숙집 안주인이 여느때 없이 반겨맞아주었다.

《그러다 감기라도 만나면 어쩔려구…》

녀인은 물주머니가 된 나에게 동정의 눈빛을 뿌리며 은근히 물었다.

《새 학기가 시작되였대지요?》

《예…》 지난달 숙식비를 독촉하는 소리임을 대뜸 짐작했으나 대답할 말이 없었다. 그러자 금시 웃음이 끊던 녀인의 얼굴에 살얼음이 건너갔다.

《이달 보름까지 안물면 판 손님을 들일줄 알아요.》

《…》

대학에 가도 하숙에 와도 무정한 추방의 《경고》만이 나를 기다렸다.

이 땅은 어디 가나 인정사막이였다. 사하라사막에도 오아시스가 있다지만 이 땅에는 가난한 교학생이 잠시라도 숨을 돌려갈 오아시스조차 없었다.

그러나 철훈이, 그때 《당국》의 조치로 휴교령이 내렸다. 《소란스러운 10 월》과 함께 대학가에 벌어진 반 《정부》 소요가 대학문을 닫게 했던것이다.

그것이 얼마나 다행스럽던지, 전국을 휩쓴 반독재민주화투쟁의 거센 파도를 나는 나에게 차려진 휴식으로 맞이했다. 숙식비도 절약하는 겸 고향에 내려가 무슨 작정이든 하여보려고 마음먹었다.

나는 행장을 갖추고 대구역으로 나갔다. 정거장에는 뜻밖에도 우배덕이가 나와있었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그의 아버지는 《아메리칸-커리어》라는 별스런 이름의 회사사장이라고 한다. 실업가의 집안에서 나서자란 사람치고는 서글서글하고 인정미가 있다는것이 대학가일반의 평이었다. 다만 리념씨클이요 데모요 하는 현실참여에는 모르쇠를 한다는 것이었다.

언젠가 도서관에서 있는 그 모임때 그가 나의 주장을 적극 지지해주었다는것은 군도 기억할것이다.

배덕은 둥글넓적한 다혈질의 얼굴에 사뭇 놀랍다는 표정을 띄우며 물었다.

《집으로 간다면서?》

《그렇게.》

《이렇게 답답한 친구라구야. 가면 간다고 알리기도 할노릇이지. 었네, 주머니에 돈이 말라 이것밖에 준비 못했네.》

배덕은 가방에서 꺼낸 큼직한 종이꾸레미를 나에게 안겨주는 것이었다.

《이게 뭐가?》

《뭐 별건 아니네만. 이건 요새 유행하는 녀자들의 옷감이고 이런 귀여운 따님을 위한 탕과와 놀이감… 뭐 변변치 못하지만.》

《…?!》

나는 속이 몽클하였다. 결국 이 땅은 인정사막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 오아시스도 있는 듯싶었다.

우배덕의 후한 인정을 가슴 무뎌 안고 고향의 역두에 내려 마을에 당도했을 때는 이미 어둑어둑 땅거미가 기여다닐 무렵이었다. 집집의 굴뚝들에서는 저녁연기가 피어오르고있었다. 안해도 지금쯤은 저녁끼를 끓이고있든가 혹은 딸애를 아래목에 잠재워 놓고 바느질을 하고있으리라. 아무 예고도 없이 나타난 남편앞에서 놀라고 어리둥절해할 순박한 안해를 눈앞에 상상해보며 나는 살짝문을 밀고 마당에 들어섰다.

《여보 !》

방안에서는 아무 기척이 없었다. 그제야 나는 창가에 불빛이 없음을 깨달았다.

벌써 군잠이라도 들었는가? 나는 잠든 안해를 놀래우지 않으려고 우정 헛기침을 하며 토방에 올라 문고리를 당겼다. 그런데 방은 텅 비어있었다. 노란 장판구들에서 창가로 흘러드는 푸른 달빛만이 제멋대로 어리광치고있었다. 서운하고 허전한 가슴을 달래

며 나는 거의 한식경이나 빈방을 지키고 앉아있었다. 또 한시간… 안해는 여전히 돌아올 줄 몰랐다.

이게 어찌된 일인가? 어디로 무얼하러 갔기에 아직 돌아오지 않을까?

부지불식간에 《밤거리녀인》 들에 대한 이야기가 떠올랐다.

《시체 녀성들은 정조라는것을 현누데기만큼도 안여긴단말이여.》

누가 말했던가? 오, 배덕이가 그랬었지. 그럼 혹시 안해도?… 아니, 내가 무슨 생각을… 나는 곧 머리를 흔들었다.

지금까지 나를 위해 모든것을 다 바쳐온 지극한 안해를 어떻게 감히 의심할수 있단말인가? 그렇다면 어디로 갔을까? 이렇게 밤늦도록…

문득 지난봄 아버지의 장례를 치른뒤 안해가 내놓던 돈봉투가 떠올랐다. 그때 안해는 아버지가 남긴 것이라고 했지만 이제 와서 따지고보면 그 돈의 행처도 의심스럽기 짝이 없었다. 아버지가 교단에서 내린지가 언젠데 무슨 돈이 아직 남아있었을 것인가. … 나는 저도 모르게 마당으로 나갔다.

안해가 돌아온것은 바로 그때였다.

《아니, 당신이 어떻게…》

안해는 놀라움과 반가움을 앞세우고 마당에 들어섰다. 그런데 안해의 행색은 말이 아니었다.

몹시 지친듯 휘청거리는 몸가짐, 군데군데 흠이 묻고 구겨진 나들이치마, 초점없는 풀어진 눈길…

의심이 병이라고 가뜩이나 좋지 않은 생각을 하고있던 나는 안해의 수상쩍은 정상에 저도 모르게 신경이 곤두섰다.

《어딜 갔댔소?》

황황히 토방에 올라서던 안해는 나의 날카로운 물음에 흠칫 몸을 떨며 문설주를 짚고 섰다.

《저. 거리에…》

안해는 당황해하며 뒤말을 잇지 못했다.

《거리? 무슨 일로?》

《…》

대답대신 안해는 눈길을 떨구었다. 그것으로 나의 의심은 극한에 이르고있었다. 나는 금시 폭발하려는 감정을 간신히 다잡으며 다시 한번 물었다.

《앤 어떻게 했소?》

《옆집에 말…》

안해는 말끝을 여물구지 못한채 《으-음》 외마디 신음소리를 냈다. 뒤따라 안해의 몸이 문설주를 타고 스프르 미끄러져내리더니 문턱을 깔고 어꾸러졌다.

《으응?!》

이런 사태를 전혀 예견치 못했던 나는 깜짝 놀라며 급기야 안해를 부여안았다.

《아니, 여보! 왜 그러오. 응? 왜 이러냐말이요?》

하지만 축 늘어진 안해의 몸에서는 숨결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당황한 나는 안해를 방에 들여다 눕히고도 어찌할바를 몰라 잠시 우두커니 내려다만 보았다. 그러다 뒤늦게야 인공호흡을 시킨다, 손을 주른다, 인증을 비빈다 하며 덤벼쳤다. 웬일인지 왼팔을 다칠 때마다 안해는 흠칫흠칫 몸을 떨었다. 그렇게 한참 땀을 흘리며 신고한 덕분인지 창백하다 못해 푸르게 보이던 안해의 얼굴에 피기가 돌고 숨결도 고르로와졌다. 《후-》 안도의 숨이 나갔다. 그러자 다칠 때마다 흠칫거리던 안해의 왼팔에 신경이 썩여져 나는 팔소매를 조심히 거두어올렸다. 어디선가 소독약냄새가 풍겼다. 허리를 굽히고 손목으로부터 위로 더듬어올라가며 유심히 살피던 나는 관절부위에서 눈길을 멈추었다. 푸른 정맥이 지나간 흰살갗우에 주사침을 꽂았던 빨간 점이 보였다. 순간 나는 온몸의 피가 얼어붙는 듯한 고통으로 눈앞이 캄캄해왔다.

(혈액원?!)

...하얗게 질린 얼굴, 초점없는 풀어진 눈길, 휘청거리던 몸가짐, 그 정상은 분명 피를 뽑은 사람의 모습이었다.

나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안해의 가방을 헤집었다. 꺼여진 낱알이며 혈액원명판이 찍힌 돈봉투 그리고 웬 편지가 되구마구 뒤섞여있었다. 나는 그 편지를 집어들었다. 그것은 얼마전 대학에서 공납금과 하숙비를 보내달라고 내가 쓴 편지였다.

결국 안해를 그 저주로운 혈액원으로 내몬것은 나였다.

아, 철훈이, 그때의 내 심정을 무엇이라고 말하면 좋을지?!...

나는 자신의 덜된 처사에 스스로 혐오를 금할수 없었다. 차라리 이 못된 인간을 저주라도 했더라면...

그러나 정신을 차린 안해는 오히려 제편에서 죄스럽고 민망스러워했다.

《용서하세요. 오래간만에 오셨는데 이런 꼴을 보여서...》 하며 안해는 해쓱한 얼굴에 가냘픈 미소를 피워무는것이였다.

웃는 안해의 마음, 그 마음이 이 가슴을 더 울렸다. 없는 살림에 부담만 더해주는 이 못난이때문에 이날이때까지 고생속에서 살아온 안해이다. 하면서도 불평 한번, 우는소리 한마디 한적 없는 그 안해, 차라리 신경질이라도 부리고 불만이라도 탁 터쳐놓았다면 이 가슴이 것처럼 아프고 쓰리지는 않았을것이다.

아아, 철훈이, 인생이란 이다지도 모질고 험난한 것인가. 안해의 피를 팔아 얻는것이 지식이라면 그따위 공부는 해서 무엇하랴.

### 3

하지만 철훈이, 지어먹은 마음이 사흘 못간다고 나의 결심은 사흘이 못가서 허물어지고말았다.

감정의 폭발이 일단 가라앉자 배움에 대한 잠재의식은 흐르는 시간과 더불어 다시 옹터오르기 시작했다. 안해의 눈물어린 호소가 그것을 더욱 부채질했다고 할가.

《...한해만 더 참으면 되겠는데 이제 와서 그만두다니... 안돼요. 내 다시는 혈액원에 가지 않을테니 어서 대학으로 돌아가세요.》

그래도 내가 응하지 않자 안해는 야속한 나머지 최후통첩같은 말을 하는것이였다.

《이봐요. 당신은 정말 제 가슴이 터지는걸 보고싶어 그러세요, 예? 전 아무리 무식한 녀자라도 남편하나 공부 못시키는 안해로 살고싶지 않아요. 그런 때면없고 무뎡한 안해로 사느니 차라리 전, 전...》

철훈이, 이처럼 지극하고 헌신적인 안해에게 내가 무슨 말을 할수 있었겠나. 나는 건잡을수 없이 흘러내리는 눈물속에서 맹세했다.

내 기어이 대학을 졸업하리라. 물고뜯고서라도, 하여 안해의 피를 헛되게 하지 않으리라. 성공으로 그 안해를 행복의 상상봉에 올려앉히리라...

이리하여 나는 모진 마음을 먹고 대학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소란스러운 10월》의 영웅인 군과도 다시 만날수 있었다.

그날도 나는 도서관열람실 한구석에서 《로보트공학》에 심취되어있었다. 그 책에서는 로보트의 개념을 이렇게 정식화하고있었다.

《로보트란 인간의 의지에 따라 움직이는 고도로 자동화된 능률적인 기계이다.》라고.

지금 생각해보면 그날 읽은 그 책내용자체가 앞으로 내 운명에 대한 그 어떤 계시였던것만 같다.

몇시나 되어서인지 갑자기 웅성거리는 소리에 나는 책에서 눈을 들었다. 언제 들어왔는지 수십명의 학우들이 여기저기 모여앉아 무엇인가 수군거리고있었다. 이따금 시계를 들여다보기도 하고 출입문을 훌끔훌끔 쳐다보는것으로 미루어 나는 그들이 누군가를 기다리는것이라고 짐작했다. 그때 바로 다름아닌 군이 문가에 나타났다. 나는 다소간 놀랐다.

또 리념씨클모임인가? 이번에는 어떤 주의주장일 것인가? 모종의 호기심이 자석과도 같이 나를 의자에 붙들어매두었다. 작년 어느땐가 뜻밖에 끼여들어 군의 연설을 반박했던 그 모임이 회상되어서였다. 이윽고 군은 연탁앞에 나섰다.

《제군, 오늘 우리가 탐구하는 과학의 세계는 놀라우리만큼 발전하고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부모형제들은 의연 빈궁선아래에서 살고있으며 웅당한 그혜택을 누리지 못하고있습니다. 여기 모인 학우들중에도 혈액원을 찾거나 신문팔이, 잡심부름군같은 고달픈 로동에 과학의 운명을 싣고있는 사람이 얼마입

니까? 과학의 진보가 이 현실에 가져다준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것은 무엇때문입니까? ...》

과학의 진보와 현실의 빈궁, 나는 머리가 뱅뱅해졌다. 언젠가 군의 연설을 반박하던 그때와 같은 충동은 일어나지 않았다. 마치도 나의 체내에서, 피와 땀속에서 생활의 고충이 가져다준 그 어떤 파란 싸이 움터오르는것 같기도 했다.

나는 지금까지 현실참여와 학문탐구라는 두 길을 갈라놓고 후자를 택하고는 거기에서 자기 위안을 찾아온 사람이다. 나는 이 길을 택한것을 한번도 후회하지 않았다. 어쨌든 학생의 본분이야 학문탐구가 아니겠는가. 그리고 그것이 장차 민중을 위해 복무하는 길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사람들은 오늘을 가리켜 과학기술의 시대라고 부르는것이 아닌가!

철훈이, 나는 이렇게 자기 주장의 정당성을 증명하는 논거들을 끌어다대며 자신의 주위에 울타리를 높이 둘러치려고 애썼다. 그러나 가슴속에서 울려오는 다른 목소리에 귀기울이지 않을수 없었다. 너의 생각이 그렇게 옳은것이라면 저 수많은 학우들의 열광적인 박수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물론 진리가 항상 다수에 있는것은 아니다. 허나 설사 네가 아무리 총명하고 선견지명이 있다손쳐도 저들 모두를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떠나서 사는 사람들이라고 볼 근거는 너에게 없지 않은가? 울타리가 높으면 높을수록 주위세계와는 멀어지기마련이다. 갇힌 마음, 갇힌 생각속에서 정의와 양심을 운운하는것자체가 불의와 위선을 옹호하는것으로 되지는 않을까?

나는 자체모순에 빠져 언제 모임이 끝났고 어떻게 밖으로 나왔는지도 알지 못했다. 대학정문가에서 군이 어깨를 툭 쳤을 때에야 정신을 차렸다.

《창수군은 언제 봐야 사색중이군. <로봇공학>이라...》

내 손에 들려있는 책을 보며 군은 고개를 끄덕거렸다. 나는 책을 가방에 넣으며 말했다.

《군에게야 흥미없을테지.》

《왜 그렇게 생각하나?》

《군의 전공이야 사회학이 아닌가?》

《사회학도 로봇공학을 노상 배제하는거야 아니지.》

《모를 소릴세.》

《그래? 그런데 창수군은 그 로봇학을 누굴 위해 연구하나?》

역양은 부드러운이나 군의 물음은 심각한 의미를 담고있는것 같았다.

《그야 이 땅의 민중을 위해서지.》

나는 평상시 생각을 그대로 되풀이했다.

《오늘의 현실에서 그것이 가능할까? 양심인들의 지성이 과연 민중을 위해서 참답게 복무할수 있다고 생각하나?》

《복무할수 없다고는 생각지 않네.》

《근거는?》

《기술적 진보가 물질적 부의 증대를 가져오는것만은 부인할수 없는 사실이 아닌가!》

군은 인상좋은 그 얼굴에 빙글썩한 미소를 담았을뿐 별로 닳하는 기색도 없이 머리를 가로저었다.

《나 역시 그건 부인하지 않네. 그러나 물질적부가 늘어난다고 해서 그것이 곧 민중을 위해 복무한다고 말할수 없네. 왜냐하면 그 부의 분배에서는 역사적으로 불공평성이 존재했거든. 오늘 이 땅의 현실이 그것을 웅변적으로 증명해주고있지 않나. 그렇다면 새로운 자동흐름선이라든가 로봇트를 연구개발한 또는 개발할 레컨대 군과 같은 탐구자들의 역할이란 하상 무엇이겠나? 그것은 싫든좋든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권력자들의 의지대로 움직인데 불과한것이 아니겠나?》

군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나를 바라보았다.

《글쎄 난 사회학이 전공이 아니여서 그런지 잘 리해되지 않누만. 그래서 로봇트에 관심한다는건가?》

《나뻘 생각지 말게. 내가 말하고저 하는것은...》

그때 웬 우악스러운 손이 뒤로부터 군의 어깨를 거머잡았다.

《가자, 네가 이자 도서관에서 주의사상을 지껄이던 자지?》

사복형사놈들이었다.

《그렇소. 도대체 왜 그러오?》

《가면 알게 돼.》

놈들은 다짜고짜 군의 손에 수갑을 채우더니 왈살스럽게 어깨를 툭 밀쳤다.

나는 저도 모르게 주먹이 불끈 쥐여졌다.

《여보시오. 당신들은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을 왜 체포하는거요?》

《어랍쇼. 또 한명의 <용공분자>를 양성했군.》

형사놈의 살기띤 눈초리는 내 얼굴을 토막토막 썰는듯싶었다.

《넌 또 뭐냐? 너도 주의주장에 환장한놈이나? 감방맛을 보고싶은가?》

감방?! 나는 흠칫 놀라며 뒤로 물러섰다. 그때에야 나는 대학구내에 쭉 깔린 기동경찰놈들을 보았다. 여기저기서 학우들이 끌려가고있었다. 가슴이 섬찝했다. 나의 항거는 순간의 의협심에 불과했다. 공포가 채 사라지지 않은 모순된 마음속에서 누군가의 웨침소리가 들려왔다.

《창수, 따라서라. 철훈군의 뒤를 따르라. 그 길만이 성실과 깨끗한 양심을 지키는 길이다.》

나는 마음속의 웨침에 이끌려 그 길에 들어섰다. 그러자 애원에 찬 녀자의 부르짖음이 발목을 붙잡았다.

《참으셔요. 3년간 피땀을 바쳐가며 쌓은 탑을 지금 와서 허물겠나요?》

안해의 목소리에 이어 백발이 성성한 아버지의 환영이 절벽처럼 나의 앞길을 막아나섰다.

《너는 지금 어디로 가는거냐? 그만큼 공부에만 전념하라고 당부했는데...》

환영은 찾아올 때처럼 형체도, 자취도 없이 물러갔다. 사방은 피피하였다. 학우들도 경찰들도 더는 눈에 띄우지 않았다. 밤은 소리없이 깊어갔다.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어둠, 어둠뿐이었다. 빛이라고는 단 한줄기 찾아볼수 없었다. 어데선가 애수와 영탄에 젖은 류행가소리가 간간이 들려왔다. 검은 장막이 내리 드리운 대지는 고요와 정적속에서 끄덕끄덕 졸고있었다.

#### 4

철훈이, 그때로부터 1년세월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굳은 잘 모를것이다.

그러나 이 땅에서 가난한 고학생의 생활이란 볼보듯 명백한것이 아닌가.

신문배달, 일공로동, 뺨스차장, 한푼의 돈이라도 나오는 일이라면 서슴지 않는 생활, 오죽하면 골목골목마다에 《대학생포장마차》라 부르는 선술집까지 생겨났으랴.

자그마한 손수레우에 비닐이나 화장지로 막을치고 술과 안주를 파는 대학생, 한손에 책을 펼쳐친채 《어서 오십시오. 한잔 하고 가세요.》 하며 지나가는 손님들의 동정을 구하는 사나이, 가슴속엔 아름다운 리상을 안고있건만 하얗게 분바른 《밤거리계집》한테까지 굶신거려야 하는 피끓는 청춘...이것이 바로 그 시절 나의 초상이었다.

때로는 술취한자들의 야료도 꿀먹듯 삼켜야 했다. 그럴 때면 주먹이 부르르 치를 떨었다. 그러나 참았다. 아니, 참아야 했다. 인내는 피로운것이지만 그 열매는 달다는 누군가의 말을 외우며...

하지만 그 대학생포장마차도 생활의 미궁에서 구원해주지 못했으니 어느날 나의 포장마차는 술취한 미군짚차와 부딪쳐 산산조각이 나고말았다. 병원에서 정신을 차린 나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음을 깨달았다. 그리고 소생의 기쁨이 아니라 포장마차와 함께 부서지지 않은것을 원망했다. 모든것이 끝장이었다. 단돈 한푼 없는 거지가 되었으니 대학문도 내앞에서 영영 닫겨버렸다.

이런 때 나에게 구원의 손길을 뻗쳐준 《고마운 사람》이 있었다. 우배덕이었다.

《창수군, 이게 무슨 꼴인가? 군이 포장마차를 끌다니? 돈을 얻는 방법이 과연 그길밖에 없더란말인가?》

병원으로 찾아온 그는 이렇게 질책부터 하였다. 류행을 따른 사치한 양복차림, 기름기 흐르는 너부죽한 얼굴, 오데꼴론향수내... 고리타분한 하숙방냄새가 배인 낡은 학생복을 사시절 벗지 못하는 나에겐 우배덕의 모습이 눈이 부실정도였다.

《별수 없었네.》

《별수 없는게 아니네. 왜 그런 사정을 진작 나한테 얘기하지 못했나? 난 자네의 벗이 아니던가?》

벗?!... 그 말은 지난 가을 고향으로 내려가는 나를 역두에서 바래주던 일을 회상케 하였다. 나는 그때 그의 후한 인정에 얼마나 감격했던가...

《급할 땐 멀리 있는 친지보다 가까운 친구가 낫다는 말도 있네. 그래 미불된 공납금은 얼마나 되나?》

《두달분일세.》

배덕은 머리를 끄덕거렸다. 석달이면 출학이라는 것을 구하여 말할 필요가 없었다.

《까짓것, 너무 걱정말게. 군같은 수재를 공부시키지 않는다면 도대체 대학이 누굴 위해 필요하겠나? 아무리 돈밖에 모르는 세상이기로서니... 내 좀 힘써보겠네.》

그는 방안에 향수내와 함께 희망과 기대를 뿌려놓고 돌아갔다.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서며 생각에 잠겼다.

그 희망에 기대를 걸어도 좋을것인가?

열려진 입원실창문으로 맑고 시원한 공기가 흘러들어왔다. 향수내는 가신듯 사라져버렸다. 혹시 배덕의 노력도 이 향수내와 같은것은 아니겠는가...

그런데 병원에서 퇴원하는 날 우배덕이 다시 찾아왔다. 그는 무작정 자기와 같이 가자고 했다.

《어데로말인가?》

《가보면 알게 되네.》

하긴 이제는 거처도 갈 곳도 없어진 나였다. 얼마 후 우리가 들어선곳은 《아메리칸-커리어》 회사였다. 배덕은 나를 회사 사장실로 데리고 갔다.

넓고 으리으리한 방안의 폭신한 소파에 50대의 풍신중은 사나이가 느직이 앉아 신문을 보고있었다. 그가 바로 회사 사장이었다.

《아버지, 창수라고 제가 말하던...》

《...》

축 처진 불이 몹시 무거워보이는 사장의 거적눈이 약간 실룩거렸을뿐 표정에는 이렇다할 변화가 없었다. 한참만에야 사장은 의연히 신문에 눈을 박은채 시들히 물었다.

《전공이 로보트라지?》

《예.》

《몇살인가?》

《스물일곱입니다.》

잠이 실린듯하던 사장의 거적눈이 쳐들리며 쏘는듯 나를 쳐다보았다.

열냥짜릴가? 백냥짜릴가? 그는 마치도 나의 금새를 눈저울로 뜨는것 같았다.

《군에 대한 이야기는 들었네. 좋아, 졸업할 때까지 우리 회사가 군에게 장학금을 주겠네. 그런줄 알고 공부를 잘하라구.》

《!!!》

철훈이, 이렇게 되어 나는 《대여장학금》생이 되었다. 회사정문을 나서며 우배덕은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어려울 때 서로 돕는것이 친구간의 의리가 아니겠나.》

가슴이 쥔 울렸다. 인정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듯한 심정이였다. 그의 방조가 없었더라면 나는 1년을 앞두고 대학과정을 마치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그런 배덕이었기에 졸업식날 우리를 축하해주려 온 수많은 선배들중에서 나는 선참으로 그의 손을 잡고 뜨거운 감사를 표시했다.

《우군, 은혜를 잊지 않겠네.》

## 5

철훈이, 졸업은 나에게 류다른 기쁨을 안겨주었다. 생각만해도 지긋지긋한 고행의 4년간 마음속에서 소중히 키워온 리상을 꽃피울 그날이 마침내 온 것이었다. 게다가 나는 행운아였다. 《아메리칸-커리어》 회사 연구소가 나를 위해 취직의 문을 활짝 열어준 것이다.

《…창수군같은 실력가에게는 연구소프락이 비좁을 수도 있을거네. 하지만 우리 연구소라고 왜 프락이 늘 좁기만 하겠나. 엇그제 중역회의에서도 심각하게 논의했네. 설비를 제때에 갱신하여야 하며 그러자면 먼저 연구소의 투자를 늘여야 한다고…

아무튼 회사가 군의 비상한 두뇌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는걸 잊지 말라구.》

《민음은 고맙네만 보담해내겠는지…》

《해낼걸세. 난 군의 실력을 잘 아네.》

이것은 연구소의 책임자인 우배덕이 부임인사뒤 끝에 나에게 한 말이다. 연구소에 입직한것도 기뻐고 민음과 실력을 인정받은것도 싫지 않았다. 그래, 나에게 연구실과 시간만 달라. 그러면 나는 회사를 높은곳으로 떠올려놓으리라.

우배덕이 나에게 맡긴 첫 임무는 회사산하 공장들의 설비실태를 료해하고 가장 적은 투자로 설비갱신을 모색해보라는 것이었다. 대학을 갓 졸업한 연구사에게 맡기는 임무치고는 너무나도 무거웠다. 그러나 야심만만한 나로서는 한번 해볼만한 일이라고 생각되었다. 나는 먼저 복무동에 세방을 하나 얻어 가족을 데려왔다. 그리고는 아직 아버지를 서먹서먹해하는 딸애와 낯을 익힐사이도 없이 설비실태를 료해하러 00 공장으로 내려갔다. 매캐한 기름냄새가 코를 찌르고 기계소리 소란한 현장에서는 작업이 한창이었다. 노동자들이라야 대부분 열일여덟살 되는 어린 처녀들인데 두세명씩 낡은 프레스에 붙어서 철판을 찍어내거나 운반해가고있었다. 프레스상형이 올라갈 때마다 한 녀공이 하형에서 철판을 꺼내놓으면 그다음 한두명의 녀공이 받아서 다음 형타공정까지 맞들고 뛰다실이 날라가는 것이었다. 상형이 올라갔다 내려오는 시간은 5초간이었다. 단 한초의 여유도 없는 작업공정이었다. 상형이 내려올 때면 녀공들의 손을 찍는것 같아 저도 모르게 마음이 짜릿짜릿해졌다. 철판을 들어보니 어림짐작에도 열키로는 넘을것 같았다. 그러니 녀공들은 그 무거운 철판을 하루에도 수천개씩 들어옮기는 것이었다.

저 애리애리한 육체들이 어떻게 이런 살인적인 노동강도를 감당해내는지 의문되었다. 녀공들이 입고있는 작업복은 땀에 폭 젖어 마치 젖은 빨래를 걸친것 같았다. 피로가 어린 얼굴에서는 한창 필 나이

건만 오이꽃처럼 노랗게 시든것이 생기 하나 찾아볼 수 없었다. 점심시간을 알리는 고동이 울려서야 기계들은 멎었다. 지칠대로 지친 녀공들은 여기저기 그대로 주저앉았다. 류달리 여위여보이는 한 처녀만이 프레스기둥에 맥없이 기대여 서있었는데 그는 프레스에서 철판을 꺼내던 처녀였다. 나는 그에게 다가가서 조용히 말을 붙였다.

《언제부터 이 일을 하나?》

땀에 젖은 머리칼을 쓸어올리며 천천히 고개를 들던 처녀의 눈이 갑자기 휘둥그레졌다.

《아이, 이게 <아인슈타인>아저씨 아니세요? !》

《으-응? 》

《절 모르시겠나요? 아저씨의 수학공식집을 찾아준 순녀를…》

수학공식집… 순녀… 생각났다. 눈에 우수가 비졌던 후렁후렁한 잠바차림의 소녀공… 그가 이렇게 컸는가? !

《음. 네가 아직도 여기서 일하했구나. 반갑다. 정말 반갑다. 》

나는 오래동안 헤어졌던 동생이라도 만난듯 좁안에 든 순녀의 손을 놓지 못했다.

《그래 그새 어떻게 살아왔니? 앓는다면 어머니 좀 낫나?》

그러자 순녀는 갑자기 고개를 숙이었다.

《어머니 돌아가셨어요.》

《으응? ! 아니 언제?》

놀란 내 물음에 순녀는 기여들어가는 목소리로 《지난 봄에요.》 하고는 꺼질듯한 한숨을 내쉬었다.

《음…》

나는 마음속이 암울해져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수 없었다. 일찌기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마저 잃은 순녀, 동생도 돌씩이나 된다 했으니 그 연약한 어깨로 한가정을 떠메고 가자니 얼마나 힘겨우랴. …

《그런데 아저씨 무슨 일로 여기 오셨나요?》

나는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연구소에 배치받은 일과 설비조사를 나운데 대해 간단히 얘기해주었다.

《한데 나는 네가 이런 힘든 일을 하고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몹시 힘들지?》

《힘들다뿐이겠나요. 》

그들은 작업중에 줄지 않으려고 《카페나》나 《아나뽕》과 같은 각성제를 먹는다고 한다. 그것을 먹지 않으면 잠박 조는새에 프레스에 손이 잘리거나 오작을 내어 한달분 임금을 잘린다는 것이었다.

치열한 작업전에서 풀려나와 잠을 자려면 이번에는 반대로 수면제를 먹어야 하는것이 자기네 처지라고 했다. 나는 다시한번 마음속이 암담해졌다. 조식간 신문들에서 가끔 각성제를 쓰는 시대가 도래하였다는 짭막한 단신보도들은 읽었지만 실태가 이처럼 살인적일줄은 미처 몰랐다.

(어떻게 하면 기계의 노예로 화한 이 불쌍한 녀공들을 도울수 있을것인가?)

철훈이, 나는 이때 언젠가 도서관에서 있는 그 리 넘썬클로모임에서 군의 열변을 반박한 나의 주장을 실천으로 보여줄 때가 왔다고 생각했다. 나는 지혜와 심혼을 쏟아부으려 그 방도를 모색했다.

위협스레 손으로 꺼내던 철함을 기계손으로 꺼내고 여러 프레스에서 나오는 제품을 하나의 벨트우에 태우면 위험개소도 없어지고 너공들이 무거운 철함을 들고다니지 않아도 될것 같았다.

나는 곧 설계를 완성하였다. 우배덕은 그것을 가리켜 단순로보트를 도입한 설비갱신의 산이라고 하면서 쌍수를 들고나섰다. 하긴 이 회사로서는 그만한 정도의 기계화도 로보트화라고 할만한 기적임에는 틀림없었다. 그리하여 몇달후에는 시운전을 하게 되었다.

그날 나는 우배덕이와 함께 OO 공장으로 내려갔다. 공장에는 벌써 우사장을 비롯한 회사 중진들이 내려와있었다. 처음 보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그중에서 나의 눈길을 끈것은 키가 구척갈고 얼굴표정이 대리석처럼 차가워보이는 미국인이었다.

우배덕이 그에게 나를 소개했다.

《이번에 설계를 착안완성한 창수군입니다.》

《오!》

미국인은 외마디소리로 찬사를 대신하며 나를 유심히 뜯어보았다. 뿔정해보이는 노르스름한 그의 눈동자에 미소같은것이 떠올랐다. 그는 악수를 하면서도 지긋은 그 눈길을 나에게서 떼지 않았다. 호기심 이랄가 흥미라고 할가 하는것이 어린 그 눈길에 나는 까닭모를 불쾌감을 느꼈다.

나는 그에게서 물러나 우배덕에게 물었다.

《저 사람은 누군가?》

《누구라니? 내 이야기하지 않았던가? 우리 아버지와 공동경영하는 회사 부사장일세. 우리 회사주권의 70%는 저사람의것이네.》

《그-래?》 여하튼 나는 여전히 불쾌감을 털어버릴수 없었다. 내가 그런 눈길을 어데서 보았던가?

그때 시운전이 시작되었다. 스위치를 넣자 물동적인 프레스동음이 가락맞게 들려오고 철함들이 연방 벨트에 실려 흘러갔다. 언짢았던 기분은 가신듯 사라지고 나는 들뜬 기분에 휩싸였다.

첫 아기를 본 어머니의 심정이랄가. 보면 볼수록 대견한 생각이 들었다. 동행했던 우배덕의 희멀썬한 얼굴에서도 벅글썬한 웃음이 노상 떠날줄 몰랐다. 환희와 경탄에 찬 시선들이 나에게로 비발쳤다. 그 순간 나는 눈물겹던 포장마차살이며 피를 뿜고 해쓱해진 안해의 얼굴 그리고 대학으로 떠나는 나에게 성공을 축복해주던 아버지의 모습이 삼삼히 밝혀와 눈곱이 뜨거웠다.

고역에서 벗어나 밝게 웃는 순녀의 얼굴도 떠올랐다. 아마도 그는 나를 무척 감사해하고있으리라.

《뭘 그렇게 생각하나?》

배덕이가 나의 팔을 이끌며 물었다.

《고생스럽던 대학생시절이 생각나누만.》

《이 기쁜날에 하필 고생스럽던 일을 상기할건 뭔가? 즐거운것만 회고하라구.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어떤가. 이만하면 대학시절 군이 주장하던 탐구의 길이 옳다는것이 증명된것이 아닐가. 듣자니 그 연설쟁이 철훈군은 아직 감옥신세를 면치 못했더군.》

배덕의 마지막 말은 비웃음에 가까운것이여서 나는 반박하지 않을수 없었다.

《철훈군에 대해서 그렇게만 얘기하지 말라구. 주의사상에 지내 열중한 감은 있어도 그는 어디까지나 신념에 사는 인간이네.》

배덕은 더 말이 없었다.

그때의 내 반박이 군에 대한 동정심때문이었는지 공감때문이었는지 나도 잘 모르겠다. 아마도 자신에게 차례진 행복(그렇다. 나는 행복이라고 생각했다.)으로 하여 군에 대하여 느끼게 된 미안함에 가까운 동정때문이었을것이다....

## 6

철훈이, 며칠후 나는 회사로부터 《특별상금》을 받았다. 상당한 액수의 돈도 돈이지만 조만간 더 큰 성공의 《기회》가 있을것이라는 우배덕의 축하 겸 인사는 나를 더욱 기쁘게 해주었다.

좋다. 어떤 어려운 과제든 맡겨만달라! 나는 서슴지 않고 해낼테다!...

그날 오후 우정 시간을 내어 거리로 나간 나는 점방에 들러 언제부터 별려오던 안해의 모세타와 딸애의 옷가지며 탕과를 가방가득 사넣었다. 물론 순녀에게 줄 기념품도 잊지 않았다.

나는 행복했다. 자신의 힘으로 쟁취한 이 기쁨! 량심에 꺼리낌없는 이 기쁨이야말로 내가 바라던바요 바라던 행복이었다. 나는 활활 열린 행복의 문으로 들어가는 심정으로 집으로 들어섰다.

《아빠, 아빠.》

그동안 정을 익힌 딸애가 되뜯되뜯 다가와 안아달라고 두팔을 벌렸다.

《오, 레영이, 우리 귀염둥이...》

딸애를 안아 입을 맞춰준 나는 서둘러 사온 물건들을 꺼내어 방바닥에 펼쳐놓았다. 그리고는 스스로 기쁨에 도취되어 말했다.

《이 세탄 당신거요. 이젠 레영이거. 그리고 이 목도리와 핸드백은 순녀거고... 어서 당신부터 입어보오. 맞겠는지 모르겠소.》

했으나 웬일인지 안해는 고개를 외로 비틀어썬은 채 손으로 장판바닥만 호비작거리고있었다. 아마도 고생스럽던 지난날이 회상되어서이리라 하고 나는 생각하며 안해앞으로 세타를 밀어놓았다.

그러자 안해는 마치못해 대답했다.

《제가 그걸 어떻게 입는다고 그러세요.》

목소리가 어쩐지 서글펐다.

《아니 왜 못입는다고 그러우. 이런건 뭐 유한마담들만 입는거요?》 하며 나는 너스레를 떨었다.

그런데 안해의 대답은 전혀 왕창같은것이였다.

《전 그저 마음편히 사는것이 소원이예요. 남이 불행해지는 값으로 사온 이런 행복은 바라지 않아요.》

《으-웅?》 나는 어안이 멍멍했다.

《당신 지금 무슨 소릴 하는거요? 불행의 값이라니!》



《아니, 그럼 당신은 아무것도 모르세요?》

《뭘말이요?》

안해는 그제야 고개를 돌리며 말하는것이였다.

《오늘 거리에 나갔다가 접때 우리 집에 놀러 왔던 그 순녀라는 처녀를 만났더랬어요. 그 애 말이 당신이 연구한 기켄지 뭘지 하는것때때 술한 녀공들이 공장에서 쫓겨났다더군요.》

《뭘요? 그게 정말이요?》

《...》

《그럼 개도 해고되었단말이요?》

《그래요. 자기도 쫓겨났다면서 쉽게 울더군요. 갠 그렇다하더라도 래일부터 온 동네 아낙네들이 모여드는 수도가엔 제가 어떻게 머리를 들고 나가겠어요!》

《...》

철훈이, 그 순간 나는 뒤통수에 거센 타격을 받았을 때처럼 눈앞이 아찔하고 가슴이 후두두 떨렸다.

내가 무슨 일을 저질렀는가. 복을 가져다주겠다고 약속한 그 순녀에게 나는 결국 불행을 가져다주지 않았는가!

나의 눈앞에는 해고된 녀공들의 슬픔에 잠긴 모습이 보이는것 같았다.

이제 그들은 어디로 갈것인가? 어머니마저 잃은 순녀와 그의 동생들은...

그러고보면 나의 행복이라는것도 순녀들의 피땀의 대가가 아닌가!

나는 저도 모르게 벌떡 일어섰다.

《아니, 어쩔 가지려고?》

《회사에, 회사에 나가봐야겠소!》

아름벌게 안고왔던 《행복》이 어수선하게 널려있는 방안에서 나는 도망치듯 뛰쳐나왔다.

사장실에서는 우배덕이 아버지와 마주앉아 무슨 이야기인지 하고있었다.

나의 얼굴에서 심상찮은 기색을 느낀듯 우배덕이 서둘러 일어섬서 물었다.

《창수군, 웬일인가?》

나는 그에게 한결을 다가섰다.

《녀공들을 해고시켰다는게 사실인가?》

우배덕은 의아스러운 기색을 짓더니 유유히 물었다.

《그런데?》

그 유유히한 태도가 나를 더욱 흥분시켰다.

《내가 설비를 갱신한건 녀공들을 고역에서 벗어나게 하려는것이였지 그들의 생명선을 끊기 위해서는 아니였던말일세.》

내가 흥분할수록 우배덕은 더 침착해지는것 같았다.

《그러니 어떻게 해달라는건가?》

《몰라서 묻나? 해고된 그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간단말인가?》

《그건 자네가 걱정하지 않아도 되네.》

배덕은 노래라도 부르듯 말꼬리를 길게 끌며 창밖을 내다보았다. 나는 그의 눈길에 이끌려 밖으로 시선을 던졌다.

이윽하여 배덕은 나에게로 돌아섬서 시들히 물었다.

《그들속에 혹시 자네 누이동생이나 친척이라도 있는게 아닌가?》

《아니, 없네. 아무도 없네. 하지만 그들은 나때문에 해고된것이 아닌가. 나때문에!》

《그런데 어쨌단말인가? 자네 지금 행복하다고 할수 있겠지? 직업도 있겠다, 돈도 두둑이 탔겠다, 집도 있겠다, 그러면 댔지 그 녀공들이 자네와 무슨 상관인가, 응?》

《배덕군은 그 녀공들이 불쌍하지도 않나? 자네에겐 동정심도 없나?》

우배덕은 나를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의외에도 너털웃음을 터뜨렸다.

《이사람 창수, 제발 이젠 그 량심타령만은 그만두게. 기업이란 자선이나 인도주의사업이 아닐세. 누구를 동정이나 하고 불쌍히 여겨서는 파산밖에 당할게 없네. 너 아니면 나, 이것이 이 땅에서 살아갈수 있는 유일한 생존방식일세.》

나는 그를 멍하니 쳐다보았다.

《그, 그럼 자네가 대학시절에 나를 도와준것은 무엇이였나?》

《오-》

우배덕은 놀랜듯 큰소리를 냈다.

《그거야 군이 우리 회사에 필요한 존재였으니까. 다시말해서 자네의 수재형의 그 두뇌가...》

《뭘라구?!》

나는 격분을 금할수 없었다.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생각했던 우배덕의 인정과의리란 결국 회사를 위한 하나의 투자에 불과했던말인가. 그런데도 나는 고맙게 여기고 감사의 념으로 눈물까지 흘리지 않았던가!

《이젠 리해되나? 창수군, 일방의 행복이란 타방의 불행을 전제로 하는것이 아니겠나.》

《난 그런 행복은 바란적도 없거니와 바라지도 않네! 나도 오늘부터 이 회사를 그만두려네.》

나는 자신의 단호한 말에 스스로 놀랐다, 저도모르게 우사장을 흘끔 쳐다보았다. 그가 금시 노발대발하여 책상을 두드리며 당장 나가라고 소리칠것만 같았다.

그러나 그는 책상위의 서류만 들여다보고있었다. 솟대 내 말같은것은 안중에 없는듯했다. 문득 나는 안경너머로 보는 그의 시선을 느꼈다. 이상한 눈길이었다. 누가 나를 저렇게 보았던가? ...

나는 우배덕을 돌아보았다. 그는 아무 일도 없었던듯 원탁위의 신문을 끌어당겨 들여다보기 시작하였다. 나의 말은 아무 메아리조차 얻지 못하고 사라져버렸다. 처음은 의아함을 느꼈으나 다음 순간 모욕감으로 피가 거꾸로 솟아올랐다. 사람을 어떻게 이다지도 무시할수 있는가?

그때 전화종이 요란스레 울렸다. 우배덕은 신문을 내던지고 길게 손을 뻗쳐 전화기를 집어당겼다.

《그래, 사장방이다. 경찰서라구요? 뭐 뭐라구요?!...》

그는 바늘에라도 찔린듯이 뛰쳐일어났다.

《아버지, 그것들이 여기로 몰려온답니다. 도로 복직시켜달라고...》

《뭐야?》

우사장은 투실투실한 손으로 책상을 탕 치며 벌떡 일어났다.

《그 쌍것들이!...》

쟁의로구나! 나는 가슴이 우두두 뛰었다.

성난 군중의 노한 함성이 창문을 뚫고 방안으로 날아들어왔다.

《해직된 너공들을 복직시키라!》

《복직시키라!》

회사건물마당으로 노동자들이 밀려들어오고있었다.

한 직원이 방문을 열고 우사장에게 말했다.

《사장님, 쟁의대표들이...》

여럿의 발자국소리가 복도를 울리며 가까와오고 있었다. 나는 온몸이 얼어드는것 같았다.

이랬든저랬든 이 모든 사태의 장본인은 내가 아닌가? 내가 결국 그들을 해고시킨것이나 다름없지 않은가! 저들의 격분과 저주는 우선 나에게 쏟아질 것이다.

열려진 문으로 찬바람과 함께 대표들이 들어섰다

모두 낯익은 얼굴들이었다. 실패로해를 할 때, 시운전을 할 때 친숙해진 얼굴들이었다. 나는 몸을 한껏 웅송그렸다.

금시 그들이 《옳지, 여기 숨어있었구나! 너때문에 우리가 쫓겨났다.》 하며 달려들것만 같았다. 설사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다 해도 한마디 변명도 할수 없는 나였다.

그런데 그들은 마치 나를 보지 못한듯했다. 첫 사람은 나에게서 시선을 멈추는듯했으나 획 지나 사장앞으로 걸어갔다. 다음 사람도 그렇게 지나갔다. 또 다음사람도...

그들은 나를 본척도 하지 않았다. 왜 그럴까? 왜?...맨뒤로 애리애리한 어린 너공이 들어섰다. 나는 몸을 떨었다. 저것은 순녀가 아닌가?!

그만은 나를 알아볼것이다. 내앞에서 걸음을 멈추고 저주와 원망을 퍼부을것이다. 나는 머리를 폭떨구었다. 작은 신발이 한걸음 두걸음 다가왔다. 나는 심장의 고동이 멎는듯했다. 그러나 그 신발도 내앞에서 멎지 않고 지나갔다. 나를 마치도 방안에 있는 결상이나 서류함처럼 에돌아 지나가버렸다.

나는 불현듯 무서워졌다. 내가 사람이 아니라 장실을 장식한 하나의 가구처럼 되어버린듯했다. 나는 머리를 들었다. 그러자 숨이 나가는것 같았다. 그는 순녀가 아니었다. 순녀또래의 너공이었을뿐이었다. 그러나 다음 순간 나는 그가 설사 순녀였다고 해도 나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지나갔으리라는것을 깨달았다. 나는 머리를 싸쥐고 소파에 주저앉았다.

아, 철훈이, 그때의 피로움, 그 고통을 굳은 리해할수 없을것이다.

노동자들속에서 완전히 무시되어버린 나, 우사장과 백덕에게서 경시되어버린 자신에 대한 피로움, 세상에서 가장 피로운것은 저주받는것도 증오를 받는것도 아니었다. 가장 고통스러운것은 인간세상에서 완전히 무시당한 존재로 되는것, 존재하면서도 존재없는 그것이였다. ...

나는 우사장과 대표들의 담판이 어떻게 끝났는지도 몰랐다. 다만 《만일 요구조건이 수락되지 않으면 실행행사로 넘어간다는것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하는 대표들의 말소리만 똑똑히 들었을뿐이었다.

그들은 천천히 물러갔다. 이번에도 그들은 나에게 눈길도 돌리지 않았다. 나는 꼼짝도 않고 앉아있었다.

철훈이, 나는 그때 자기를 느낄수 없었다. 내가 그렇게 자부했던 인간으로서 《나》는 없어져버렸다. 다만 《창수》라고 불리우는 허물만이 남아있었다.

《뭘 그렇게 생각하나?》

우배덕의 목소리에 나는 머리를 들었다.

그는 아까 사장이 보던 서류를 내앞으로 내밀었다.

《쓸데없는 생각은 그만하고 이대로 해주게. 회사 공장들의 설비실태조사서네. 이번에 다시 한번 본때를 보여주게.》

《...》

우사장과 우배덕은 이상한 눈길로 나를 유심히 지켜보았다. 까닭모를 불쾌감을 자아내는 그 눈길!

문득 나에게서는 시운전때 왔던 미국인의 눈길이 떠올랐다. 그 눈길이 바로 그러했다. 순간 나는 그 눈길이 왜 그처럼 불쾌했던지를 깨달았다. 그것은 동물원에서 흥미있는 동물을 볼 때, 기묘하게 움직이는 기체를 볼 때와 같은 눈길이었다!

순간 철훈이, 나에게서는 자네가 체포되기 직전에 하던 말이 번개같이 떠올랐다.

《사회학도 로보트학을 노상 배제하는것이야 아니지.》

군의 입가에 떠올던 의미심장한 미소.

《오늘의 현실에서 군과 같은 탐구자들의 역할이란 하상 무엇이겠나. 그것은 싫든좋든 원하든 원치

않든간에 권력자들의 의지대로 움직인데 불과한것이 아니겠나?》

철훈이, 자네는 그때 분명 이 땅에서 탐구자들의 역할이란 로봇의 역할과 다름없는것이라고 말하고 저 했던것이 아니었던가? 십분 그랬으리라 나는 믿어의심치 않는다.

그렇다, 나는 로봇이었다. 우씨부자의 투자로 만들어진 로봇이었다.

리념씨클모임때의 지지와 고향으로 떠날 때의 《인정》 꾸레미, 공납금 미납으로 절망에 빠졌을 때의 《대여장학금》...

그들은 나의 인생행로를 집요하게 추적하며 필요할 때마다 《동정》과 《의리》라는 이름으로 투자를 했다. 그리하여 오늘의 《나》-로봇을 만들어낸 것이었다.

《자- 어서!》

우배덕은 실태자료조사서를 내 손에 쥐여주었다.

《...》

나는 그것을 뚫어지게 들여다보았다. 글자와 수자들의 행렬, 그것은 나에게 넣어주는 프로그램이었다. 리운을 보태주고 수많은 로동자들을 내쫓기 위한 프로그램이었다. ...

나는 손이 부르르 떨렸다. 아니, 아니다! 나는 로봇으로는 될 수 없다. 나는 미국인들과 매판의 의지에 따라 움직이는 로봇이 되자고 이날이때까지 고심과 탐구의 가시덤불길을 헤쳐온 것이 아니다. ...

갑자기 창밖에서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경찰놈들이 달려든 것이었다. 여기저기서 끌려가는 녀공들이 눈에 띈다. 랑자히 흐르는 피, 피!

나는 머리칼을 잡혀 끌려가는 순녀를 보았다. 피칠갑이 된 얼굴, 찢어진 옷...

《아저씨가 <아인슈타인> 이나요?》

방긋방긋거리며 웃던 그 얼굴...

나는 저도 모르게 실태자료조사서를 와락 구겨쥐었다.

《아니?!》

깜짝 놀라며 눈이 휘둥그래지는 우씨부자를 쏘아보며 나는 그 종이장을 갈기갈기 찢었다.

《나는 로봇이 아니다! 나는 인간이다. 뜨거운 피가 뛰는 인간이다!》

과랑게 질린 우씨부자의 얼굴에 찢어진 종이장을 힘껏 뿌려던지고 어떻게 밖으로 뛰쳐나왔는지 나는 모른다.

내가 시위대렬을 쫓아가는지 시위대렬이 나를 이끌어가는지도 의식 못하며 나는 그들의 힘찬 웨침에 나의 피타는 목소리를 합쳤다.

《해직된 녀공들을 복직시키라!》

《로동 3 권 보장하라!》

《미국은 제집으로 돌아가라!》

## X

철훈이, 이렇게 되어 나는 X X 교도소의 감방에 갇히게 되었다. 그러나 나는 이 길을 택한것을 후회하지 않는다.

지금 나는 기계로봇이 아니라 인간로봇들에게 대하여 생각하고있다. 얼마전의 나처럼 자신도 느끼지 못하면서 로봇처럼 살고있는 인간들이 이 땅에는 얼마나 많은가.

그러나 그들중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로봇에 불과했다는것을 깨달을 때는 반드시 울 것이며 또 사실로 오고있다.

우선 내가 깨닫지 않았는가!

철훈이, 지금 철창밖에서는 흰눈이 내리고있다. 이해의 첫 눈이, 추위가 뒤따를것이다. 이 땅의 겨울이 모질고 길다는것은 철훈군도 아신바다. 이제 사나운 눈보라가 휘몰아치며 모든것을 얼구어버릴것이다.

하지만 만물이 소생하는 봄은 그 얼음장밑에서도 태동하는것이여니 위대한 진리의 태양은 뜨거운 열과 빛으로 얼음장을 한겹질 두겹질 완강히 그리고 쉽없이 녹여버릴것이다. 미구에 환희에 찬 봄시위물이 와와 소리치며 은혜로운 대하의 품에 안길것이다. 겨울이 사나왔던 그만큼 그 봄은 더욱 환희로울것이다.

뜻깊은 그 봄에 환희에 찬 그날에 우리 서로 부끄럼없이 상봉하기를 바라면서...

창수로부터

## 취재의 문학이나, 체험의 문학이나

우리가 소설가 김문창동무와 함께 두만강 기슭에 앉아 이야기를 나눈것은 어둡이 깃든 저녁이었다. 시원히 불어오는 바람에 버드나무는 휘늘어진 가지를 휘저었고 강으로부터는 시큼한 물냄새가 풍겨왔다.

지난 기간 탄부들속에 들어가 오래동안 생활하면서 장편소설 《탄부》를 내놓아 독자들을 기쁘게 한 소설가의 창작생활에는 우리 작가들이 현실을 대하는 관점과 립장이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귀중한 체험이 있었던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듣기 위하여 그가 생활하고있는 이곳 북변땅 회령으로 온것이였다.

소설가는 낮은 목소리로 그러나 열정적으로 이야기하였다.

《창작의 첫 공정이라고 말할수 있는 현지체험에서 현지에 나간 작가의 가슴이 현실공정에 대한 열정으로 불타지 않을 때 기필코 그는 들끓는 현실에서 사회주의대전설행군의 영웅적 기상을 체험하지 못하고 작품의 줄거리를 만들어줄수 있는 이야기거리들을 실무적으로 찾아다닐것입니다. 이것은 체험이 아니라 취재입니다. 이렇게 취재한 자료들이 수첩에 수많이 기록되어있다 하여도 현실공정의 열정이 없이 얻어들은 이야기거리로 작품을 엮는다면 아무리 놀라운 <손재주>를 부린다고 해야 인식교양적 가치를 가지고 독자들의 심장에 작용할수가 없다고 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그의 이야기에 끌려들어갔다. 그의 이야기는 계속되였다.

...작가의 자질은 현지생활, 창작생활 등 그 모든 사회생활속에서 부단히 축적된다고 말할수 있을것이다. 그러나 그 축적은 불꽃튀는 현실의 도가니속에 뛰어들지 않고 관광객처럼 두루 편답이나 하고 뒤쫓리를 따라다니면서 조사사업이나 하는 식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작가는 장인바치가 아니라 창작가이다. 창작이란 그 누구도 알지 못하던것, 그 누구도 그렇게는 뜻을 부여하지 못하던것을 새롭게 열어보이는것이다. 새로운것, 그것은 새로운 축적, 새로운 탐구에 의해서 비로소 얻어진다.

장인바치는 기존방법만으로도 숙련이라는 전진을 가져올수 있지만 항상 새것을 창조해야 하는 작가에게는 기존것의 답습은 답보로도 될수 없다. 때문에

작가는 시시각각 충성으로 불타는 열정을 가지고 보고 듣고 사색하여 끊임없이 창작가의 밑천을 쌓아올려야 한다...

두만강으로부터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은 우리들의 온몸을 식혀주었다.

총총한 못별들, 두만강 기슭을 따라 기운차게 달리는 열차의 긴 기적소리, 저쪽 눈에서부터 들려오는 개구리들의 울음, 시큼한 물비린내, 버드나무우에서는 무슨 새인가 푸드득거리며 밤하늘을 날아간다. 이 모든것은 여름밤의 흥치를 더하여주었다.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소설창작의 새로운 양상을 가져오기 위하여서는 혁명적이고 독창적인 창작 자세를 갖추고 현실체험을 깊이있게 하여야 한다는 소설가의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하였다.

《중요한것은 시대의 요구와 인민의 지향을 깊이 통찰하고 그것을 옳게 반영하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데 어떻습니까.》 하고 우리는 소설가에게 물었다.

《시대의 요구와 인민의 지향을 옳게 반영하기 위해서도 가치있는 종자와 새형의 인간성격을 탐구하기 위해서도 현실체험을 깊이있게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한동안 말이 없던 소설가는 이윽해서 이야기를 계속했다.

...진실로 비반복적이고 개성적인 문제성과 인간성격을 형상화하기 위해서는 현실체험을 실속있게 하여야 한다. 나는 이곳 회령탄광기계공장 로동계급속에서 생활하면서 한 당일군을 깊이 알게 되였다. 그는 참으로 훌륭한 일군이였다. 몇번의 실패에 주저않은 한 기술일군도 마침내는 커다란 혁신을 하도록 이끌어주었다. 이 당일군의 심장깊이에 무엇이 뿌리박고있기에 그처럼 생기발랄하고 지칠줄 모르며 이 신작칙의 강한 사상적 영향으로 한 기술일군의 침체를 짓부셨는가, 과연 이 당일군의 성격적 특질을 규정짓고있는 핵은 무엇인가.

이것은 취재가 아니라 현실체험을 통해서만 해결할수 있었다. 내 생각에는 현실을 체험하고 연구하는 자세에서부터 개성적이고 독자적인 사상미학적 안목과 감수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본다. 새형의 인간성격의 특질을 탐구함에 있어서 일반적인 파악이 아니라

다양한 생활세부들을 포착하고 그 특질의 다양한 발현형태를 깊이 연구하여야 할것이다...

옳은 이야기이다. 현실체험에 나선 창작가의 자세는 저렇게 되어야 할것이다. 각이한 인간성격과 복잡한 인간생활을 비교적 전개된 넓은 범위에서 반영하는 소설작품을 창작하는 소설가들에게 있어서는 남들이 특별한것이 없는것으로 스쳐지나는 그러한 범상한 일상생활에서도 그 무엇인가 예술적 진실을 찾아볼줄 알며 그것을 더욱 예술적으로 부각시켜 보여줄줄 아는 그런 창작적 개성, 탐구정신을 가져야 할것이다. 이것은 현실속에 깊이 들어간 작가만이 해결할수 있는 문제이리라.

우리의 생각을 앞으로 이끌어가듯 소설가는 답답한 어조로 이야기를 계속했다.

《생활에서 새것을 발견하고 진실을 볼줄 아는 당적 안목이 부족할 때, 무엇을 긍정하고 무엇을 부정하며 어떻게 긍정하고 어떻게 부정하는가 하는 열정이 없을 때 미끈한 문장, 재치있는 표현만으로는 결코 사회적 문제성을 띤 훌륭한 작품을 창작할수 없다고 봅니다. 좀 야단스러운 이야기같습니만 창작, 그것은 뇌수와 심장의 산물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밤은 깊어가지만 저멀리 바라보이는 회령곡산공장에서는 200 일전투에 펼쳐나선 로동자들의 기운찬 투쟁모습인양 수많은 불빛이 뚜렷이 안겨왔다.

소설가의 열정적인 이야기는 계속되었다.

...현실체험은 반드시 당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한 기초우에서 진지하고 인내성있게 하여야 한다. 오직 당정책으로 철저히 무장한 작가만이 벅찬 현실속에서 새롭고 의의있는 생활소재와 종자를 골라잡을수 있으며 그것을 시대의 요구에 맞게 사상예술적으로 훌륭히 형상해낼수 있다. 현실이야말로 우리 작가들에게 생활도 열정도 재능도 다 안겨주는 비옥한 땅이며 창작의 원천으로 된다고 나는 생각한다.

현실체험에 대한 소설가의 이야기는 창작실천상 무엇이 중요하며 취재가 아닌 현실체험을 유람식으로 하여서는 안된다는 느낌을 강하게 주었다.

다년간 현실체험을 하면서 거기서 귀중한 경험을 쌓고있는 소설가 김문창동무의 이야기에 우리는 진심으로 공감했다.

아무리 재간있고 관록있는 작가라 하더라도 현실을 떠나서는 생활을 진실하게 형상한 문학작품을 창작할수 없다. 생활을 성실하게 체험하지 못한 작가가 쓴 작품에서는 손끝의 재간은 알리지만 생활을 긍정하는 뜨거운 심장의 박동은 느낄수 없을것이다.

우리는 두만강 기슭 버들방천에서 일어나 천천히 속소로 걸어오면서 또다시 현실체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본사기자

## 가사

# 나를 불러다오

백의선

그대의 첫줄기로 자라난 이몸  
세월이 흐를수록 그 은정 못잊네  
그대가 불길만리 가야 한다면  
어머니조국이여 나를 불러다오  
아, 나를 불러다오

그대의 흙향기 살속에 스미고  
그대의 맑은 하늘 마음에 비꼈네  
돌격의 나팔소리 울리는곳에

어머니조국이여 나를 불러다오  
아, 나를 불러다오

락원의 창가에서 다진 이 마음  
시련이 닥쳐와도 변치 않으리  
한목숨 바쳐갈 때가 온다면  
어머니조국이여 나를 불러다오  
아, 나를 불러다오

# 청춘시절은 어떻게 보내야 하는가

-장편소설 《청춘송가》를 평함-

박용학

사람은 누구나 청춘시절을 보내게 되며 사랑을 체험하게 된다.

청춘시절과 사랑은 뗄수 없다. 청춘시절은 사랑을 동반하게 되며 사랑은 청춘시절에서 중요한 생활의 한 측면을 이룬다. 따라서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에게 있어서 청춘과 사랑에 대하여 올바른 견해와 관점을 가지고 생활하는것은 운명개척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젊은 소설가 남대현은 자기의 첫 장편소설 《청춘송가》에서 바로 이 문제를 다루었는데 바로 그것으로 하여 지금 소설은 광범한 독자층의 커다란 관심과 반향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소설은 분명히 성공했고 독자들의 사랑을 받고있다.

그러면 어찌하여 장편소설 《청춘송가》는 독자들의 사랑을 받게 되었는가.

## 1. 청춘시절은 어떻게 보내야 하며 사랑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장편소설 《청춘송가》는 사람은 청춘시절을 어떻게 보내야 하며 사랑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사회적 문제로 제기하고 그에 미학적 해답을 주고있다.

소설이 제기한 사회적 문제는 매우 의의있고 절실한것이라고 말할수 있다.

그것은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한 성원으로서의 인간은 누구나 한번은 청춘시절을 보내게 되고 사랑을 체험하게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보내고 어떻게 하는가 하는 문제는 사람의 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있기때문이다.

이 문제는 결국 인생관문제와 관련되어있는 중요한 문제이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청년시절은 사람의 일생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혁명적세계관은 청년시기에 형성됩니다.》**

사람은 청춘시절을 어떻게 보내고 사랑을 어떻게 하는가에 의하여 집단의 한 성원으로서의 사회적 의무를 원만히 수행하는가 못하는가,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삶을 창조하고 향유하는가 못하는가 하는 문제가 적지 않게 좌우된다.

장편소설 《청춘송가》는 인간의 운명개척과 직접 관련되어있고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의 창조와 향유에서 중요부분을 차지하는 청춘과 사랑 문제를 제기하고 우리 시대의 청춘에 대하여, 사랑에 대하여 진실하게 이야기하고있다.

작가는 어느 한 제철소에 내려간 주인공인 제철소 강철직장 기사 진호와 그의 애인인 출판사 기자 현옥이 사이에 맺어진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통하여 청춘과 사랑에 대한 철학을 형상적으로, 생활적으로 풀고있다.

주인공인 진호는 대학시절부터 우리 나라 연료에 의한 새로운 제강법을 연구하기 시작하였으며 그 실현을 위하여 들끓는 생산현장에 진출할 꿈을 키워온 포부가 큰 청년이었다.

그러던 그는 애초의 이상과 꿈도 있고 하여 부에 있을 때 시도했던 실험에서 실패하자 그 기회에 대담하게 현장에 나갈것을 제기하고 제철소로 간다.

인민경제의 주체화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우리 나라 연료에 의한 철생산문제를 두고 안타까와하는 진호의 심정을 이해한 현옥은 애인과 함께 운명을 같이하여 현장에 나갈 결심을 다지게 된다. 이러한 결심을 다지기까지는 비교적 순탄하였다.

그러나 그의 생활은 결코 단순치 않았다.

현옥의 오빠인 금속공업부 심사실장으로 있는 명식은 진호가 현장에 내려가는것은 실험에서 실패한 탓으로 그 책임을 지고 간다고 하면서 녀동생의 길을 집요하게 막아나선다.

사랑의 아름다운 꿈과 랑만, 희열만을 알고있던 현옥에게 있어서 이것은 하나의 《청천벽력》과도 같은것이였다.

현옥은 진호의 깨끗한 랑심과 순결성을 의심하기 시작하였다. 현옥은 뜻하지 않게 부닥친 정황을 뚫고 나가기에는 아직은 연약하였던것이다.

사랑하는 사람과 운명의 배를 함께 타고 벅찬 현실속에 뛰어들어가 이상을 꽃피워야 할 현옥이었으나 그는 주저앉고말며 쓰린 가슴을 부여안고 홀로 남는다. 이리하여 그들의 첫 사랑은 뜻하지 않은 일로 버그러지기 시작하였다. 그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의 시련이 아닐수 없었다.

그들, 청춘들 진호와 현옥은 사랑의 희열과 기쁨, 아름다운 정서와 랑만만을 체험하다가 처음으로 사랑의 다른 면을 감수하지 않을수 없었다.

그들은 서로 가슴속에서는 차마 못잊어하고 그리워하였으나 그리고 열렬히 사랑하고있는것으로 하여

고민 역시 컸으나 일시적으로 조성된 난관을 뚫고나가지는 못하였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주인공 진호는 제철소에 가서 강철직장 기사로 있으면서 자기의 초지를 조금도 굽히지 않고 학창때부터 연구해오던 연구사업을 계속했으며 온갖 애로와 난관을 맞받아나갔다.

그는 제철소에서 첫 실험에서 실패하였으나 비판과 실망을 몰랐으며 꾀꾀이 앞으로 나아갔다.

진호가 이렇게 온갖 시련을 이겨내고 역세계 앞으로 나아갈수 있었고 성공할수 있는것은 초급당비서인 상범이 손잡아 이끌어주었기때문이었다.

우리 나라의 연료에 의한 제강법의 성공, 그것은 진호에게 있어서 진정 피타는 탐구와 창조의 과정이었으며 번민과 고뇌의 과정이기도 하였다.

한마디로 말하여 그 과정은 한 인간의 성장과정이었다!

진호는 청춘이었다.

당의 품속에서 자라난 청년기사인 그에게 있어서는 새 연료에 의한 철생산보다 더 중요한것이 없었다.

사랑도 귀중했으나 그것은 결코 진호의 연구사업보다 우위에 놓일수 없었다.

진호는 현옥이와 같이 현장에 내려가려던 꿈이 깨여지고 사랑이 버그려진데서 오는 피로움은 컸으나 연구사업은 잠시도 중단하지 않았으며 자기의 포부를 실현하는 그 길에서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다.

한편 사랑은 소중하고 뜨겁고 끈질긴것이어서 본의아니게도 일시적인 간격은 생겼으나 현옥의 마음한구석은 늘 그에 대한 생각으로 차있었다.

그리하여 그는 제철소에 내려가서 실험의 실패와 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하여 침상에 있는 애인을 만났으며 사랑에서 오는 자기의 안타까운 심정을 터놓았던 것이다.

주인공 진호는 고심참담한 노력끝에 새 기술안에서 성공함으로써 커다란 위훈을 세웠으며 사랑은 다익은 과일을 파원에서 따는 식으로가 아니라 그 열매를 가꾸듯이 사랑도 가꾸고 창조해야 한다는 리념을 안고 발걸음도 가벼이 사랑하는 처녀인 현옥이를 찾아 러객선에 몸을 싣는것이다.

장편소설 《청춘송가》는 진호와 현옥의 감동적인 형상을 통하여 청춘시절은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한 성스러운 길에서 위훈으로 빛내여야 하며 사랑은 마땅히 정성들여 가꾸고 창조해야 한다는 심오한 생활의 진리를 설득력있게 해명하고있다.

소설에서 보는바와 같이 이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우택로장과 상범당비서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젊은이들이며 청춘들이다.

진호와 현옥, 기철과 정아, 태수와 은심 등은 모두가 젊음에 약동하는 청춘들로서 미래에 대한 희망과 포부가 더없이 크고 열정에 넘쳐있는 우리 시대의 미더운 새세대들이다.

작품의 중심에 서있는 진호는 더 말할것도 없고 태수와 정아는 피끓는 청춘들로서 시대에 대한 높은

자각을 안고 우리 나라의 연료에 의한 주체적인 철생산과 새로운 기술혁신을 위하여 안타까이 모태기고 있으며 청춘의 패기와 열정, 온 심장을 다 바치고있는것이다.

그들은 난관과 애로에 부딪칠 때마다 청춘의 기개와 열정으로 그것을 과감히 뚫고나아가며 바로 그것을 청춘의 본분으로, 더없는 긍지로 생각한다.

장편소설 《청춘송가》의 주인공을 비롯한 작중 인물들은 당과 수령에 대한 불타는 충성의 열정을 안고 인민경제의 주체화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주체적인 철생산문제를 성과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일생에 한번밖에 없는 청춘시절을 빛내였으며 위훈으로 수놓았던것이다.

그리하여 소설은 우리 시대 청춘들은 소설의 주인공을 비롯한 작중인물들처럼 청춘을 당과 수령을 위한 성스러운 위업에 바쳐야 하며 여기에 바로 인생의 크나큰 보람과 긍지, 영예와 행복이 있다는 생활의 진리를 힘있게 확증하였다.

여기에 이 소설이 거둔 주되는 성과의 하나가 있다.

이것은 이 소설이 청춘에 대한 문제를 미학상의 문제로 제기하고 주체의 인생관의 중요한 문제에 정확한 미학적 해명을 주었다는것을 말하여준다.

장편소설은 애정률리문제를 정면에서 취급하였다는데서뿐아니라 그에 새로운 미학적 해명을 주었다는 측면에서 우리들의 주목을 끈다. 소설은 애정률리형상화에서 새로운 시도를 보여주었으며 소설의 혁신성의 하나도 바로 여기에 있는것이다.

사실 지금까지 우리의 장중편소설들에서는 애정률리문제를 이 소설에서처럼 정면에서는 제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애정선은 거의 모든 작품에 다 설정되어있었다.

그런데 적지 않은 작품의 경우에 애정선의 설정을 한갓 작품의 《양념감》으로 하는 폐단들이 없지 않았다. 따라서 그러한 작품들에서는 애정률리형상화를 통한 작가의 주장을 찾아보기 어려웠으며 독창적 시도가 느껴지지 않은것이 중요한 결함이었다. 이러한 견지에서 볼 때 이 장중편소설은 이 면에서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였다고 당당히 말할수 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적 요구에 맞게 사랑도 가꾸고 창조해야 한다는 사랑의 새로운 철학이다.

원래률리학적 개념으로서의 사랑은 결합의 감정으로서 대상을 끝없이 아끼고 귀중히 여기며 사모하는 사상감정과 헌신성의 두 측면을 담고있다.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것과 위하는 헌신성은 밀착되어있으며 사랑이라는 아름답고 고상한 사상감정의 두 측면을 이루고있다.

사랑은 아름답고 고상하며 숭고한것에 대한 믿음, 즉 신의를 전제로 하며 그것으로부터 출발된다고 말할수 있다.

믿음이 없는 사랑은 거짓이며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

믿음이란 두말할것도 없이 자기와 생사운명을 같이할수 있다는 확신에 기초한 믿음을 의미한다.

운명을 같이 할수 있는 아름답고 귀중한 존재로 느껴질 때 그때의 믿음은 매혹의 감정으로 승화된다.

아름답고 소중한 감정으로서의 매혹은 리상과 지향의 공통성, 생사를 함께 할수 있다는 믿음이 가는 귀중한 존재임을 온몸으로 느낄 때 생기는것이다.

운명을 같이하고 고틱을 같이 나눌수 있는 소중하고 귀중한 존재임을 폐부로 느끼고 받아들일 때 사람은 그를 끝없이 아끼고 존중하며 위하게 되고 모든 것을 바쳐나가게 되는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 참된 사랑은 힘이며 고무이며 열정이며 랑만인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참된 사랑은 스스로 차례지는것이 아니며 또 모든 사랑이 다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고무를 주는것도 아니다.

문제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며 어떻게 사랑하는가 하는데 있다.

우리 시대의 인간들, 공산주의자들은 사랑에 대해서도 웅당 능동적인 자세를 가져야 하며 그것을 창조적인 립장에서 대하여야 한다.

이 소설은 바로 이것을 형상적으로 밝히고있다.

장편소설 《청춘송가》에서 창조성이 인간의 본성의 한 측면인것만큼 그에 맞게 사랑도 마땅히 가꾸고 창조해야 한다는 작가의 이 주장은 사랑, 애정론 리형상에서의 새로운 진리의 해명으로 된다.

## 2. 우리 시대 인간들에 대한 감동적인 형상-미더운 80년대성격들

장편소설 《청춘송가》가 거둔 귀중한 성과의 하나는 작가가 우리 시대 인간들의 형상들을 감명깊게 보여줌으로써 80년대성격을 훌륭히 창조한것이다.

문예작품의 가치는 결국 시대의 전형적 성격을 어떻게 창조하는가에 의하여 결정된다.

장편소설 《청춘송가》를 읽고 우리가 기뻐하는 것의 하나가 바로 이 소설에 우리 시대 생활의 주류를 타고 생활을 적극적으로 창조해나가는, 자랑스러운 80년대를 위훈으로 수놓아가는 새 세대들의 형상이 감명깊게 창조되어있는 그 점이다.

이 소설에는 확실히 우리 시대 인간들의 매혹적인 형상이 있고 그 인간들에 대한 작가의 뜨거운 사랑과 열정이 느껴진다.

작가는 진호와 현옥, 태수와 정아를 비롯한 당의 품속에서 자라난 새 세대들을 무척 사랑하고있으며 그들을 소리높이 자랑하고있다. 소설에는 시대에 대한 작가의 뜨거운 열정과 숨결이 맥박치고있다.

작가는 진호와 현옥, 태수와 정아 등이 생활의 한 복판에서 주체적인 철생산을 위하여 안타까이 모대기며 열정을 쏟아부를 때에는 그들과 함께 안타까와

하며 그들이 실험에서 실패하여 고민할 때에는 함께 가슴아파하며 마음쓰고있다. 작가는 결코 생활의 판조자가 아니였으며 땀담한 심장을 가지고 작품을 써나가지 않았다.

작가는 주인공과 운명을 같이하고있으며 그와 함께 웃고 기뻐하며 고민하며 모대기고있다.

인간과 생활에 대한 작가의 이러한 뜨거움이 있었기에 소설에 나오는 인물들은 심장이 고동치는, 살아움직이는 산 인간으로 형상화될수 있었으며 시대와 함께 숨쉬고 사고하며 행동하는 참된 전형으로 감명깊게 창조될수 있었다.

장편소설 《청춘송가》에 나오는 진호를 비롯한 작중인물들이 우리 시대의 참된 전형, 80년대성격으로서 깊은 감동을 주는것은 우선 그들이 혁명적수령관에 기초한 주체의 인생관을 가진 인물들로 전형화되었다는 사정과 관련된다.

철저한 혁명적 수령관의 확립이야말로 80년대성격의 가장 본질적인 사상정신적 특질이다. 따라서 혁명적 수령관에 기초한 주체의 혁명적 인생관을 가진 인간들로 형상화하는것은 80년대성격창조에서 나서는 가장 중요한 사상미학적 요구이다.

장편소설 《청춘송가》에 나오는 주인공 진호와 그 애인 현옥, 현장기사인 태수와 정아를 비롯한 작중인물들은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의 열정으로 항상 심장이 세차게 고동치는 인물들로 형상화되었다.

주인공인 진호만을 보더라도 수차에 걸치는 고심 어린 실험에서 실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추호의 동요와 실망도 없이 초지를 굽히지 않고 연구사업을 완강히 밀고나갈수 있는것은 전적으로 그가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열화같은 충성으로 심장이 세차게 고동쳤기때문이었다.

열정에 불타는 진취적인 진호는 자기가 지금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쓴 4년간의 시험일지 첫 장에 《그동무들에게 조금만 기다리라고 하시오. 지금 원유가 두만강까지 와있습니다.》 라고 하신 아버지수령님의 간곡한 교시를 정성들여 적어넣었던것이다.

얼마나 가슴에 맺혔으면 시험일지의 첫 장에 그렇듯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또박또박 새겨넣었겠는가.

진호에게 있어서는 아버지수령님의 심려를 덜어드리는데 그의 모든 행동과 사색이 집중되어있었다.

그것이 바로 열정의 샘이였고 힘의 원천이였고 생활의 전부였다.

진호가 수도의 화려한 거리와 사랑하는 애인을 멀리 두고 현장에 내려간것도 현옥의 오빠인 명식의 모욕에 가까운 비난의 목소리를 듣고서도 그에 아랑곳하지 않고 단호히 체첼소를 찾아갈수 있는것도 그리고 현장에서 새 연료안을 시험하다가 사고까지 내여 부상당한 몸으로 병원의 침대에 누워있으면서도 창공을 자유로이 날아에는 수리개인양 포부를 꺾지 않고 기어이 성공하고야말 억센 투지를 가다듬으며



연구에 연구를 거듭하여 마침내 성공할수 있는것은 전적으로 그의 심장속에서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성의 열정이 뜨겁게 소용돌이쳤기때문이었다.

사실 진호는 그 누구보다도 자기를 깊이 이해하여주리라 믿었던 현옥이마져 자기를 이해하여주지 않고 현장에 함께 진출하겠다는 전날의 결심을 포기하였을 때 사랑의 시련으로 하여 고민하면서도 배낭을 메고 서슴없이 제철소로 삶의 보금자리를 옮기는 것이다. 이러한 그였기에 진호는 시힘일지에 《우리의 과제-그것은 할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을 하는것이다!》라고 썼고 그것을 생활의 드림없는 신조로 삼고 고심참담한 노력을 기울였던것이다.

할수 있는 일과 해야 할 일, 여기에 진호와 윤정아의 생활을 대하는데서의 차이가 있었고 진호와 강철직장 책임기사 류기철과의 계선도 또한 있었다.

할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는 여기에 진호의 성격의 적극성이 있고 당의 요구를 심장으로 받아들이고 그 관철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쏟아붓는 당에 끝없이 충실한 새 세대혁명가로서의 진호의 성격적 특질이 있는것이다.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을 심장으로 지니고 청춘을 빛내이는 미더운 형상들중에는 태수와 정아도 서있다.

진호의 동창생인 태수는 일찌기 철의 도시에 뿌리를 내린 현장기사로서 왕성한 투지와 정열에 넘쳐 새 기술창안에 온갖 정력을 쏟아붓는 기사이다.

그는 철생산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투사기를 창안하였으며 그것으로써 기술혁신에 기여하였다.

강철직장 기사인 윤정아 역시 인생에 한번밖에 없는 청춘을 당과 수령을 위한 성스러운 위업수행에 바치는데서 생의 보람과 긍지를 느끼는 당에 충실한 새 세대기술자이다.

대바른 인간인 그는 거듭되는 실험에서의 실패로 하여 정신적인 고민을 겪는 진호를 진심으로 도와나섰으며 더우기는 자기가 은근히 사랑하는 사람인 강철직장 책임기사 류기철이 작성한 《중유절약안》보다 진호가 설계한 안이 훨씬 우월하다는것을 확신하였을 때에는 주저없이 류기철의 안을 포기하고 진호의 안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여나서는 정의감이 있는 인간이었다.

우리는 윤정아의 이러한 사랑스러운 형상을 통하여 우리 당에 의하여 교양육성된 새 세대지식인들의 티없이 맑은 당적 량심을 읽게 되며 오직 당을 위한 보람찬 사업에서는 그들모두가 한덩어리가 되어 충성의 구슬땀을 흘려가는 우리 시대의 아름다운 인간들이라는것을 가슴후답게 느끼게 되는것이다.

장편소설 《청춘송가》에 나오는 진호를 비롯한 작중인물들이 우리 시대의 참된 전형, 80년대성격으

로서 깊은 감동을 주는것은 또한 그들이 독특한 개성을 가진 시대의 전형으로 감명깊게 형상화되었다는 사실과 관련된다.

장편소설 《청춘송가》에 나오는 인물들은 모두다 독특한 개성으로 하여 독자들의 뇌리에 깊은 인상을 남긴다.

우리는 이 소설을 읽으면서 작가가 진호를 비롯한 작중인물들의 성격을 전형화함에 있어서 그들을 시대의 본질을 체현한 우리 시대 인간의 전형, 80년대성격으로 훌륭히 형상화한데 대하여 기뻐하고있으며 더우기는 그 모든 인물들이 독특한 개성을 가진 매력적인 성격들로 전형화된데 대하여 주목을 돌리게 되는것이다.

성격의 미는 독특한 개성을 떠나 생각할수 없다.

문예작품에서의 성격은 그것이 시대의 본질을 체현한 전형적인 성격으로 되어야 할뿐아니라 감동적인, 개성적인 성격으로 되어야 한다. 원래 시대의 본질을 체현한 전형적 성격, 시대적 성격이라고 할 때에는 독특한 개성을 전제로 하는것이다.

소설에 나오는 주인공 진호와 현옥, 태수와 정아 등은 우리 현실에 있으면서도 자주 만난적 없는 인상 깊은 성격들이다.

파목하나 속으로는 정열이 끓는 진호와 늘 사색에 잠겨있는 정서적인 현옥, 《덜렁바우》, 《불도젤》과 같이 보이나 실상은 그렇지 않은 인정많은 태수와 단정하고 사려깊은 정아 그리고 말없이 성실한 은심이 등은 그 얼마나 다양한 개성의 형상들인가

소설의 주인공 진호는 생활에서 말이 적고 신중한가 하면 남아 그대로 호방하기도 하다.

그는 때묻지 않은 새 세대지식인이며 포부가 크고 열정에 불타는 청춘이다. 그는 자기가 한번 마음 먹은것, 한번 옳다고 생각하는것은 끝내 해내교야마는 《감때사나운》 성미를 가진 인간이기도 하다.

진호는 속으로 웃고 우는 인간, 속이 깊은 인간이다. 이러한 사람은 사랑을 하면 열정적으로 하는 법이다.

진호는 불같은 인간이다. 이러한 그였기에 금속공업부에 있다가 제철소로 내려올무렵 자기에 대한 참을수 없는 모욕적인 말들이 떠돌았고 것처럼 사랑하던 현옥이마져 자기를 리해하지 못하였을 때에도 그리고 현장에서의 거듭되는 실험에서 실패하였을뿐 아니라 사고까지 내어 사태가 심각해졌을 때에도 중요없이 연구사업과 실험을 계속하였으며 마침내 성공하고야마는것이다.

진호는 정녕 열정에 불타는 진취적인 인간이다.

그의 성격의 미도 바로 여기에 있는것이다.

장편소설 《청춘송가》에서 작가가 애정을 기울여 독특한 개성을 가진 시대의 감동적인 전형으로 형상화한 인물의 하나는 현옥이다.

현옥은 미모의 처녀이다.

외모도 아름답고 마음도 아름다운 처녀이다.

현옥은 늘 생각에 잠겨있는 듯한 처녀로서 무척 정서적이다.

흔히 정서적인 처녀들이 가끔 생활에서 나약성을 보일 때가 없지 않으나 이 처녀는 결코 그렇지 않다.

사색적이고 정서적이거나 결코 의지박약자가 아니다.

그는 사랑을 그 어떤 《명예》를 위한 수단으로 삼는 인간이 아니다. 그는 결코 자기의 리속을 차리기 위한 수단으로 애정, 사랑을 악용하는 그런 교활한 인간은 더욱 아니다. 그는 사랑에서 순결하였으며 진실하였다. 그는 순결한 인간이었고 진실한 인간이었다.

가슴부풀어오른 청춘의 희망과 포부, 삶의 희열과 랑만에 충만되어있는 현옥, 그는 자연도 인간도 정열적으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정서세계를 가진 인간이다.

현옥은 사랑에 성실하고 진실한 인간이었기에 오빠의 휘방을 물리치고 진호를 따라나서지는 못했으나 마음 한구석에는 늘 그에 대한 생각으로 차있었으며 그의 사랑의 순결성에는 변함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진호와 일시 떨어져있었으나 그의 새 기술안을 지지하여 많은 일을 하였으며 그것은 그의 새 기술안성공에 커다란 기여로 되었던 것이다.

이렇듯 현옥은 외모도 아름답고 마음씨도 고운 처녀였으며 사랑에 더없이 성실하고 다정다감한 정신세계를 가진 우리 시대의 매혹적인 지식인형상이다.

태수와 정아 역시 인상에 남는 개성적인 인물들이다.

진호가 과묵하면서도 속으로 끓는 인간이라면 태수는 《잘 다듬어지지 않은 수세미처럼 꺼칠꺼칠한 인간》이다.

《불도젤》이라고도 하고 《덜렁바우》라고도 하는 태수는 겉보기에는 세련이 부족한 덜통스러운 인간인것 같이 보이지만 실상은 그 얼마나 인정깊은 인간인가. 태수의 성격적 미가 여기에 있고 작가의 성격창조에서의 탐구의 흔적이 또한 여기에 있다.

정아는 소설에서 사랑이 가는 대바른 처녀로 형상되었다.

정아는 범속하고 일반적인것을 싫어하는 처녀였으며 모든것에 요구성이 높은 인간이었다.

그는 사랑에 대해서도 자기류의 일가견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특별한 점, 특히 남들은 엄두도 내지 못할 그런 비상한 포부를 품고 그 가능성을 위하여 자신을 깡그리 불태우는 그런 열정과 용기를 가진 인간을 사랑하고 싶어하는 처녀였다. 그는 그런 사람이라면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 한점의 불꽃으로 보태주고 싶었다. 그는 그것을 처녀로서의 커다란 행복으로 여겼다.

정아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중한 시기인 청춘 시절에 그만한 포부와 정열도 없어야 무슨 청춘이며 삶의 보람이 있겠는가고 생각하면서 인간과 생활을 그러한 관점에서 대하는 미래에 대한 꿈을 소중히 간직 한 사랑스러운 인간이다.

대바르고 담차고 요구성이 높은 정아, 언제나 단정하고 경우바른 그였기에 정아는 기철의 기술안을 포기하고 진호의 기술안을 적극 지지하여나서는 것이다. 여기에 우리의 사랑하는 젊은 처녀기사 정아의 아름다운 정신세계가 있으며 성격적 미가 있는 것이다.

장편소설 《청춘송가》는 당의 로선과 정책을 삶의 첫째가는 요구로 받아안고 그 관철을 위하여 물불을 가리지 않고 투쟁하는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의 전형을 독특하고 생동한 개성으로 창조함으로써 혁명적 수령관에 기초한 주체의 인생관을 지닌 우리 시대 인간의 전형창조, 80년대성격창조에서 새로운 전진을 가져올수 있었다.

### 3. 인간의 내면세계에 대한 침투와 철학적인 심오한 묘사

장편소설 《청춘송가》를 읽으면서 우리는 이 작가의 고유한 창작적 특성의 하나가 작중인물들의 내면세계에 깊이 침투하는것이며 인간과 생활을 예리하게 분석평가한데 기초하여 심오히 묘사하는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이 작가는 작품에서 자기가 다루는 인물들의 내면세계를 환히 꿰뚫고있으며 그에 정통하고있다. 작가는 자기가 다루는 인간을 알고 묘사하고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하며 앞으로 적극 발양시켜야 할 문제라고 본다.

이렇게 말하면 독자들은 소설가가 자기 작품의 인물도 모르고 창작할수 있겠는가고 반문할수도 있을것이다.

그렇다. 반문이 있을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소설가들이 자기 작품의 주인공을 비롯한 작중인물들의 내면세계를 속속들이 꿰뚫고 글을 쓰는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하게 된다. 실

제에 있어서 어떤 작가들은 작중인물들에 대한 구체적인 성격파악이 없이 창작에 진입함으로써 그 인물에게만 고유한 생활세부들을 포착하지 못함으로써 깊은 여운과 인상을 주는 형상을 창조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한 작품들에는 흔히 이야기줄거리는 있으나 인물들의 생동한 개성이 없으며 특색있는 세부형상이 없는 것이다.

《청춘송가》의 작가는 이 면에서 확실히 장점을 가지고 있다.

작가는 인물들의 구체적인 성격적 특징으로부터 시작하여 행동에 이르기까지 환히 파악하고 있다. 말하자면 이 작가는 사람의 심리를 알고 글을 쓴다. 이로부터 소설에는 심리묘사가 짙다. 작가는 동적인 묘사보다는 심리묘사를 즐겨하고 있다. 작가는 매 인물들의 구체적인 개성을 파악한데 기초하여 그들의 심리의 움직임을 심리학자마냥 정확히 포착하고 있으며 방불히 묘사하고 있다. 작가는 작중인물들의 내면세계에 깊숙이 침투하고 있으며 인간내면심리의 변증법을 숨쉴이게 개방하고 있다.

장편소설 《청춘송가》에는 작중인물들의 생활에 대한 작가의 예리한 분석과 평가가 주어져 있다.

그런데 작가의 인간과 생활현상에 대한 예리한 분석과 평가는 생활의 진리에 대한 해명과 강조로 하여 독자들에게 깊은 생각을 불러일으킨다.

이것은 작가가 소설에서 인간과 그 생활을 묘사함에 있어서 단순히 그것을 사건의 전진에 따라 형상화하는데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중요하게는 생활의 진리를 밝히는 방향으로 창작을 지향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 독자편지

# 《좋은 시는 생활에 대한 새로운 관찰력을 키워줍니다》

저는 잡지 《조선문학》 1987년 11호에 실린 시 《탑은 얼마나 높은가》(리종섭 작)를 보고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는 문학적인 전반 요구에 비추어볼 때 해결해야 할 형상적 문제들이 있지만 주체사상의 위대성과 인류의 지향과 념원을 잘 반영하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독자들에게 생활속에서 누구나 범상히 느끼고 직선적으로 감수할수 있는 대상들에 대하여 새롭게 의의를 부여해서 볼수 있는 눈을 틔워준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이지 주체사상탑의 높이는 그 누구도 모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작가의 이 창작적 지향이 귀중하다고 본다. 또한 우리는 이 점이 이 작가의 창작적 개성이고 장점이라고 확신한다. 이 장점을 앞으로 더 발전시킨다면 창작에서 더 큰 전진을 가져오리라하는것은 의심할바 없다.

장편소설 《청춘송가》에는 부분적인 부족점도 가지고 있다.

소설은 무엇보다먼저 장편소설형식에 상응하게 생활을 충만시키는데서 부족점을 나타내고있으며 다른 하나는 제철소에서의 현장생활을 그리면서 생산기술적인 문제에 지내 집착된듯한감을 주는것이며 다른 하나는 소설의 중요인물의 하나인 명식의 성격형상화에서 타당성이 적게 느껴지는것 등이다.

이 세가지 부족점중에서 첫째 측면과 둘째 측면이 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만일 작가가 장편이라는 큰 형식에 생활을 담는 것만큼 좀더 다양한 생활들을 탐구하고 묘사하였다면 소설은 장편으로서의 품위를 더 돋구었으리라고 생각한다. 더 다양한 성격들을 탐구하고 생활을 폭넓게 파고드는 탐구심이 더 있어야지 않겠는가고 생각한다. 이것은 물론 높은 요구임에 틀림없다. 그것은 작가의 첫 장편소설에서 이 모든것을 다 기대하기는 어렵기때문이다.

장편소설 《청춘송가》는 우리 소설문학이 거둔 또하나의 귀중한 성과작이다.

소설은 공화국창건 40돐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빛내이기 위하여 200일전투에 떨쳐나선 우리 근로자들을 힘있게 고무하는데 크게 이바지할것이다.

웁습니다. 시인이 소리높이 노래한것처럼 주체사상탑의 높이는 그 무엇으로써도 꺾수 없는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의 높이, 업적의 높이입니다. 이 시는 주체사상탑의 높이를 어떻게 볼것인가에 대한 웁은 대답을 주었습니다. 시인의 창작적 사색과 탐구의 노력은 독자들에게 생활을 보고 대하는 웁은 자세를 안겨주었습니다.

평안남도 념원군 도삼리 5반

김정길

## 설암리와 잉어

옛날 어느 한 시골에 설씨라는 사나이가 살고있었다.

그는 새끼를 꼬고 신도 삼고 해서 이것으로 근근히 살아나갔다.

어느날이었다. 그는 어느때와 같이 짚신과 새끼를 지고 성안에 들어가서 그것을 두냥에 팔아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는길이었다. 이미 해는 서산에 기울어지고 성안의 집집마다의 굴뚝에는 저녁연기가 부영계 오르고있었다.

《벌써 해가 저물었구나.》

설씨는 걸음을 빨리하여 대동강가에 이르렀다.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둘러싸고 떠들썩하였다.

그는 호기심에 팔려 도대체 무슨 일이 생겼나하고 가까이 다가가서 사람들의 어깨너머로 넘겨다보았다.

한 어부가 큰 물고기 한마리를 한가운데 놓고 흥정을 하고있는판이었다. 설씨는 그렇게 큰 물고기를 이때까지 본적이 없었다.

《그게 무슨 고기요?》

《잉어요.》

《아니, 세상에 저렇게 큰 잉어가 있단말이요.》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모두 혀를 뺏혀 내둘렀다.

그 잉어는 굉장하게 크고 람스런것이었다. 일으켜세우면 길이는 사람키만할것 같았고 큰 조개만한 비늘에서는 이상한 광채가 났으며 사발만한 두눈은 이상하게도 번쩍이고있었다.

설씨는 그 잉어를 들여다보았다.

잉어는 아직 살아있었으나 아주 구슬프게 눈물을 머금고 구경군들을 바라보았다.

설씨는 잉어가 비록 말은 못하는 미물이지만 마치 살려달라고 애원하는것 같이 보여 측은한 마음이 들었다.

《그 잉어를 팔지 않겠소.》

《돈만 많이 주면 아무에게나 팔지요.》

《얼마나 받으려오.》

《두냥만 주시오.》

《두냥!》

설씨는 생각하였다. 자기에게는 오늘 짚신과 새끼 판 돈이 모두 두냥밖에 없었다.

이 돈으로 잉어를 사면 당장에 쌀쌀 돈이 없어 굶을 형편이었다.

그러나 그는 잉어가 가없어서 주머니를 털어주고 잉어를 사기로 하였다.

《자, 돈을 받으오.》

설씨는 자기의 옷소매가 젖는것도 돌보지 않고 어부에게서 잉어를 두팔로 받아 가슴에 안고는 강가로 내려갔다.

그리하여 그 잉어를 강물에 집어넣었다. 잉어는 강물 한복판에 들어가서 꼬리를 치고 빙빙 돌다가 설씨를 보고 고맙다는 인사를 하는듯이 몇번이나 머리를 쳐들군하였다.

설씨는 그것을 보고 어쩐지 마음이 상쾌하여 코노래를 흥얼거리면서 집으로 돌아왔다.

그날밤 설씨는 꿈을 꾸었다.

화려한 옷을 입은 두 아이가 갑자기 자기앞에 나타나서 절을 나부시 하고는 공손히 말했다.

《우리들은 룡궁에서 온 사자올시다. 룡왕이 당신을 부르시와 모시러 왔나이다.》

설씨는 일찌기 룡궁이 있다는 말은 들었지만 자기를 부른다는것은 천만뜻밖의 일인지라 그들에게 물었다.

《룡궁에서 왜 나를 찾나요.》

《룡궁에 가시면 자연 아시게 될것이오니 지체마시고 곧 떠나시기 바라나이다.》

그리하여 설씨는 두 아이를 따라 물나라에 들어갔다.

문득 그의 앞에는 화려한 궁전이 나타났다. 그것은 인간세상에서 볼수 없는 휘황찬란한곳이었다.

열두대문을 지나서 설씨는 룡왕이 있는 대궁전으로 안내되었다. 대궁전의 기둥은 산호로 깎아세웠고 바닥은 대모를 깔았으며 천장은 진주로 문채를 놓았고 벽에는 자개를 뿌려 마치 요지경속에 들어온것 같았다.

대궁전의 중앙에는 룡왕이 위풍당당히 룡상에 앉았고 그 좌우에는 많은 신하들과 꽃같은 궁녀들이 나란히 서서 설씨를 맞이하였다.

설씨는 룡왕앞에 나아가 엎디여 절을 하니 룡왕은 일어나 친히 자리를 권하였다.

《먼길에 이와 같이 와주니 대단히 고맙소. 그대를 청한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대에게 입은 큰 은혜를 갚으려 함이요.》

설씨는 룡왕의 말뜻을 알아듣지 못하여 의아해서 반문하였다.

《저에게 은혜라니 그게 무슨 말씀이온지요.》

《다름아니라 내 아들이 오늘 봄날이 화창하기에 소풍하러 나갔다가 그만 어부에게 잡혀서 죽게 된것

을 그대의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생명을 건졌으니 이보다 더 큰 은혜가 또 어디 있겠소.》

그제야 설씨는 자기가 룡궁으로 오게 된 연유를 알게 되었다.

《그만것이 무슨 큰 은혜로 되겠사오리까.》

그는 겸손하게 사양하였다.

룡왕은 시너를 시켜 아들을 불렀다.

이윽고 그의 아들이 들어와서 부왕에게 절하여 뵈고 곧 설씨에게 공손히 절을 하며 말하였다.

《나의 목숨을 구하여주셨으니 어찌 그 은혜를 일시라도 잊으오리까. 그리하여 오늘은 은인을 일부러 청하였사오니 며칠이나마 유쾌히 쉬여주시기 바랍니다.》

설씨는 그 왕자를 보니 모습이 바로 자기가 낮에 대동강에 놓아준 잉어임에 틀림이 없었다. 룡궁에서는 가장 귀중한 손님을 모시고 삼일찬치가 베풀어졌다.

바다의 진미를 다 갖춘 진수성찬에 옥쟁반에 아름다운 술이 나오고 류량한 풍악소리 울리는 가운데 궁녀들은 너울너울 춤을 추었다.

설씨는 이렇게 갖은 환대를 받아가면서 어언 사흘을 지냈다. 그러다가 문득 집안일이 궁금한 생각이 들어서 왕에게 돌아갈 뜻을 고하였다.

《정 그렇다면 더 만류는 하지 않으려오. 그대는 물나라의 왕자를 구해준 은인이오니 이제 그 은혜의 만분지 일이라도 갚으려 하오. 그대의 소원을 말해보우. 무슨 소원이든지 한가지만 들어드리리다.》

《이토록 환대를 받고 또 무슨 소원이 있사오리까.》

설씨는 거듭 사양하였다.

그러나 룡왕은 굳이 몇차례나 소원을 말하라 하였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너무 사양함도 례가 아니와 한가지 청을 드리겠소이다. 그것은 다른것이 아니오라 대동강이 매년 여름철이면 홍수의 범람으로 수많은 인명과 재산에 피해가 막대하오니 만일 이 대동강을 모란대쪽으로 옮겨주시면 천연의 제방이 되어 홍수를 면할것이고 풍치도 아름다우며 물길의 리용도 편리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참으로 기특한 생각이요. 자기 일신의 부귀영달을 원하는게 아니라 만백성을 위해 그토록 청을 하니 내 기꺼이 들어드리겠소. 그런데 대동강물줄기를 돌리자면 래일부터 사흘동안 비를 내려야 하겠으니 사람들에게 미리 알려주어 피해가 없도록 하시오.》

이렇게 흔연히 승낙하였다.

설씨는 곧 룡왕을 작별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참 이상한 꿈도 있구나.》

이튿날 아침 잠에서 깨어난 설씨는 지난밤 꿈을 생각하였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하여도 그것은 꿈같

지가 않았다. 그리하여 그는 아침을 한술 뜨고는 곧 평양성안으로 들어갔다.

《오늘부터 큰비가 내리어 큰물이 날터이니 미리 차비를 하시오.》

이렇게 그는 웨치면서 이 골목에서 저 골목으로 돌아다녔다. 그러나 누구 하나 그의 말을 믿어주는 사람은 없었다.

《미친 사람이군!》

《별놈 다 보겠네.》

지나가던 사람들은 귀담아들을념도 안하고 모두들 이렇게 웃음거리로 돌렸으나 그는 온 성안을 웨치며 돌아다녔다. 그러자 마침내 그 소문이 관가에까지 들어가자 평양감사는 류언비어를 류포하여 민심을 소란케 하는자라 해서 설씨를 잡아들이어 옥에다 가두었다.

설씨가 막 옥에 갇히자 그때까지 청명하던 하늘은 순식간에 먹장구름이 뒤덮이였다. 동시에 사나운 바람이 일고 우뢰소리가 진동하더니 주먹같은 비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하였다.

비는 사흘동안 설사이 없이 계속 퍼부었다. 그리하여 대동강 일대는 범람하여 어디가 강인지 어디가 땅인지 분간할수도 없이 변하였다.

사흘째 되는 날이였다.

모란대 부근에는 유난히 안개가 자욱히 끼고 폭포와 같은 비줄기가 내렸다.

그런데 어디선지 큰 룡 한마리가 나타나 모란대 기슭에 앉았다가 잠시후에 꼬리를 치고 하늘로 올라갔다. 이 꼬리치는 소리는 천지를 진동하였다. 물란리를 만나 언덕으로 피난나온 사람들은 모두들 이 소리에 놀라 내려다보니 룡이 앉았던 자리가 크게 패워지고 물은 일시에 그곳으로 몰려들었다. 그리하여 범람하던 물은 순식간에 다 빠지고 그때에 지금과 같은 깎아세운듯한 청류벽이 생겼다. 그러자 비는 멎고 하늘도 맑아졌다.

그리하여 지금의 승호리쪽으로 흐르던 당시의 대동강이 오늘과 같이 청류벽을 감돌아 양각도로 물줄기가 옮겨졌으니 그후부터는 이 청류벽으로 인하여 아무리 큰 비가 내려도 평양은 수해를 입지 않게 되었다고 한다.

관가에서는 사태가 이렇게 되고보니 설씨의 말이 과연 옳았다는것을 인정하지 않을수 없었다.

설씨에게서 그 잉어에 대한 사연을 자세히 듣고 비로소 관가에서도 백성을 위한 설씨의 소중한 마음씨를 높이 칭송하였다.

그후 설씨가 세상을 떠난 다음 평양사람들은 그의 덕을 오래 기념하기 위하여 사당을 세웠다. 그리고 그가 살던 마을이름을 그의 성에서 따라 오랜 세월을 두고 설암리라고 불렀다고 한다.

## 목중 스케치 외 1편

-한 남조선미술가의 고백-

김철민

어두운 철창속  
차디찬 콩크리트바닥우에  
마치나 자유가 있고 삶이 있는듯  
전향서를 말없이 밀어놓고  
스스로 감방에 들어서는 사람들을  
나는 그린다

형장으로 가는 길  
그 길이 마치나  
아침이슬을 털며  
해마중가는 길이거나 한듯  
신심에 차 걷는 사람들을  
나는 그린다

누가 누구에게 형을 집행하는가  
단두대앞에서도 빙그레 웃는 푸른 수의들  
형리들은 악에 받쳐 전률해도  
내 불붙는 눈물속엔

그 모습들이 아름답구나  
어서 그리자 찢기고 터지고 으스러졌어도  
품은 뜻 통일에 두고  
품은 절개 비수처럼 버리어  
죄악에 찬 독재의 아성을 부시는 사람들

전람관에 전시할 화폭이 아니다  
겨레의 고통 몸에 지고  
죽어도 그 죽음으로  
민족의 불행을 덜고 가려는  
참인간들의 모습

아, 력사앞에 전시하고  
겨레의 피더운 가슴에 새겨  
미국과 독재자들을 징벌하리라  
이 나라 아들딸들이 받은 고통의  
천백배로 억천배로...

## 출 목

출옥이라고 출옥이라고  
저고리고름에 눈물 찍으며  
이 아들을 부둥키는 어머니시여

용서하시라  
그대를 모시고 자유로이 훨훨  
집으로 가지 않으려는 이 아들을

기쁘지 않나이다  
철창밖  
내 무겁게 디디는 이 땅이

감옥바닥에 깔리던 족쇄소리를  
살륙전에 나선

미국제 무한궤도소리에서 들립니다

무고한 육신을 옥조이던  
형리들의 사나운 눈찌를  
저 거리에 웅크린 바리케트에서 봅니다

들리나йка  
악을 쓰는 저 소음들  
탄압에 미친자들의 단말마적 아우성을

그 소리에 귀를 막았다 하여  
고령의 목사를 칼탕치는  
이 땅의 성당도 감옥

그 모습을 그렸다 하여  
지성인의 뒤통수가 짓조이는  
이 땅의 화살도 고문장

아, 족쇄를 찬 민주  
용수갑을 쓴 자유가 피울음 우는 이 땅에  
출옥이 투옥인줄 어머니는 모르십니까

이 땅에서 미국놈들을 내몰고  
저 거리들에 민주의 화폭을 펼쳐

분렬의 장벽이 무너지고 통일의 문이 열린 날

오, 그날에 어머니시여  
이 아들도 출옥되었다고  
그 눈물 저고리고름에 듬뿍 찍어버리소

그날까지는 그날까지는  
눈도 감지 마시고 눈물도 흘리지 마시고  
싸우는 이 아들을 바라보아주십소

## 신천이여, 네가 준것은... 외 1 편

손승래

상기 원한의 선혈이 질게 어려있는 땅  
내 신천의 바람부는 언덕에 서있노니  
가슴에 끓어 솟는 분노와 증오만이던가  
신천이여 네가 준것은...

몸은 비록 묶이웠어도  
결박하지 못한 그 충정-  
성에 불린 방공호 세멘트벽에  
-조선로동당 만세!  
정히 써갈제

저녁노을 피갈이 타는 언덕  
누군가 운을 댄 《김일성장군의 노래》  
숨결이 다하도록 이어부를제  
그들의 간절한 눈에 비친것은 무엇이였더냐

아직은 어머니란 말이 귀에 설고  
다심한 정을 다 기울이지 못하고 간 녀인들  
아기를 업고 돌아오던 두렁길에  
그들이 준 마지막 말은...

분여받은 살뜰한 땅 기름진 흙  
여름에 풀거름만 착실히 썩였어도  
쌀 몇가마니는 더 나라에 바쳤을 아쉬움을  
흙갈이 드바쁜 저 벌에 남기고 갔다

전기줄을 채 늘이지 못한 아쉬움을  
고성기 노래하는 저 언덕에 묻었고  
채 파지 못한 굴포에 어렸던 꿈은  
천리 아득한 수로에 넘치는가

베루신 사랑 받아안은 언덕  
이제는 더 받들수 없는 가슴속 안타까움  
영원한 메아리로  
고향땅에 두고갔으니

신천이여  
진정 네가 주는것은  
어찌 분노와 증오만이랴

한생의 일을 오늘에 다하듯  
그렇게 하루를 벅차게  
내 주먹을 쥐고 뛰며 살리  
피보다 많은 더운 땀방울  
오늘에 아쉬움없이 쏟으며 살리  
다 살지 못한 그들의 땀까지-

다짐하며 내리는 언덕길에  
한껏 울어예는 종다리  
어디선가 들려오는 봄시위소리  
아, 불어오는 들바람도  
그네들의 넋을 안고있구나

## 소년은 오늘도 편지를 쓴다

어느 하루 번진적 있었던가  
언제 한번 연필을 놓은적 있었던가  
정녕 수십여년째  
소년은 오늘도 편지를 쓴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불뽕는 총구앞에서도 흐릴줄 모르는  
넥타이의 노을빛 맑은 눈이 두려워  
끝내 흠을 끼얹은 살인귀 미제-  
한 조상땅우에 갈이는 못살아  
그대로는 차마 눈감울수 없어

천백배 원쑤를 갚아달라고,  
그날의 참화를 다시 들썩우려  
전쟁의 기회만을 노리고있다고,  
저기 남녘땅 동갑내기 아이들이  
놈들의 총칼에 무참히 숨진다고

형장을 덮힌 붉은 피로 한장 또 한장  
휴식도 잠도 없이  
소년이 띄운 편지는 천통이던가 만통이던가

아, 죄스럽구나 축하의 꽃물결에 떠받들려  
가슴 비좁도록 받아안은 훈장이  
어린 소년의 절규도 풀어 못준채  
흰서리만 덧없이 머리에 얹은것이

내 일찌기 소년시절과 작별하고  
락동강 불언덕에 군화자욱도 찍은 사람  
그의 피값을 받아내기에는  
미제의 가슴팍에 푼 탄창이 적었구나  
총대신 착암기를 틀어쥐고  
캐내인 쇠돌산이 너무 낮았구나

민족의 한가슴에 분렬의 칼날이 꽃히고  
미제의 피묻은 구두발이 이 땅을 더럽히는 한  
놈들의 죄를 만천하에 고발하며  
소년은 연필을 손에서 아니놓으리니

분노의 화산과 증오의 용암 없이야  
어떻게 소년의 편지를 품에 안을수 있으랴  
천백배로 원쑤를 보복하고  
그에게 하루빨리 휴식과 안정을 주자

용해공은 끓는 쇠물로  
농민은 설레는 이삭물결로  
병사는 틀어진 총창으로,

오, 소년은 오늘도 편지를 쓴다, 격문을 띄운다  
찾아오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미제의 마지막 양가슴에 날창을 박고  
소년의 멧힌 원한 후련히 풀어줄 때까지  
내 또한 휴식과 안정을 모르리라